40개 도서관과
문학작가가
함께하는

2022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백서

문학큐레이터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40개 도서관과
문학작가가
함께하는

2022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백서

문학큐레이터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목차

Ⅰ. 여는 글 6

Ⅱ. 2022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소개 7
1. 사업 개요 8
2. 사업 경과 9

Ⅲ. 2022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참여 현황 11

경기
1) 주엽어린이도서관 14
2)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18
3) 성남시 수정도서관 22
4) 오산시 중앙도서관 26
5) 느티나무도서관 30
6)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34
7)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38
8) 화성시 송산도서관 42

경남·경북
9) 동동숲작은도서관 46
10) 장유도서관 50
11) 포항시립 포은중앙도서관 54

광주
12) 신일작은도서관 58

대구
13) 달성군립도서관 62
14) 대구 동구 안심도서관 66
15) 구수산도서관 70
16)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 74
17) 용학도서관 78

부산
18) 금정도서관 82
19) 기장군 정관도서관 86
20) 부산광역시 남구도서관 90
21) 만덕도서관 94
22) 맨발동무도서관 98
23) 연제도서관 102

서울·인천
24) 도곡정보문화도서관 106
25) 강서구립 우장산숲속도서관 110
26) 관악중앙도서관 114
27) 상계도서관 118
28) 도봉구립 김근태기념도서관 122
29)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126
30) 구립증산정보도서관 130
31) 은평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134
32) 가온도서관 138
33) 중랑구립정보도서관 142
34) 소래도서관 146

전남·전북
35) 하늘을나는도서관 150
36) 전라남도립도서관 154
37) 행복세상작은도서관 158
38) 정읍 기적의도서관 162

제주
39) 퐁낭작은도서관 166

충북
40) 진천군립도서관 170

· 최우수도서관 인터뷰 174
· 권역별 오리엔테이션 187
· 우수도서관 시상식 189
· 프로그램 및 활동 190

Ⅳ. 부록 197

1.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추진 근거 198
2. 2022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현황 분석 200
1) 도서관 200
2) 상주작가 201
3) 프로그램 203
4) 만족도 204
3. 「2022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안내 206

Ⅰ. 여는 글

2022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살아있는 문학을 만나는 공간, 생생한 문학을 경험하는 시간

전국 각지 *40*개 공공도서관에서 상주하는 작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을 누리는 기반을 조성하는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끊임없이 국민의 문학의 향유 기회를 확장하고자 노력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집필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역 주민들에게 문학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문학 수요를 높일 수 있을까?’, 크고 작은 참여 도서관들 그리고 문인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참신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 백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7*년부터 시작한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의 *2022*년 기록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여기에는 *2022*년 사업에 참여한 *40*개의 도서관이 상주작가들이 마음을 진행한 프로그램 사례와 에세이가 담겨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에 함께 하고자 하는 전국의 도서관 담당자들과 문인들이 작게나마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문인들을 통해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문학을 매개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I.
2022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소개

1. 사업 개요
2. 사업 경과

1) 사업 개요

2022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문인이 상주하여 지역 주민 또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인의 일자리 및 안정적 창작 여건 제공을 통해 해당지역의 문학 수요 창출 모색

기간

- 2022년 4월 ~ 9월 (6개월)
- 상주작가 재고용 제한 기준 폐지 (단, 동일 도서관 근무는 최대 2회로 제한)

지원내용

-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
- 상주작가 인건비 월 200만원
- 4대 보험료 지원 월 24만 5천원

대상

- 도서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포함)
- 상주작가의 고용과 협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독립된 창작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 상주작가와 협력을 통해 특화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건(인력, 예산 등)을 갖춘 도서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작가채용 및 근무 기준 관련

채용기준

- 현재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등단 3년 이상)으로 아래의 조건이 성립하는 자 (사업 참여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동일 도서관 고용의 경우 최대 2회로 제한)
- 개인 작품집 1권 이상 발간 실적이 있는 자
- 각종 문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유경험자 또는 운영이 가능한 자
- 예술위원회와 공공도서관이 정한 근로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
  ・사업 참여기간 동안 집필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활동실적 제출
- 월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유사사업 참여자 제외 (유사사업 : 한국문학관협회「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한국작가회의「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단, 사업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
- 부정수급 대상(가족간 채용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제외
- 다음 규정에 근거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 6의 3을 준용한 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규정 등

근로기준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서관과 상주작가는 1주간의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일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도서관은 상주작가에게 1주에 2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위 ③호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한 경우 1주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은 1일 최소 4시간의 창작활동 시간과 월 2일의 외부활동 시간을 상주작가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상주작가는 도서관 관내에서 창작활동 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업 경과

사업 경과

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1월부터 2월까지 도서관 지원 및 심의가 진행했습니다. 3월에 도서관과 상주작가를 대상으로 권역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9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사이 현장 모니터링 및 정산 방문 교육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각 도서관 방문을 통한 현장 모니터링에서는 평가지표(백서 상 다음 페이지에 해당함)를 바탕으로 3곳의 우수도서관을 선발했습니다. 2022년 최우수 도서관에 경기 고양 주엽어린이도서관(더보기 – 페이지) 그리고 대구 수성구립용학도서관(더보기 – 페이지) 과 부산 남구도서관(더보기 – 페이지)이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 지원신청 접수 도서관 ➡ 예술위	**2. 지원 심의** 예술위	**3. 선정결과 발표** 예술위	**4. 권역별 오리엔테이션** 도서관, 작가
5. 사업 수행 도서관, 작가	**6. 현장 모니터링 및 정산 방문 교육** 예술위, 도서관	**7. 성과공유 워크숍** 예술위, 도서관, 작가	**8. 지원금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제출** 도서관 → 예술위

세부 평가 지표 *(2022년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설명	평가 방법	가중치
	투입 *(10%)*		
도서관의 사업 이해도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 및 공감	현장 인터뷰	*5*
작가의 사업 이해도	– 사업목적 및 근무여건, 조건에 대한 이해 – 지역 및 대상에 대한 이해	현장 인터뷰	*5*
	⬇		
	집행 *(25%)*		
상주작가 근무환경 적절성	근무 시간, 창작 시간, 창작 공간 등	현장관찰 및 인터뷰	*10*
프로그램 기획·운영 적극성	프로그램 구성 시 도서관 적극성, 협조성, 시기에 따른 기획 유연성 *(코로나19 상황 대처 적극성 등)*	현장 인터뷰	*5*
프로그램 진행 공간 적절성	– 프로그램 진행 공간 분위기, 시설 환경 등 – *(원격수업의 경우)* 참여방법 적절성, 환경 적절성 등	현장 관찰 / 원격수업	*5*
프로그램 물적, 인적자원 적절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및 지원인력	현장 인터뷰	*3*
안전관리	방역 등의 안전지침 준수 등	현장 관찰 및 인터뷰	*2*
	⬇		
	산출 *(20%)*		
문학프로그램 적절성	지역주민의 요구 및 특성에 부합하는 문학프로그램 운영	– 사업계획서 검토 – 현장관찰 및 현장 인터뷰	*15*
참여 기회·상호작용 적절성	참여자와의 상호작용, 문학적 경험 기회 제공	현장 관찰	*5*
	⬇		
	결과 *(45%)*		
	사업 참여자 만족도 *(30)*		
상주작가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재참여 의향, 도서관, 집필환경 만족도	상주작가 만족도	*10*
도서관 담당자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재참여 의향	담당자 만족도	*10*
문학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재참여 의향	참여자 만족도	*10*
	사업 지향점 *(15)*		
문학 수요자 증진 기여	문학프로그램 운영이 해당 도서관이나 지역에 기여한 정도	도서관 인터뷰	*10*
작가 창작활동 기여	작가의 창작활동 *(*아이디어, 작품 등*)* 기여도	작가 인터뷰	*5*
종합			*100*

III.
2022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참여 현황

2022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참여 현황

경기

(1) 주엽어린이도서관 14
(2)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18
(3) 성남시 수정도서관 22
(4) 오산시 중앙도서관 26
(5) 느티나무도서관 30
(6)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34
(7)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38
(8) 화성시 송산도서관 42

경남·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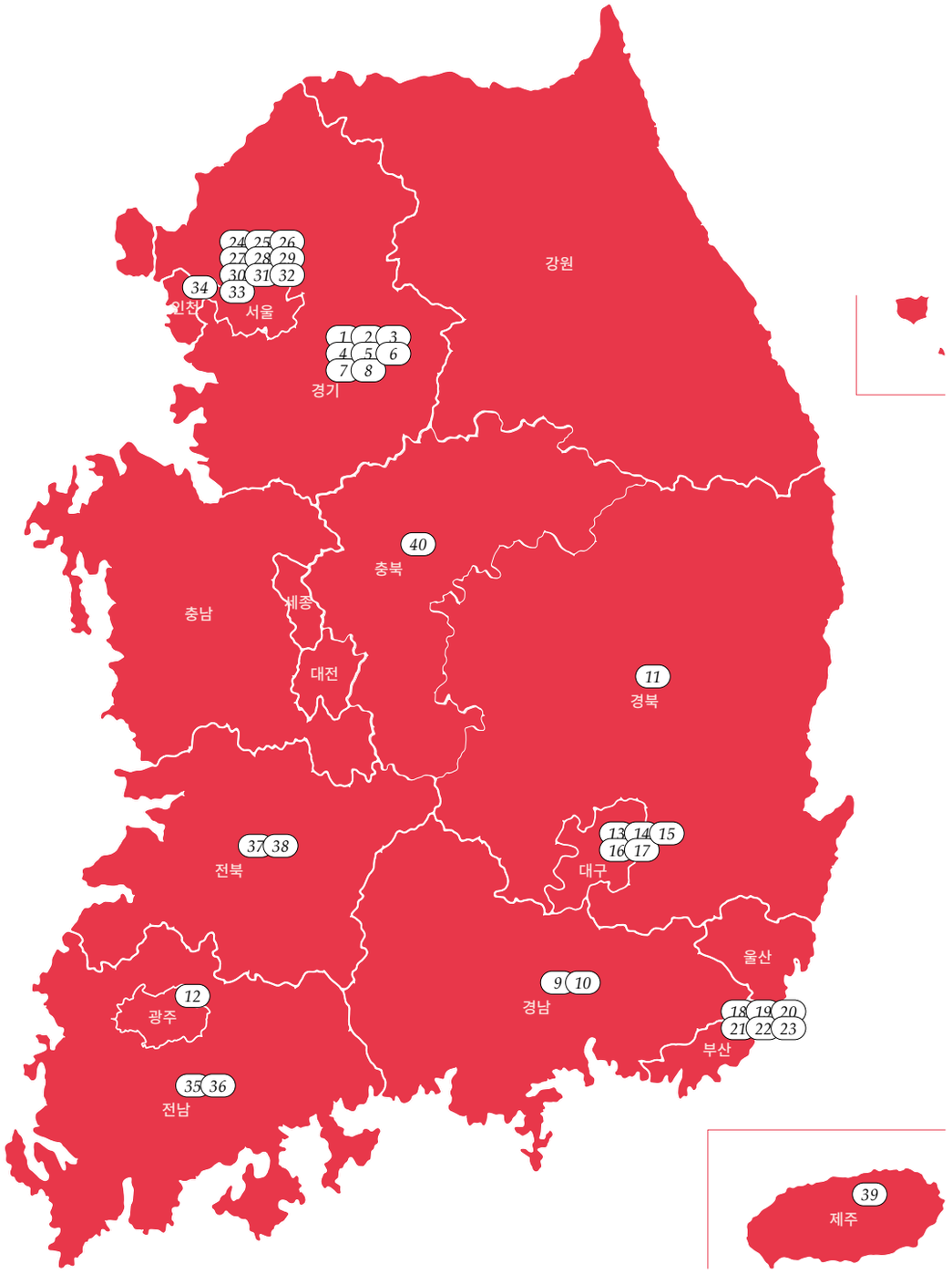
(9) 동동숲작은도서관 46
(10) 장유도서관 50
(11) 포항시립 포은중앙도서관 54

광주

(12) 신일작은도서관 58

대구

(13) 달성군립도서관 62
(14) 대구 동구 안심도서관 66
(15) 구수산도서관 70
(16)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 74
(17) 용학도서관 78



부산

(18) 금정도서관 82
(19) 기장군 정관도서관 86
(20) 부산광역시 남구도서관 90
(21) 만덕도서관 94
(22) 맨발동무도서관 98
(23) 연제도서관 102

서울·인천

(24) 도곡정보문화도서관 106
(25) 강서구립 우장산숲속도서관 110
(26) 관악중앙도서관 114
(27) 상계도서관 118
(28) 도봉구립 김근태기념도서관 122
(29)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126
(30) 구립증산정보도서관 130
(31) 은평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134
(32) 가온도서관 138
(33) 중랑구립정보도서관 142
(34) 소래도서관 146

전남·전북

(35) 하늘을나는도서관 150
(36) 전라남도립도서관 154
(37) 행복세상작은도서관 158
(38) 정읍 기적의도서관 162

제주

(39) 퐁낭작은도서관 166

충북

(40) 진천군립도서관 170



경기

고양시 주엽어린이도서관 최우수도서관

2007년 개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04*
031-8075-9170
https://www.goyanglib.or.kr/MG/index.do

고양시 주엽어린이도서관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20개 시립도서관 중 하나로서, 단순한 어린이도서관이 아닌 '세계그림책 특성화 도서관'을 표방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2층 세계어린이도서실엔 우리나라 그림책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다양한 그림책과 다문화 자료를 다수 비치하고 있으며, 시민이라면 누구나 열람과 대출이 자유롭습니다. 주엽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문화다양성'을 인식하도록 이끌고, 글로벌 리더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주엽어린이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김흥식(흥흥)

아동문학 *2019년 등단*

한겨레 출판편집학교에서 공부했고, 그림책 편집자를 준비하다 작가가 되었다.
글과 그림을 함께 한 작품으로 『들썩들썩 오삼불고기』, 『감옥에 갇히면』, 『무인도에서 보내요』, 『구이꼬칫집』, 『팔팔어묵탕』 등이 있다.









❶ **감옥에 갇히면** 씨드북(주), *2021*
❷ **팔팔어묵탕** 씨드북(주), *2021*
❸ **아빠의 술친구** 씨드북(주), *2021*

고양시 주엽어린이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편지교환 프로그램 '환상우체통'

상주작가와 편지로 고민을 나누고 답변으로 그림책을 추천받는 문학 프로그램 (서신 교환 후 결과물 전시, 문집엮기 진행)

- 2022년 4월 13일(수) ~ 9월 30일(금)
- 지역주민 대상

독서의 달 행사 '라디오 도서관'

어린이 희곡을 함께 읽고 감상을 나눈 후 상주작가와 전문성우의 협력으로 책 속 등장인물이 되어보는 라디오극 체험

- 2022년 9월 20일(화) ~ 9월 27일(화)
- 총 2회, 초등 3~6학년 대상

'그림책으로 웃겨드립니다', '그림책 속에 들어간 우리가족'

상주작가와 함께 하는 그림책 콘서트, 인터액티브 그림책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

- 2022년 5월 14일(토)
- 각 1회, 지역주민 대상

'재잘재잘 그림책' 시즌 1, 2

그림책 결말을 상상하여 발표하기, 글쓰기와 만들기 체험 등으로 독서를 즐기도록 돕는 어린이 프로그램

- 2022년 6월 28일(화) ~ 9월 13일(화)
- 총 8회, 초등 1~2학년 대상

여름방학 프로그램 '내가 그린 그림책'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을 통해 '나만의 책'을 만들어 보는 작가체험 프로그램

- 2022년 7월 26일(화) ~ 7월 29일(금)
- 총 4회, 초등 1~2학년 대상

'공부하는 그림책' 시즌 1, 2

유럽 그림책 작가들의 작법과 작품을 분석하고 참여자가 책을 직접 기획하는 그림책 연구동아리 프로그램

- 2022년 6월 29일(수) ~ 9월 14일(수)
- 총 8회, 성인 대상

여름방학 프로그램 '글쓰기 더하기'

무작위 단어 글쓰기, 결말-등장인물 바꿔쓰기 등 게임처럼 즐겁게 글을 써보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8월 2일(화) ~ 8월 10일(수)
- 총 4회, 초등 3~4학년 대상

'그림책 속에 들어간 우리 가족'

가정의 달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그림책 스토리텔링 공연, 인터액티브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 2022년 6월 18일(토)
- 총 1회, 그림책 가족동아리 대상

독서의 달 행사 '내 손으로 만든 그림책 캐릭터'

그림책을 읽고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그림책 장면을 재현해 보는 독후활동

- 2022년 9월 22일(목)
- 총 1회, 초등 1~3학년 대상

기획 북큐레이션 '작가의 서재: 흥큐레이션'

매월 작가가 주제도서를 선정하고 관련 생각과 실물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전시

- 2022년 5월 ~ 9월
- 지역주민 대상

고양시 주엽어린이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답장을 보내드립니다

주엽어린이도서관에서 2022년 상주작가로 근무하며 가장 잊지 못할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나요? 누군가 물으면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환상우체통'이라고 말입니다. '환상우체통'과의 시간은 제가 가지고 있던 작가관이 바뀔 정도로 저에게 영향력이 컸습니다.

처음 우체통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은 상주작가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윤주영 사서 선생님이었습니다. 우체통 프로그램은 작가와 지역주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기에 상주작가 지원사업의 사업목적에도 부합해 보였습니다. 여기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가졌던 주안점도 조미료처럼 첨가했습니다. 그건 바로 '재미'였습니다. 그렇게 우체통이 '환상우체통'이 되었습니다.

'환상우체통'은 기간별로 총 네 개의 테마로 진행했습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미래우체통', 평행우주의 또 다른 자신에게 보내는 '평행우주 우체통', 도서관 요정에게 보내는 '도서관 요정 우체통', 마지막으로 작가에게 보내는 '흥흥 작가 우체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편지를 많이 써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편지를 써주어서, 오히려 다 답장을 해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답장을 게시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답장을 썼습니다.

편지를 쓴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함께 읽고 공감하길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편지를 게시해야 했는데 아이들의 비밀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편지를 어떻게 공개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해결 방법은 필명이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아이들에게 필명을 쓰자고 했고, 거의 모든 아이들은 필명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필명으로 편지를 쓰며 재미있어하고, 또 게시된 편지를 읽으며 방긋 웃는 것을 보며 '환상우체통'을 하길 잘했단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상주작가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언제 또 제가 400통이 넘는 편지를 아이들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상주작가를 마치기 며칠 전, 몇몇 아이가 다가와 자기가 누구였다며 자신의 필명을 말해줬을 땐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이제 저는 독자의 바로 옆에서 함께 손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고양시 주엽어린이도서관 상주작가
김흥식 (흥흥)



경기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2021*년 설립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움 맷돌로 *84*
031–595–8390
https://lib.nyj.go.kr/lsy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남양주의 역사적 인물 이석영 선생을 기억하고자 건립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서관 내 블랙박스형 공연장인 '뮤직아트홀'을 조성하였고 각종 크리에이터 뮤직스튜디오, 레코딩 스튜디오 등이 다수 구비 되어 있으며, 재능있는 여러 지역민이 이를 다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에서 구성원들의 소통과 공동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류미정

아동문학 *2015*년 등단

'어린이책작가교실'에서 동화를 배우고 현재는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동화를 쓰고 있다. *2015*년 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을 통해 등단하였다. 저서로는 『잔소리 먹는 전화』, 『행운을 부르는 연습장』, 『벼락 맞은 리코더』, 『매직 슬러시』, 『마음을 쓰는 몽당연필』, 『소진이는 귀신이 무섭대!』 등이 있다.





❶ **할미와 나의 버킷리스트** 봄마중, *2022*
❷ **마시멜로의 달콤한 비밀** 책딱지, *2022*
❸ **거꾸로 말대꾸** 잇츠북어린이, *2021*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2022 석영마당

글쓰기에 '자신감' 심어주기를 목표로 하는 초등생 여름방학 글쓰기 프로그램

- 2022년 6월 4일(토) ~ 7월 2일(토)
- 초등생 15인 대상

작가 기획 온라인 큐레이션

상주작가가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도서를 추천하여 진행하는 온라인 북 큐레이션 (미디어 및 SNS 활용)

- 2022년 5월 ~ 9월
- 지역주민 대상

나의 단상, 아이의 상상

부모와 아이가 글로 소통한 내용을『단상교환집: 가족편』문집으로 제작하는 문학 매개 프로그램

- 2022년 7월 9일(토) ~ 9월 14일(수)
- 가족 이용자 총 5팀 대상

마을 장터 이야기 '마석 오일장'

전통시장의 풍경을 작가가 직접 취재하여 시장의 매력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공유하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5월 ~ 9월
- 지역주민 대상

공감, 나만의 그림책

글과 그림을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문학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 2022년 8월 24일(수) ~ 9월 21일(수)
- 성인 8인 대상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도서관 상주작가 사업을 마무리하며

2021년 1월에 개관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두 번째 상주작가가 되었다. 상주작가로 첫 출근 날, 관장님 면담에서 들었던 말이 생각난다. "도서관이 동네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스스럼없이 찾아와서 책을 읽고,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나 역시 문학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이웃들에게 문학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

전국에서도 몇 번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마석 오일장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표현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를 정해서 내가 느낀 오일장을 글로 풀어내고, 오일장처럼 도서관도 사람 냄새 풍기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보였다.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프로그램은 연령층을 다양하게 잡았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만들기 수업 및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글쓰기를 6개월 동안 진행했다. 요즘 아이들은 다양한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어서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한다. 어쩌면 영상을 통해서 상상력의 창고 문을 꽉 닫아 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글과 그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글쓰기를 진행해 보았다. 미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면서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꿈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유년시절, 꾸었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림책 수업을 진행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기를 반복하던 시간 속에서 자기만의 그림책을 완성해 나갔다.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가 아니라 '지금도 늦게 않았어.'를 깨닫게 해 준, 귀한 시간이었다. 가족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내가 특별히 할 것이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글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로 마음껏 표현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그들에게 손수건이 되어 줄 뿐이었다. 오히려 내가 배움을 채워 나갔던 시간이기도 하다. 가장 만만한 가족이 가장 챙겨줘야 할 대상임을 깨닫는 순간, 용기를 내어 나를 있게 해 준 가족에게 사랑의 문자를 보냈었다.

상주작가 프로그램이 마무리 된지도, 어느새 일 년이 다 되어 간다. 내 책상 위에는 도서관에서 만든 문집 세 권이 전시되어 있다. 어린이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이 채워 진 '꿈을 만드는 아이들' 꿈꾸는 삶의 아름다움이 깃든 '공감, 나만의 그림책'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재정비했던 '우리들의 나날, 모음집'. 세 권의 문집이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이 아닐까 싶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상주작가
류미정



경기

성남시 수정도서관

*2000*년 개관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32*번길 *32*
032–743–9600
https://www.snlib.go.kr/sj

*2000*년 *10*월 개관한 성남시 수정도서관은 다양한 장서를 보유하고 이를 좀 더 친근하고 즐겁게 이용자와 만나도록 이끄는 여러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교실, 독서회, 특화(전통문화)사업, 책마을 지역사업 등이 있으며 지역민과 소통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수정도서관은 시민의 정보 이용 및 문화적 향유,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시민의 정보 이용 및 평생교육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수정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윤혜숙

아동문학 청소년 소설 *2013*년 등단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 전공. 역사 이야기로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수상 이력을 쌓았으며, 집필 저서로는 『뽀이들이 온다』, 『계회도 살인사건』, 『격리된 아이』, 『광장에 서다』(공저), 『민주를 지켜라!』, 『대한 독립 만세』(공저), 『여섯 개의 배낭』(공저), 『이웃집 구미호』(공저) 등이 있다.





❶ **말을 캐는 시간** 서해문집, *2021*
❷ **괴불주머니** 단비, *2020*
❸ **보호종료** 서유재, *2020*

성남시 수정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삶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 내 인생의 스토리텔링

참여자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소재 삼아 글을 쓰고 결과물을 문집으로 발표

- 2022년 5월 25일(수) ~ 8월 12일(금)
- 총 8회, 성인 142명 참여

윤쌤의 다정한 책 처방

참여자와 상주작가가 1:1로 고민을 나누고 관련된 글쓰기와 책 처방을 나누는 문학 상담소

- 2022년 7월 1일(금) ~ 9월 30일(금)
- 총 12회, 지역주민 29명 참여

덕질로 배운다! 10대를 위한 글쓰기 특강

글쓰기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과 직접 글을 써보고 작가의 꿈을 이루는 법을 이야기하는 멘토링 강좌 프로그램

- 2022년 7월 26일(화) ~ 7월 27일(수)
- 총 2회, 초등고학년 및 중학생 17명 참여

떴다! 작가들이 떴다

동화작가들이 함께 책을 읽어주는 낭독 프로그램

- 2022년 4월 30일(토)
- 총 1회, 지역민 대상
- 참여명사: 소연, 김송순, 이조은, 전세영, 정미영 작가

우리가 사랑한 작가들 – 한 여름밤의 문학여행

국내 근현대 문학가의 작품을 읽고 그들의 감춰진 이야기를 살펴보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8월 4일(목) ~ 9월 8일(목)
- 총 6회, 성인 76명 참여

청소년 꿈성장 프로젝트

상주작가가 지역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초·중·고교생 대상 글쓰기 및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5월 4일(수) ~ 7월 13일(수)
- 총 15회, 초·중·고교생 667명 참여

시 읽는 시간 – 시가 있는 영화, 시가 있는 삶

시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감상하고 영화감독과 함께 시 낭독, 감상 나눔을 함께하는 프로그램

- 2022년 9월 24일(토)
- 총 1회, 청소년 및 성인 18명 참여

상주작가 기록전

상주작가의 다양한 도서관 내 활동을 기록하여 전시하는 문학 활동 아카이브 전시

- 2022년 11월 23일(수) ~12월 31일(토)
- 지역주민 131명 참여

상주작가 윤쌤이 추천하는 책 읽어볼래?

월별 테마를 통해 청소년에게 책을 추천하고 해당 도서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소개하는 북 큐레이션

- 2022년 5월 ~ 9월
- 청소년·성인 대상, 총 170회 유튜브 조회

상주작가 메타버스 플랫폼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내 상주작가의 공간을 구축하여 관련 문학 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

- 2022년 7월 ~ 계속
- 지역주민 및 관심 있는 대중 누구나

성남시 수정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나의 인생 프로모션,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마치며

첫날 수정도서관에 들어설 때의 내 기분은 마치 본사에서 지점에 파견된 직원 같았다. 낯선 도시에 던져진 듯한 어정쩡함은 몇 시간도 안 돼 깨졌지만. 고위 직급이나 가질 법한 별도의 내 방에다 업무 시간 중에 회사 일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업무 조건이었다. 이와 달리 대외적 업무 환경은 가히 최악이었다. 재개발지인 도서관 주위는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돼 도서관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코로나로 단련이 돼 있기도 하고, 면접 때 대충 듣기는 했지만 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업무 환경을 핑계 삼아 대충 버틸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3년의 도전 끝에 간신히 붙은 직장이었으니까.

회사 다닐 때 주요 업무는 마케팅이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사 제품을 알리고 구매력을 최대화하는 게 목표다. 직업 본능이 발동됐다. 우선 소구대상인 소비자들을 직접 찾아가 우리 제품(도서관)의 좋은 점, 구매하면 얻는 혜택 등을 알리는 일부터 시작했다. 도서관과 가까운 수정구와 중원구의 초중고에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의 취지를 알렸다. 2주 후, 우리의 예상과 우려를 뒤엎고 15개의 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해왔다. 더운 날씨에 이루어진 강행군이었지만 마케터에게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일만큼 기쁘고 소중한 것은 없다.

두 번째의 마케팅은 고객들의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1+1 할인행사, 증정 이벤트 같은 프로모션 활동이다. 대부분의 대형 점포에서 주로하는 시식, 입어보기, 타임 세일 같은 이벤트에 속한다. 이런 프로모션은 직접 구매(행사 참여나 책 빌리기)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제품을 홍보해주고 구매를 독려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자신의 살아온 삶 속에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찾아 써보는 글쓰기 수업 <내 인생의 스토리텔링>, 이전 시대를 빛냈던 작가들의 시와 소설을 읽고 공유하는 <우리가 사랑한 작가들>과 자신의 현재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책을 알려주는 <다정한 책 처방> 등이 그때 벌인 프로모션이다.

상주작가로서의 보낸 지난 6개월은 서른 살의 마케터로 돌아가보는 시간이었고, 도서관에 빚진 마음을 조금 갚았던, 내 인생의 이벤트 같은 시간이었다.

성남시 수정도서관 상주작가
윤혜숙



경기

오산시 중앙도서관

*2008*년 개관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85*
031–8036–6140
https://www.osanlibrary.go.kr/jungang/mai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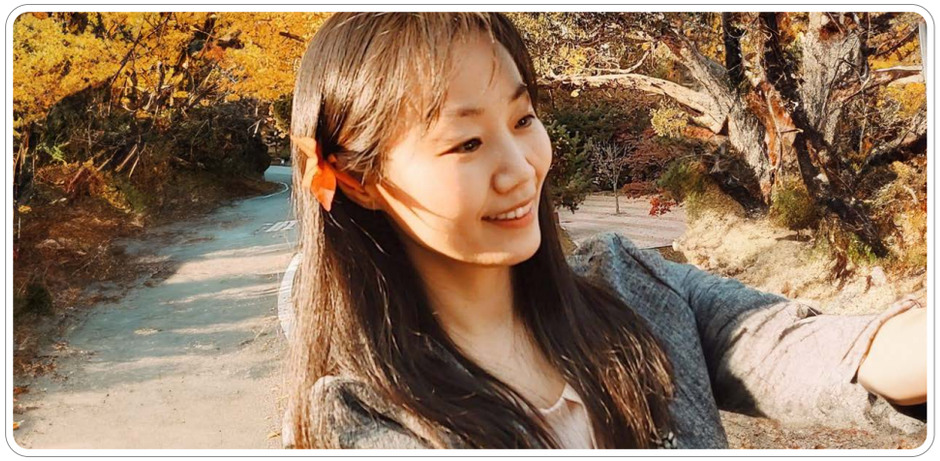
오산시중앙도서관은 오산시민과 함께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대표적인 거점도서관으로, 지역주민의 독서 활동 증진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며 꾸준히 여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양질의 도서 서비스 제공, 문화예술 공연, 인문학·문화 강좌 및 전시체험 등의 행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산시중앙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섬세한 고민을 담아 도서관을 운영하며 지역 내 주민들이 모이고 정보를 나누며 소통하는 문화광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오산시 중앙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권지영

시 아동문학 *2015*년 등단

문예창작학과에서 글쓰기를, 언어문화학과에서 문학과 문화를 공부하였다. 저서로는 『붉은 재즈가 퍼지는 시간』, 『아름다워서 슬픈 말들』, 『당신, 잘 있나요』, 『재주 많은 내 친구』, 『방귀차가 달려간다』, 『비밀의 숲』, 『전설의 달떡』, 『하루 *15*분 초등 문해력』, 『너에게 하고픈 말』 등이 있다.





❶ **천 개의 생각 만 개의 마음 그리고 당신** 문학세상, *2023*
❷ **너에게 하고픈 말** 단비청소년, *2022*
❸ **달보드레한 맛이 입 안 가득** 국민서관, *2021*

오산시 중앙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모두의 낭독회

시적 체험과 습작 시를 낭독하는 발표회(자작시 오디오 클립 녹음 및 공개)

- *2022년 5월 10일(화) ~ 5월 31일(화)*
- 총 *4*회, 지역주민 대상

일상으로의 초대 – 기록

주제별 함께 '읽고 나누기'와 일상의 기록을 쓰고 나누는 글쓰기 체험 및 발표 프로그램

- *2022년 7월 19일(화) ~ 9월 6일(화)*
- 총 *8*회, 지역주민 대상

권지영 시인의 시화전

상주작가의 작품『너에게 하고픈 말』속 시와 그림 전시 프로그램

- *2022년 6월 3일(금) ~ 6월 30일(목)*
- 지역주민 대상

일상으로의 초대 – 기록 책자 발간 및 전시

일상기록 작품을 시화로 표현·전시하고 『일상기록집』 책자를 발간하는 프로그램

- *2022년 9월 29일(목) ~ 10월 15일(토)*
- 지역주민 대상

우리 아이의 행복지수와 문해력 키우기

책 읽기와 쓰기의 활용을 통해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우기를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6월 24일(금)*
- 총 *1*회, 지역주민 대상

인생 문구 캘리그라피 체험

글을 읽고 인생 문구를 선정하여 캘리그라피로 새해 달력을 만드는 프로그램

- *2022년 10월 18일(화) ~ 10월 22일(토)*
- 아동 및 성인 대상

달보드레한 동시여행

수수께끼 동시로 이야기를 상상하고, 의성어·의태어·여름 낱말로 직접 동시를 지어보는 프로그램

- *2022년 8월 10일(수) ~ 8월 12일(금)*
- 총 *3*회, 초등생 대상

작가의 북 큐레이션

월별 주제를 통해 선정한 추천도서 게시 및 전시하는 문학 큐레이션 프로그램

- *2022년 4월 ~ 9월 (매월)*
- 지역주민 대상

오산시 중앙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벚꽃 구경을 가기 위해 친한 언니와 처음으로 경주에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 남쪽 지방이 고향이지만 수도권에 살고 있어 이른 벚꽃의 개화를 보아야만 그해의 기운이 충전된다는 언니가 나를 꽃구경에 초대한 것이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꽃구경이라니, 처음이었다. 설렘의 날짜가 임박해오고 있는 와중에 상주작가라는 제의가 들어왔다.

도서관에서 작업실을 주지만 거의 매일 출근을 해야 하기에 망설였다. 선배 작가님께 여쭤보고 고민한 후 서류를 접수했다. 면접을 통과한 후 벚꽃 여행은 앞당겨야 했고 바로 *4*월부터 오산중앙도서관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다.

낯설었던 오산이라는 도시가 정겹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매일 작업실로 출근을 하며 오산의 매력을 흠뻑 느끼게 되었고 친절한 도서관 선생님들과도 친밀도를 쌓아가며 작업실을 아주 잘 이용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언제든 문을 열고 나서면 원하는 책들이 있어 좋았다.

도서관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모두의 낭독회' 프로그램은 시를 읽고 쓰는 시간이었다. 시를 어렵게 여기는 분들과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함께 시를 읽고 나누었다. 그리고 낭독을 하고 시도 썼다. 시란 우리 곁에 늘 함께하고 있었음을 시나브로 느끼셨을 거라 생각한다.

그 이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특강', 여름방학에 초등학생들과 만나는 '동시특강', 그리고 매 달 주제별 '북큐레이션'과 마지막 프로그램이었던 '일상 기록집 만들기'가 진행되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만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듯 문학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일상기록집 만들기는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스스로 매일 적어나가는 습관을 들이며 즐겁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드렸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품을 만들어 도서관에 전시를 했다. *8*주 동안 매주 글쓰기 강의를 통해 '나만의 목소리'를 찾고 '나와의 여행'을 하는 시간이었다.

친절하고 열정적인 담당선생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다. 일상기록집이 예쁘게 책자로 발간이 되었고 뭐든 척척 잘 해내는 선생님께 찬사를 보낸다. 또한 도서관에 상주하며 작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책이 있는 도서관에서 만나 소통한 시민분들 또한 큰 행운이었다. 어느새 그 시간들이 즐겁고 흐뭇한 풍경으로 남았다.

오산시 중앙도서관 상주작가
권지영



경기

느티나무도서관

*2000*년 개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116*번길 *22*
031–262–3494
http://www.neutinamu.org/

느티나무도서관은 비영리공익법인 느티나무재단이 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입니다. 누구에게나 문턱없이 지식, 정보, 문화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배움을 나누며 소통하는 도서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이슈를 담은 느티나무만의 주제별 컬렉션, 신문 스크랩 코너 등을 특화하여 지식과 책을 통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먼저 말을 걸고 다가오는 도서관"이라는 슬로건을 동력 삼아 생각을 짓고 책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느티나무도서관의 활동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김영숙

아동문학 | *2006*년 등단

고고인류학과 박물관학을 공부하고 경기도 박물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박물관, 제암리 *3.1* 운동 순국기념관에서 근무했다. 『무지개 도시를 만드는 초록 슈퍼맨』, 『조잘조잘 박물관에서 피어난 우리 옷 이야기』, 『세종대왕이 뿔났다』, 『최초사 박물관』, 『지옥의 섬, 군함도』, 『*100*년 전 우리는』 외 다수의 작품을 기획하고 집필했다.





❶ **지옥의 섬 군함도** 풀빛, *2017*
❷ **세종대왕이 뿔났다** 토토북, *2016*
❸ **무지개 도시를 만드는 초록 슈퍼맨** 위즈덤하우스, *2015*

느티나무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상주작가와 함께 읽는 그림책 낭독회

상주작가와 함께 그림책을 읽고, 상호소통하는 즐거움을 찾는 낭독회

- 2022년 5월 ~ 9월
- 총 20회, 지역주민 대상

상주작가와 함께 '어린이 글쓰기 모임'

그림책 낭독 후 생각 의견 나누기, 글쓰기, 감상 나누기 등을 통해 놀이처럼 즐기도록 돕는 글쓰기 프로그램

- 2022년 7월 ~ 8월
- 총 4회, 초등생 대상

김영숙 작가와 함께하는 어쩌다 동화 낭독회

상주작가와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동화의 가치를 발견하는 독서 프로그램

- 2022년 9월
- 총 4회, 지역주민 대상 (총 3회 완독)

작가 만남 프로그램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분야의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

- 2022년 5월 ~ 9월
- 총 4회, 지역주민 대상
- 참여명사: 김서령, 이혜령, 전지현, 정이립, 김소영, 고정순, 이명현 작가

김영숙 작가와 함께하는 어른을 위한 글쓰기 모임

글쓰기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통 글감 글쓰기 프로그램

- 2022년 5월 ~ 6월
- 총 9회,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사회를 담는 컬렉션 도서 보강 및 지하철 서재 컬렉션 선정 및 전시지원

사회를 담는 주제별 컬렉션 도서 선정 및 전시를 사서와 함께 기획 후 운영

- 2022년 5월 ~ 9월
- 도서관 이용자 대상

느티나무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우연치곤 괜찮은 것

도서관에서 글쓰기 강의를 열게 되었다. 매주 글을 쓰고, 서로의 글을 합평하고, 내가 총평을 하는 방식의 소그룹 강의였다. 동네 이용자들의 가벼운 소모임 정도로 예상했으나, 작가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온 사람들이 여럿이었다. 심지어 그림책 작가로,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거나 드라마 교육원의 수업을 이수한 사람도 있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들으러 오는 거지? 회원들의 의욕과 열정에 오히려 기가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결석하는 회원이 생겼고,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겠다는 사람도 나왔다.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 매주 글을 쓰고 합평하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을 것이다.

12주가 흘러 종강을 맞았다. 묵묵히 과제를 수행하며 따라와 준 회원들이 고마웠고, 처음보다 글쓰기가 훨씬 나아진 사람들을 보며 보람도 느꼈다. 작가가 되겠다고 호기롭게 시작했던 회원들은 겸손해졌다고 했다. 배우면 배울수록 글쓰기가 어렵다고, 글쓰기란 세계를 깊이 경험했다고, 앞으로 계속 쓰는 인간으로 살겠다는 등의 소감을 나누었다. 마지막 차례가 된 회원이 "우연히 알게 된 것 치고는 정말 괜찮은 수업"이었다고 했다. 우연치곤 괜찮다는 말은 뭘까 생각했다.

도서관에서 작가의 강의를 열기 위해 사서들은 상주작가 사업을 따내야 하고, 아르코는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피 땀 눈물도 함께 갈아 넣었을 것이다. 작가 역시 두 시간 강의를 위해 회원들의 글을 밤늦도록 읽고 또 읽으며 가장 적절한 평을 하기 위해 몇 달간을 고심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주작가 사업에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일까?

작가가 도서관에 머무르는 것은 그야말로 무형의 가치다. 도서관은 이용자가 답을 찾고 즐기도록 마당을 내어주고, 작가는 넌지시 이용자에게 말을 건넨다. 때로는 글쓰기로, 낭독회로, 책으로, 행사로. 도서관에 머무르다 어쩌다 마주치고, 거기서 작은 위로와 힌트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용자만 그런 게 아니다. 작가도 우연히 만나게 된 이용자들에게서 가르침과 힘을 얻는다. 글쓰기 수업의 마지막 소감은 상주작가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자 내가 도서관에서 느끼는 소회이기도 하다. 있는 듯 없는 듯 머무르는 작가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기에 오늘도 우연인 척 도서관으로 출근한다.

느티나무도서관 상주작가
김영숙



경기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2018*년 개관
경기도 평택시 죽백*6*로 *20*
031–8024–5467
www.ptlib.go.kr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은 정보문화센터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도모합니다. ‘독서당’ 공간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지역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독서 외에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도 접할 수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택아메리칸 코너’를 마련, 한미 양국 간의 다양한 교류를 위한 정보 공간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배다리도서관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여러 기획을 통해 지역민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플랫폼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유영진

동화 *2000*년 등단

장안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2000*년 아동문예문학상에 동화 『태풍이 지나간 자리』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과 관련된 동화를 써 왔으며, 지은 책으로는 『우리말을 알려 드립니다』, 『미세플라스틱 수사대』, 『내 마음에 든 나』, 『상하수도는 무슨 일을 할까?』 등이 있다.





❶ **우리말을 알려 드립니다** 키다리, *2020*
❷ **미세플라스틱 수사대** 좋은꿈, *2020*
❸ **내 마음에 든 나.** 형설아이, *2018*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매일 키워드 글쓰기

상주작가가 제시하는 키워드를 글감으로 매일 익명 단편 쓰기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 2022년 5월 10일(화) ~ 5월 31일(화)
- 성인 15명 참여
-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밴드'로 운영

달이네 오디오북 제작소

참여자의 창작문학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여 도서관 SNS에 게시하고 나누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9월 6일(화) ~ 9월 27일(화)
- 총 4회, 성인 10명 참여

내 안의 작은 아이

어린 시절, 혹은 현재의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참여자가 직접 제작하는 어린이 문학 출판 프로그램

- 2022년 6월 7일(화) ~ 8월 9일(화)
- 성인 10명 참여

우리동네 작가를 소개합니다 – 유영진 작가와의 만남

상주작가 저서 『미세 플라스틱 수사대』를 주제로 페트병 새활용 작품을 제작해보는 활동

- 2022년 5월 14일(토)
- 총 1회, 어린이 20명 참여

작가의 그림책방

매주 작가가 선정한 그림책을 도서관 어린이들에게 읽어주는 '책읽기 프로그램'

- 2022년 7월 7일(목) ~ 8월 11일(목)
- 총 6회, 어린이 대상

책 처방소 – 이럴 땐 요런 책

상주작가가 어린이 도서를 추천하고, 이를 전시하는 큐레이션 프로그램

- 2022년 4월 ~ 9월
- 어린이 대상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함께 채우는 우리의 이야기

상주작가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처음 가져보는 집필실 때문이었습니다. 집필실에서 저는 온전한 작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글을 쓸 때는 놀아달라는 소리, 배고프다는 소리, 세탁기 다 돌아간 소리 등등 반응해야 할 많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책 읽기나 글쓰기를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주작가로 도서관에 출근하면서부터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집필실은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상주작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무조차 좋았습니다. 독자들과 가까이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림책 창작 과정이었던 <내 안의 작은 아이>는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성인들이 그림책을 창작하여 출판하는 과정으로 긴 시간이 필요했던 만큼 큰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손자를 돌보며, 손자의 유치원 등원 길을 그림책에 담아낸 할머니 작가도 있었고,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담아낸 그림책도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서툴고, 그림이 서툴다고 힘들어하면서도 꿋꿋이 자신의 그림책을 완성해 내는 시민 작가들을 보면서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시민 작가 중 몇몇은 그림책 작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저는 그들이 저의 동료 작가가 되리라 믿습니다.

6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집필실에서 마음껏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작가다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상주작가
유영진



경기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2011*년 개관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031–8015–8200
https://www.hscitylib.or.kr/dtli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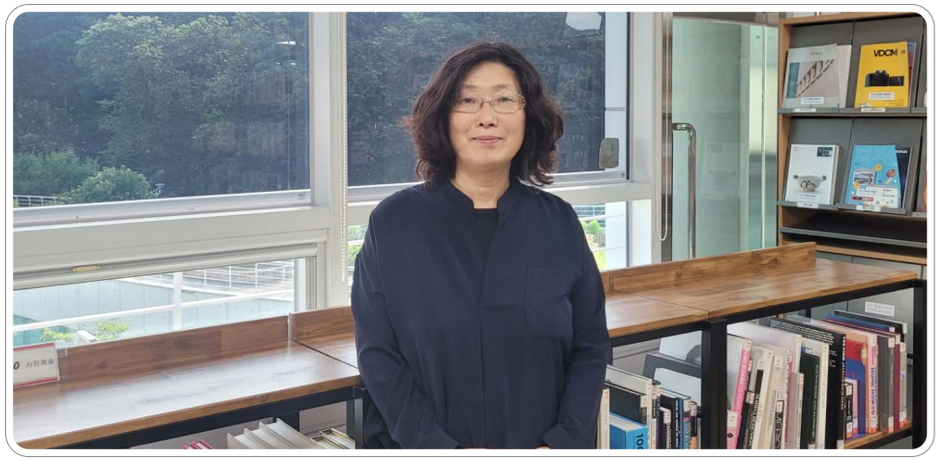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은 지식정보센터이자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독서문화교실, 아동 및 성인 대상 독서회와 예술특화프로그램, 체험형 동화구연 등을 기획하여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별 맞춤형 독서 활동 지원, 생활 밀착 독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은 제*54*회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계속해서 지역민들의 평생학습 배움터이자 허브로 운영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권문희

그림책 | *1998*년 등단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그 후로 어린이책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해오고 있다. 우리 고유의 정서를 풀어내는 작업에 관심이 많다. 쓰고 그린 책으로 『줄줄이 꿴 호랑이』, 『깜빡깜빡 도깨비』, 『장끼전』 등이 있고 그린 책으로는 『까치와 호랑이와 토끼』, 『백구』, 『동에 번쩍』, 『신선바위 똥바위』, 『국시꼬랭이』, 등이 있다.









❶ **깜박깜박 도깨비** 사계절, *2014*
❷ **줄줄이 꿴 호랑이** 사계절, *2005*
❸ **백구** 사계절, *2002*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처음, 그림책

그림책 창작 이론 및 실습과 합평을 진행하고 수강생의 그림책 작품집을 발간하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4월 ~ 7월
- 도서관 이용자 9명 참여

김선남 작가와의 만남

『다 같은 나무인 줄 알았어』 저자 김선남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9월
- 도서관 이용자 15명 참여

토닥토닥 그림책

그림책을 매개로 상호작용을 나누는 그림책 테라피 수업

- 2022년 4월 ~ 8월
- 도서관 이용자(성인) 10명 참여

어른들의 그림일기

상주작가와 함께 그림일기를 제작하며 이야기 나누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9월
- 도서관 이용자(성인) 대상

맛있는 그림책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월별 그림책 읽기 특강 프로그램

- 2022년 4월 ~ 8월
- 도서관 이용자(아동) 15명 참여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처음, 그림책> 프로그램을 마치며

<처음, 그림책>은 상주 작가 프로그램 중 하나로 4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14회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만든 이야기에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엮어낸 창작 그림책 모음집입니다. 10분의 참가자들께서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 씨앗을 처음으로 밖으로 꺼내어 키우고 다듬고, 한 장면 한 장면을 그림으로 이어내어 처음으로 그림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을 통해 ISBN 등록 후 정식 출판되는 창작 그림책 모음집을 발간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저 역시 그동안 어린이책에 그림 그리는 일을 해왔지만 다른 분들의 창작을 도와드리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처음이라 우리 모두 조금 서툴었지만, 처음이어서 또 이렇게나 다 같이 열심이고 다 같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숨겨 놓으셨던 능력을 펼치실 때 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느라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셨어요. 피곤하지만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라고 하셨지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혼자였다면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14번의 시간은 대부분 한 주 동안 해 오신 작업을 꺼내어 놓고 다 함께 의견을 나누기에도 부족했습니다. 내 작업에 고민되는 점을 끄집어내면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의 작업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어요. 이렇게 서로 북돋아 주며 한마음으로 달려왔지만 책에 담긴 이야기와 그림은 너무나 각각의 개성이 뚜렷합니다. 소재도 주제도,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도 다 다르고 색감도 스타일도 아주 다릅니다. 아주 진하기도 하고 아주 흐려서 보일 듯 말 듯 하기도 합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일은 안으로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 이렇게나 다른가 봅니다.

<처음, 그림책>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첫걸음을 떼셨으니 여러분 가시는 길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런 기회와 장을 마련해주신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상주작가
권문희



경기

화성시 송산도서관

*2012*년 개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일공원로 *87*
031–355–5798
https://www.hscitylib.or.kr/sslib/

송산도서관은 지역민이 더욱 행복하고 창의적인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책들, 알찬 평생교육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민들이 삶의 가치를 풍성하게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송산도서관은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프로그램,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세대별 맞춤 활동을 도모합니다. 지역민을 위한 다채로운 정보서비스 및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며 굳건히 지역을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화성시 송산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이도훈

시 *2015*년 등단

*2015*년 월간『시와표현』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하였다. *2018*년에는 시 부문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창작기금을 수혜받았고, *2020*년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어 활동 중이다. 온새미로의 동인이자, <도서출판 도훈>의 대표이며 계간『시마』, 반년간지『한솔문학』을 발행하고 있다.





❶ **봄날은 십 분 늦은 무늬를 갖고 있어** 도훈, *2022*
❷ **륀트겐 법칙,『열린시학』수록** 고요아침, *2021*
❸ **맑은 날을 매다** 도서출판 도훈, *2018*

화성시 송산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현대 시의 이해와 창작(청소년반) & 현대 시 창작반(성인반)

현대 시 작품을 소개하고 작법을 배우며 직접 시를 창작하는 글짓기 프로그램

- 2022년 5월 21일(토) ~ 9월 17일(토) (청소년)
- 2022년 6월 9일(목) ~ 9월 22일(목) (성인)

화성 문인 보고서2: 시인 윤석산 집필

상주작가 활동을 기록하는 문집 집필

- 2022년 4월 1일(금) ~ 9월 30일(금)
- 지역주민 대상

시대 공감: 시인과의 대화, 공감

시인과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8월 18일(목) / 8월 25일(목)
- 각 1회, 지역민 대상
- 참여명사: 유수진, 나태주 시인

화성시 송산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송산에 부치는 편지

안녕하세요. 화성 송산도서관 상주작가 이도훈 시인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 송산도서관에서 상주작가로 있습니다. 송산은 나와는 연고가 없는 곳이지만 송산에 계신 정대구 시인을 만나면서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송산과 인연을 맺은지도 어언 10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송산은 경기도에서 서해쪽으로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차로 15분이면 서해나 제부도에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도시에 있는 상주작가 선생님들은 내가 시골에 있으니 너무 부러워합니다.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프로그램을 하기도 좋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일이 시작되는 농번기라든가 가을걷이가 한창일 때는 사람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시겠지요. 그러니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농촌 사람은 1년에 반은 빠질 수밖에 없더군요. 그리고 외곽이다 보니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이요. 학생들이 없어서 준비했던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못 했습니다. 담당 사서 선생님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이번에는 송산도서관에서 시창작 교실을 열었습니다. 어른들은 7명 정도가 모였고요 학생들은 3명이 모였는데 아주 금쪽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하고의 수업은 언제나 재미있습니다. 외곽지역의 상주 작가 프로그램은 2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었어요. 나름대로 송산 주민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유명한 두 분의 시인을 모시고 "시 대공감"이라는 2회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인은 2022년 제주4.3평화문학상 시부분 당선자인 유수진 시인이고 두 번째 시인은 누구나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이었습니다. 특히 나태주 선생님은 너무 바쁘셔서 시간을 낼 수 없었는데 정대구 시인과 남양에 사시는 윤석산 시인의 도움으로 흔쾌히 승낙을 받았습니다. 나는 송산 주민들도 그렇지만 시창작반 아이들에게 나태주 선생님과 유수진 시인을 꼭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책으로 열 번 만나는 것보다 실제로 한 번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도움으로 송산에서 두 번의 상주 작가 프로그램을 잘 마쳤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만났고 문학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새로움을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염원하던 "화성문인보고서 1 정대구 시인"과 "화성문인보고서 2 윤석산 시인"이 두 권의 책으로 잘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화성시 송산도서관 상주작가
이도훈



경남

동동숲작은도서관

*2018*년 개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연지*4*길 *479–86*
010–3876–1849
http://www.ddfore.com/main

‘동시·동화 나무의 숲’을 줄여 ‘동동숲’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동동숲작은도서관은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켜주는 자연친화적 도서관입니다. 동동숲작은도서관은 아동친화인 구조로, 아동문학가 *100*인 서가전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다양한 어린이 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열람실은 때에 따라 강연실이 되거나 행사 후 식사 나눔과 만남을 갖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동동숲작은도서관은 아이들에게는 책을 통한 열린 사고를, 아동문학가에게는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지역의 아늑한 요람입니다.

동동숲작은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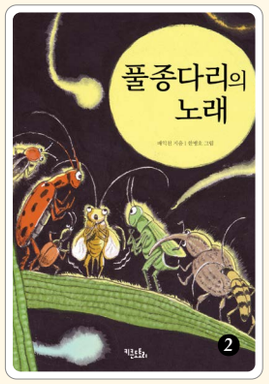
배익천

아동 동화 *1974*년 등단

*1974*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아동문학상, 이주홍아동문학상, 세종아동문학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저서로 『꽃씨를 먹은 꽃게』, 『냉이꽃의 추억』, 『별을 키우는 아이』, 『내가 만난 꼬깨미』 등이 있다. 현재 계간 ‘열린아동문학’편집주간으로 활동중이다.









❶ **털머위꽃** 봄봄출판사, *2023*
❷ **풀종다리의 노래** 키큰도토리, *2023*
❸ **빗물 공룡을 깨우다** 어린른이, *2012*

동동숲작은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상주작가와의 만남

도서관, 지역 초등학교 등에서 상주작가와 어린이들이 함께 만나는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4*월 ~ *9*월
- 총 *13*회, 초등학생 및 성인 대상

문학큐레이터 활동

문학 계간지 편집주간활동, 문학상, 문예지 주관 및 심사 등 다양한 대외활동 진행

- *2022*년 *4*월 ~ *9*월
- 일반인, 문학단체 대상

외부작가 특강

동동숲작은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여러 분야의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4*월 ~ *9*월
- 총 *8*회, 지역주민 대상
- 참여명사: 박형섭, 이승규, 김여나, 우성희, 윤미경, 김성범, 장세련, 김이삭 작가

동동숲작은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작품을 줍는 시간

경남 고성과 인연을 맺은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바닷가와 멀지 않은 숲속의 조그만 집을 판다는 기사 한 줄 때문이었죠. 무엇에 홀린 듯 단숨에 고성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숲속으로 난 길은 좁고 험했지만 들어가며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길옆엔 조그만 저수지가 있었고 길을 지날 때마다 각기 다른 꽃들이 군락을 이루고 반겨주었습니다. 예쁜 돌담으로 둘러쌓인 나지막한 언덕의 집에서는 마을 전경이 보이고 뒷산에 올라가면 남해 바다의 일출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가 찾던 곳이었습니다.

이 집을 '작은글마을'이라 이름짓고 혼자만의 창작의 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고성'하면 공룡입니다. 고성군은 공룡 엑스포를 만들어 고성을 알리기 시작했고 저는 홍보대사를 맡아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책이 <빗물, 공룡을 깨우다>입니다. 소가야 왕국이 자리 잡은 고성은 큰 강이 없었음에도 농사가 잘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저수지에 있습니다. '둠벙'이라 부르는 작은 연못이 지금의 저수지 역할을 톡톡히 했죠. 그렇게 고성에 널린 이야기거리를 하나씩 작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동화리라는 어촌 마을의 이야기를 쓰면서 주민들과 가까워질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서관 상주작가 사업은 이런 고민을 한방에 날려준 단비와 같은 사업입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을 만나고 이는 작품의 소재를 수집하고 독자의 취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래에는 숲을 가꾸며 일어난 일들을 글감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노란 털머위를 심는 종종 털머위 잎자루를 고라니가 다 먹어 버렸습니다. 고라니가 다니는 길목, 털머위를 심은 주변 곳곳에 고라니가 제일 싫어하는 냄새를 뿌리고 소리가 나는 것을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라니를 미워하다가 누가 내 밥을 자꾸 빼앗아 가고 못 먹게 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미운 건 고라니가 아니었어요. 이 아름다운 숲에서 고라니와 함께 같이 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털머위꽃>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작가들이 다양한 경험과 소재를 접하며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동숲작은도서관 상주작가
배익천



경남

장유도서관

*2002*년 개관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176*번길 *7*
055–330–7451
http://lib.gimhae.go.kr/jangyu.web

장유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갈증을 해소해 주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도서관과 더불어 *333*석의 대규모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어, 때로는 주민들에게 '장유문화센터'로 불리기도 합니다. 장유도서관은 안락하고 풍성한 시설과 더불어 김해시 시립도서관 특성화 사업 중 하나인 '마음 치유' 주제를 통해 '치유하는 도서관' 콘셉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보듬는 세심한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통해 다채로운 삶의 결실을 맺게 돕는 도서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유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송미선

시 *2011*년 등단

김해 출생.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시를 공부하고 '껍질이 기록되는 수거함'으로 *2011*년 *[*시와 사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김해문인협회' 회원이며 김해문협우수작품집상을 수상했다. 장유도서관 상주작가로 근무하며 쓴 시편으로 *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발표지원에 선정되었다.





❶ **<캐스터네츠>** *2022*년 겨울호
❷ **<눈 내리는 게르>** *2022*년 여름호
❸ **<샌드백>** *2022*년 문예바다 봄호

장유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마음에 밑줄을 긋는 詩요일

매주 2인의 시인을 선정하여 시 낭송과 감상을 나누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7*월 ~ *9*월
- 총 *10*회, 성인 *10*명 참여

일상이 글이다

다문화도서관 독서동아리와 함께 일상을 주제로 글을 써보는 프로그램

- *2022*년 *7*월 ~ *9*월
- 총 *6*회, 독서동아리 회원 *10*명 참여

나를 위한 나의 이야기

'결혼', '출산', '육아' 등 기혼여성의 삶을 소재로 글을 쓰고 결과 작품집 제작

- *2022*년 *5*월 ~ *7*월
- 총 *10*회, 기혼여성 *10*명 참여

시인의 방: 詩민상담소

상주작가와 함께 시인이 되는 법, 시 쓰기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 *2022*년 *5*월 ~ *9*월
- 총 *6*개월 운영, 지역주민 대상

줄탁동시

상주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주제별 동시쓰기 프로그램'

- *2022*년 *7*월 ~ *8*월
- 총 *8*회, 초등 *3*~*4*학년 *10*명 참여

읽는 약 마음 처방전

상주작가가 도서와 손편지로 직접 전하는 책 처방 프로그램

- *2022*년 *9*월
- 총 *1*회, 성인 *7*명 참여

내 마음에 시 한 구절

오늘의 시를 낭송하고 해설을 나누며 짧은 감상을 작성해보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4*월
- 총 *3*회, 시각장애인 *10*명 참여

계절문학

상주작가가 계절에 맞는 문학작품을 선정하여 인스타그램에 추천글을 게시하는 큐레이션 프로젝트

- *2022*년 *5*월 ~ *9*월
- 총 *5*회, 지역주민 대상

장유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시민들과 함께한 도서관 상주 작가

*2022*년 상주작가 첫 프로그램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나를 위한 나의 이야기'였다. 첫 수업 시간이라서 참가자들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난 뒤, 나를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글을 썼다. 참가자가 쓴 글을 읽는 동안 다른 참가자들은 귀 기울이며 시간여행을 함께 했다. 기억 속에 간직된 이야기가 한 편의 작품이 되었고, 쓴 글을 읽으며 감정에 북받쳐 훌쩍이는 어깨를 도닥여 주었다. 그 다음 주 수업에 한 참가자가 가져온 각티슈는 *10*회 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누군가의 눈물을 훔쳐 주었다. 소재를 다르게 하여 매주 한 편씩 쓴 참가자들의 작품은 <나를 위한 나의 이야기>라는 책으로 멋지게 묶어졌다. '마음에 밑줄 긋는 詩요일'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 읽는 프로그램이었다. 매주 두 세 명 기성시인의 작품을 읽고 느낌을 나누면서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해 보았다. *10*회였던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 도중에 참가자 두 분이 백일장에서 큰 상을 받는 즐거움도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과 동시를 읽고 느낀 점을 나눈 뒤, 직접 동시를 쓰는 프로그램인 '줄탁동시'는 신나는 수업이었다.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숨겨진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미래의 작가들을 미리 만날 수 있었던 줄탁동시 수업 때 쓴 아이들 작품도 한 권의 책으로 묶어졌다. '읽는 약, 마음처방전'도 기억에 남는 상주작가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에게 사연을 받은 뒤, 처방전처럼 작가가 책을 처방하면 도서관에서 처방전대로 책을 우송해주었다. 책을 받았던 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치유되었기를 바란다.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글로벗작은도서관과 연계하여 그들의 애환을 글로 담아보았다. 김해에는 다문화가정이 비교적 많다. 다문화가정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작게나마 힘이 되어주었다. 또한 매월 한 권씩 상주작가가 추천하는 책을 도서관 게시판에 올려 시민들의 독서를 좀 더 폭넓게 하였다. *22*년 *4*월부터 *9*월까지 육 개월 동안 김해시립 장유도서관에서 상주작가로 근무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김해시민들이 문학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이 쓴 작품은 <나를 위한 나의 이야기>와 <줄탁동시>라는 예쁜 책으로 탄생했다. 소중한 책은 참가자들 책장과 여러 도서관에서 책 읽기를 좋아하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상주작가로 근무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작품(시)도 많이 썼다. 창작에 전념할 수 있게끔 상주작가 집필실을 마련해준 장유도서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참가자들이 쓴 작품을 예쁜 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윤인영 담당 사서 선생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장유도서관 상주작가
송미선



경북

포항시립 포은중앙도서관

*2015*년 개관
포항시 북구 삼호로 *31*(덕수동)
054–270–4600
https://phlib.pohang.go.kr/phlib/index.do

포은중앙도서관은 포항시립도서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자료실을 비롯한 체험실, 스토리텔링룸, 강좌실, 다목적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통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실은 만화, 어문학, 향토, 디지털 자료실 등 특성화 자료실로 구비했으며 자료 보존 기능을 극대화하여 최대 *20*만 권의 저서 보관이 가능한 보존서고를 구축하였습니다. 포은중앙도서관은 사람, 문화, 도시를 연결하며 시민을 품는 지역의 둥지이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센터입니다.

포항시립 포은중앙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김살로메

소설 *2004*년 등단

*2004*년 영남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폭설 이 당선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바닷가 소도시에서 소설과 에세이를 쓴다. *2004*년 영남일보 문학상, *2017*년 소설집 『라요하네의 우산』이 세종도서 문학 나눔에 선정되었고, *2023*년 천강 문학상 소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라요하네의 우산』, 『미스 마플이 울던 새벽』, 『엄마의 뜰』 등이 있다.





❶ **엄마의 뜰** 문학의문학, *2020*
❷ **미스 마플이 울던 새벽** 아시아, *2018*
❸ **라요하네의 우산** 문학의문학, *2016*

포항시립 포은중앙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찰칵, 기승전결

직접 촬영한 스마트폰 사진에 상상력과 감수성을 담은 글을 더해 결과물을 전시하는 글 창작 프로그램

- *2022년 5월 10일(화) ~ 7월 26일(화)*
- 지역주민 대상

생활 속 독서

생활과 밀접한 독서를 진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독후 프로그램

- *2022년 5월 12일(목) ~ 6월 30일(목)*
- 지역주민 대상

화요일엔 쉬운 글쓰기

쉽고 간결하며 소통하는 내용의 글을 직접 작성하는 글쓰기 기초 강좌

- *2022년 8월 9일(화) ~ 9월 27일(화)*
- 지역주민 대상

고전 톺는 시간

혼자 읽기 어려운 고전 서적을 상주작가와 함께 찬찬히 읽으며 가까워지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5월 4일(수) ~ 8월 17일(수)*
- 지역주민 대상

낭송이 나리는 금요일

상주작가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직접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하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6월 10일(금) ~ 7월 29일(금)*
- 지역주민 대상

정보라 작가와의 만남

작가를 초청하여 작품과 인생관을 나누는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 *2022년 5월 14일(토)*
- 지역주민 대상
- 참여명사: 정보라 작가

청소년 토론마당

청소년 도서를 읽고 자유롭게 내용을 토론하는 독서 프로그램

- *2022년 5월 14일(토) ~ 9월 24일(토)*
- 지역주민 대상

포항시립 포은중앙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향유자와 작가의 연대감을 통한 성장

여섯 달이 금세 지나갔다.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안에서 힐링할 수 있고, 작은 기쁨과 자긍심을 지닐 수 있다면 상주작가로서 바랄 게 없을 것이었다. 우선 독서 프로그램부터 시작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가벼운 독서부터 숙제로 접하지 않으면 어려운 고전 읽기까지 배치했다.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만났다. 그 나이 때에 접했으면 하는 필독서를 소개하고 자유토론의 장도 마련했다. 학과 공부로 바쁜 청소년들을 도서관으로 안내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특화 프로그램으로 '디카시'와 '낭송'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찰칵, 기승전결>이란 이름의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손수 찍은 사진과 직접 쓴 글로 작은 우주를 낳았다. 결과물 앞에서 합평하고 의견을 나누는 동안 힐링의 차원을 넘어 예술적 성취감도 맛보았다. <낭송이 나리는 금요일>에서는 상주작가의 작품을 이해하고, 관련 책을 낭독 녹음하는 시간을 가졌다. 낭독 세계의 매혹을 경험했다는 성취감이 보람으로 남았다. 도서관 홍보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과 낭독의 맛을 알릴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글쓰기 강좌인 <화요일엔 쉬운 글쓰기>에도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결석생이 거의 없었다. 그만큼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쓰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뜻이었다. 글로써 자신의 내면을 조금씩 덜어내거나 채우는 과정이 사람살이에는 꼭 필요할 것이었다. 그 외 화제 작가를 초대해 북토크를 열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다. 소통에 목마른 독자들의 열기와 작가의 열정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상주 작가 활동의 또 다른 기쁨이었다.

소박한 서사가 녹아드는 공간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연대할 수 있어서 기뻤다. 향유자와 상주작가의 이런 소박한 유대감이 서로를 성장케 하고, 나아가 우리 문화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위안해 본다. 끝으로 개인적 소회도 숨기지 않으련다. 상주작가 활동의 가장 큰 매력은 독립적인 창작 공간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글 쓰는 자로서 이 사치를 한껏 누렸다. 아침마다 찻물 끓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꽂아 놓은 백합 향이 그윽했던 이 평화로운 감옥을 오래 그리워할 것이다. 어려움 없이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포항시립 포은 중앙도서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성실히 프로그램을 마치신 모든 참가자님들께도 내 다정과 감사를 드린다.

포항시립 포은중앙도서관 상주작가
김살로메



광주

신일작은도서관

*2020*년 개관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309*번길 *4*
062–372–4847
https://cafe.daum.net/sinil2020

신일작은도서관은 *2020*년 기존 ‘이성자 문예창작연구소’를 도서관으로 등록하여 탄생한 도서관입니다. ‘이성자 문예창작연구소’는 남도의 대표 동화 작가인 이성자 작가를 주축으로 하여 함께 문학을 배우고 수련하는 문인들의 모임입니다. 아동문학 관련 프로그램이 특화되어 있으며 아이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고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운영합니다. 신일작은도서관은 동화작가들과 예비작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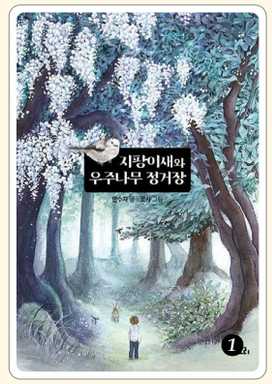
신일작은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안수자

동화 *2011*년 등단

전남 함평 출생. *2011*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귓속에 사는 무당거미>가 당선되며 집필을 시작했다. *2013*년 <뿌사리>로 한국안데르센문학상을, *2015*년 <우주 나무 정거장>으로 *MBC*창작동화대상, *2015*년 송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단자요!』, 『긴급구조작전, 허들링』 등이 있다.









❶ **지팡이새와 우주나무 정거장** 키큰도토리(어진교육), *2021*
❷ **한락궁이야, 네 집을 지어라** 모해출판사, *2020*
❸ **모해를 찾아라** 중앙출판사(중앙미디어), *2017*

신일작은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똑똑똑! 작가가 뭐예요?(대면상담)

상주작가가 작가를 꿈꾸는 예비·신인작가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상담 프로그램

- 2022년 4월 ~ 9월
- 예비·신인작가 대상

그림책 출판기념회·북콘서트

'도전, 그림책작가' 프로그램 수강생의 그림책 출간기념 북콘서트

- 2022년 9월 19일(월)
- 총 1회, 지역주민 대상

도전, 그림책 작가!

그림책 작가 지망생과 일반인에게 전문적 교육과 원고 쓰기, 원화 그리기 등을 알려주는 활동 프로그램 (종료 후 그림책 출간)

- 2022년 5월 ~ 8월
- 총 16회, 그림책 작가 지망생 대상

영화가 있는 목요일

자유롭게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에 대한 느낌을 나누는 프로그램

- 2022년 9월 22일(목) / 영화 '돈룩업'
- 총 1회, 지역주민 대상

나도, 동화작가

동화작가 지망생과 일반인에게 작가가 될 수 있는 전문 교육과 작품 피드백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 2022년 5월 ~ 8월
- 총 16회, 동화작가 지망생 대상

신일작은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내 인생을 바꾼 도서관에서 같은 꿈을 꾸는 예비작가들을 응원하며

작가가 될 수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동화책에 홀딱 반해 동화작가를 동경하게 되었다.

어떻게, 뭘 써야 할지도 모르면서 막연히 글이 쓰고 싶었다. 그런 나를 어느 지인이 시립도서관 수필강좌에 데려갔다. 이렇게 도서관 글쓰기 강좌에서 첫 글쓰기가 시작되었다. '나이 마흔이 되면 나만을 위한 책 한 권은 만들어야지.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나눠주며 내 이야기를 해야지.'라는 여고 시절의 낭만적인 꿈을 떠올린 것도 수필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 후로 2년 동안 산수도서관에서 수필을 썼다. 그토록 동경하던 동화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바로 신일작은도서관의 전신인 이성자문예창작연구소에 들어오면서부터다. 나는 이곳에서 글을 쓰며, 신춘문예와 여러 문학상에 당선하면서 동화작가가 되었다. 이 도서관은 내 인생을 바꾼 곳이다. 그래서 신일작은도서관에서 상주작가로 활동한 시간은 내게 그 무엇보다 의미 있고 보람있는 일이었다.

우리 도서관은 어린이 책 작가를 꿈꾸는 예비작가들의 보금자리답게 상주작가 프로그램도 그에 맞춰 <그림책 만들기> <단편 동화 쓰기>를 장기 강좌로 편성하고, 매주 2시간씩 진행했는데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은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이 선정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 19로 대면이 어려울 때는 비대면 강의로 진행했는데 참여율이 높아서 그 결과 2022년에도 그림책 9권이 나왔으며 단편 동화반 수강생 대부분이 신춘문예에 작품을 응모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도서관에서 3년 연속 진행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상담프로그램 <똑똑똑! 작가가 뭐예요?>다. 이 프로그램은 예비작가와 신인 작가들을 위한 시간으로, 반응이 매우 좋았다. 이들의 질문은 몇 년 전에 내가 했던 질문이고, 걱정이고, 설렘이었기에 상담을 하는 내게도 상담을 받는 내담자에게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예비작가들이 훌륭한 작가로 성장하는 길목에 오늘 내가 함께 있었음이 더없는 영광으로 남을 것 같다.

신일작은도서관이 지금처럼 어린이작가와 예비작가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로 영원하기를 기원한다.

신일작은도서관 상주작가
안수자



대구

달성군립도서관

*2014*년 개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174*길 *10–13*
053–584–0011
http://www.dalseonglib.kr/

달성군립도서관은 책을 통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 강좌를 운영하여 *26*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욕구 충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은 지역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지역 향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사서들이 협력,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도서관 운영 방향을 깊이 제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은 '문화와 지식, 정보가 흐르는 미래형 창조 과학도시, 선진 달성'의 대표 도서관입니다.

달성군립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손인선

동시 | 2005년 등단

경북 포항 출생. 2005년 『아동문학평론』에 동시가, 2005년 『월간문학』에 동화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저서는 『힘센 엄마』, 『민달팽이 편지』 외 공저 동시집인 『구름버스 타기』가 있다.





❶ **민달팽이 편지** 학이사(이상사), *2016*
❷ **맹자 흉내는 힘들어요** 학이사어린이, *2018*
❸ **힘센엄마** 푸른사상, *2013*

달성군립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독서동아리 협조

상주작가가 시 창작을 진행하는 독서동아리에 관련 자문과 협조를 지원

- 2022년 5월 1일(일) ~ 9월 30일(금)
- 독서동아리 회원 대상

마음톡톡! 동시톡톡!

초등생 대상 참여형 동시 창작수업 (결과물 문집 발표)

- 2022년 7월 23일(토) ~ 8월 27일(토)
- 초등생 3~6학년 대상

당신도 시인

즐거운 시 창작을 위해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진행한 문학 강연

- 2022년 9월 24일(토)
- 총 1회, 지역주민 누구나

아물따나 써 보는 동시

자신만의 개성으로 자유롭게 동시를 써보는 성인 대상 동시 창작 수업

- 2022년 8월 4일(목) ~ 8월 25일(목)
- 성인 대상

달성군립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문화도시 달성은 뭐가 달라도 달라

전국에서 문화도시로 더 잘 알려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립도서관에서 2022년 상주 작가로 5개월간 근무했다. 다른 작가들보다 한 달 늦게 시작해 5개월만에 끝났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가져본 나만의 작업공간에서 읽고, 쓰고, 지역의 아이들과 지역의 성인들과 만나 교감한 시간은 스스로 성장시킨 좋은 기회가 되었다.

'마음 톡톡! 동시 톡톡!'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처음 만난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마치 시 쓰기에 준비된 어린이 마냥 매시간 두세 편씩 뚝딱 쓰곤 해서 나를 놀라게 했다. 그렇게 수업한 결과물로 『간식 먹을 땐 1등이에요』를 출간하였다. 70편의 어린이시를 묶었는데 싣지 못한 글이 더 많아 아쉬움이 컸다. 비록 비매품이지만 아이들에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책이 앞으로의 장래를 결정할 커다란 사건이기도 하기에 시를 쓰고 거기에 어울리는 시화를 아이들 손으로 직접 그리게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들의 시가 실릴 책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손꼽아 기다렸고 기다리는 중에 몇몇은 자신의 장래희망을 작가로 정정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출판사에 편집 일을 한 경험이 있던 나는 아이들의 시와 그림을 직접 편집하기로 했다. 다른 곳에 맡길 경우 날짜가 맞추는 일과 그때그때 수정하는 게 힘들어 직접하기로 했는데 그 또한 잘한 일이었다. 아이들의 시를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을 더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이 출간된 뒤에 한 학부모는 아이가 동시 쓰기에 더 열심이라는 말을 전해주었는데 실제로 얼마 뒤에 그 아이의 이름이 어느 백일장 입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기뻐서 축하 전화를 해주었다.

성인 프로그램 "아물따나 써 보는 동시"는 친근한 사투리 때문에 신청한 분들이 많았고 수업 역시도 지루하지 않게 사투리로 시 쓰기, 디카시 쓰기 등, 그날, 그날 소재를 바꿔 진행했다. 프로그램을 마치는 날 수강생 한 분이 슬며시 다가오더니 다음 강의는 어디서 할 거냐고 물으면서 내 동시집을 구입해 사인까지 부탁하는 거였다. 자신의 연락처를 주면서 강의 장소가 정해지면 꼭 연락을 달라는 말에 속으로 "야호!"를 외쳤다. 작가와 수강생 간에 신뢰가 생기는 순간이었다.

달성군립도서관 상주작가
손인선



대구

대구 동구 안심도서관

*2012*년 개관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변로 *360*
053–980–2600
https://library.daegu.go.kr/donggu/

대구 동구 안심도서관은 주민들의 행복을 고민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금호강변에 위치한 도서관의 특성을 담아 금호강을 주제로 다양한 특화장서를 개발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의 문화힐링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도서 대출량이 상위에 랭크된 도서관 중 하나로, 이는 독서회 등을 통해 전문사서와 지역민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안심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지역민의 일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갈 것이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 안심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변희수

시 수필 *2011*년 등단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2011*년 *[*영남일보*]* 신춘문예, *201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아무것도 아닌, 모든』, 『거기서부터 사랑을 시작하겠습니다』,『시민의 기분』이 발간되었다. 천강문학상, 제주*4·3*평화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2018,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창작지원금 수혜받았다.





❶ **시민의 기분** 시인동네, *2022*
❷ **거기서부터 사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인동네, *2020*
❸ **아무 것도 아닌, 모든** 서정시학, *2018*

대구 동구 안심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문학 충전 프로젝트 ① – “문학 스테이지 – 문학, 문지방을 넘다”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작가와 함께 편지로 소통하는 문학 고충상담 프로그램 (‘문학 우체통’ 설치 후 상시운영)

- *2022*년 *6*월 *1*일(수) ~ *9*월 *30*일(토)
- 지역주민 대상

문학 충전 프로젝트③ – “내 마음의 빈칸 – 읽고, 쓰고, 채우다”

작가와 글을 읽고 쓰는 창작의 시간을 갖고 그 결과물을 ‘시화전’으로 발표하는 프로그램

- *2022*년 *5*월 *4*일(수) ~ *7*월 *27*일(수)
- 총 *12*회, 지역주민(성인) 대상

문학 충전 프로젝트④ – “동시 브런치 – 동시로 힐링하다”

성인독자와 작가가 함께 ‘동시’를 감상하고 창작하는 힐링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8*월 *2*일(화) ~ *8*월 *23*일(화)
- 총 *4*회, 지역주민(성인) 대상

“금호강, 시로 물들다” 강변 시화전

참여자들의 디카詩(디지털 이미지와 문자 시를 결합하는 창작기법) 시화 제작 후 금호 강변에 전시하여 관람하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9*월 *24*일(토) ~ *10*월 *2*일(일)
- 지역주민 대상

변희수 시인 기증도서 콜렉션

상주작가의 저서를 책 나눔 장터에 기증하여 지역민에게 도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2022*년 *9*월 *24*일(토)
- 지역주민 *50*명에게 나눔

문학 충전 프로젝트② “작가컬렉션 – 작가의 서재에서 책을 빌리다”

상주작가 추천 시집 전시, 다양한 주제로 창작한 상주작가의 기고글 및 관련 도서 전시

- *2022*년 *4*월, *7*월, *8*월
- 총 *3*회, 지역주민 대상

대구 동구 안심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반 주민, 반 작가입니다

가끔 아니, 종종 작가실 문을 열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커피가 필요해서 아이스크림이 필요해서. 한 때 이곳은 도서관 옆에 붙어있는 자그만 매점이자 휴게실이었다. ‘쉼표’라는 간판 아래 작가실이라는 포스터가 안내로 붙어있지만 일단 실망하고 돌아선다. 머슥함과 미안함에 향기롭고 달콤한 글도 팔아요, 말해줄까. 휴식 그런 것도 가능하구요, 혼잣말을 한다.

금호강이 만든 아름다운 늪을 배경으로 이곳은 운동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다. 늪을 두고 뻗은 길을 걷거나 달리다 문득, 도서관이 나오고 발길이 멈추었을 때 (추측이지만) 정말로 이 도서관의 이름처럼 사람들은 잠깐 안심하지 않았을까. 나의 안심에 의심하지 않을 이유는 많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곳에서 상주작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시행했던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문화적 갈망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열망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은퇴자들, 육아를 직접 하는 맘들, 그 외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 그들은 읽기만 하던 독자의 위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했다. 지난해 실행한 『문학충전소』는 이런 크리에이터로서의 열망에 징검다리를 놓아줄 수 있었다. 창작 수업을 하면서 디카시를 쓰고 강변전시회를 열었다.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고, 작가사업이 끝난 후에도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the pome* 이라는 독서클럽을 결성했다. 작가우체통 에서는 어르신의 수필이,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하는 젊은 엄마의 글쓰기 고민이, 문학에 관한 다양한 상담들이 엽서를 통해 들어오기도 했다.

‘여기 뭐하는 곳이예요.’ 아직도 이런 말을 듣고 있지만 다시, 올 해. 나는 프로젝트 이름을 「문학 할, 결심」으로 정했다. 특히 할이라는 글자 포인트를 눈에 띄게 키우고 방점을 찍어두었다. 한다는 움직임이 돋보이도록. 가끔 시간이 어중간한 수강자들이 차나 도시락을 들고 문을 두드릴 때도 있다. 「詩詩한 톡」, 「작가통신」, 「작가컬렉션」, 「문턱」 등을 메뉴 삼아 나는 휴게실의 주인이었다가 작가였다가 반 주민 반 작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노트북과 책이 있는 상주작가실은 가장 근거리에서 엿볼 수 있는 쓰기의 장소가 아닐까.

대구 동구 안심도서관 상주작가
변희수



대구

구수산도서관

*2009*년 개관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 *21*
053–320–5150
https://library.daegu.go.kr/bukgs

대구 북구 구수산 기슭에 위치한 구수산도서관은 읍내동 지역민의 문화창고로 자리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해 최신식 미디어 창작 기기, *VR*제작 무료강좌 등을 구비하였고 지역서점과 연계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원하는 도서를 집 앞 영화관, 마트 등에서 수령할 수 있는 '내 집 앞 도서관'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수산도서관은 지역 내 지식 정보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생활 속 활력넘치는 문화공간으로 운영됩니다.

구수산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이우상

소설 | *1999*년 등단

경북 의성 출생. 동국대 국문과 졸업. *199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 <울음산>이 당선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 소설집 『비어있는 날들의 행복*(1, 2*권*)*』, 『바이칼 여신』, 『소설가 구보 씨의 사은파티』, 역사 기행 『조선왕릉, 잠들지 못하는 역사』, 『앙코르와트의 모든 것』 등을 집필했다.





❶ **소설가 구보 씨의 사은파티** 도화, *2022*
❷ **바이칼 여신** 도화, *2016*
❸ **조선왕릉, 잠들지 못하는 역사** 다할미디어, *2014*

구수산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퇴근 후 작가의 탄생 – 당신도 소설을 쓸 수 있다

상주작가가 진행하는 소설 작가 양성 프로그램 (야간 수업)

- 2022년 6월 23일(목) ~ 8월 25일(목)
- 총 10회, 지역주민 20명 참여

상주작가 특별기획 강좌 – 소설가가 들려주는 조선왕릉 이야기

상주작가가 진행하는 조선왕릉과 우리역사 이야기를 다루는 특별기획 강연

- 2022년 9월 16일(금) ~ 9월 23일(금)
- 총 2회, 지역주민 50명 참여

상주작가 소설창작 동아리 – 신춘문예 준비반

신춘문예 응모를 목표로 상주작가와 소설 합평을 진행하는 창작 프로그램

- 2022년 7월 2일(토) ~ 9월 3일(토)
- 총 10회, 지역주민 대상

작가의 우체통 – 소설가와 나누는 편지

상주작가와 글쓰기 고민과 생활 이야기를 편지로 나누는 문학 편지 나눔 프로그램

- 2022년 9월 5일(월) ~ 9월 26일(월)
- 지역주민 대상

구수산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소설을 쓰고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강좌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수강생 모집이다. 강좌의 제목, 강좌 요일, 시간 등도 수강생 모집을 염두에 두고 정한다. 도서관 담당자와 머리를 맞대고 도서관 이용자의 성향, 연령, 성비 등도 연구했다.

<소설 – 신춘문예 준비반>. 강좌명을 이렇게 정했다. 겁도 없이. 시작하자. 다양한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수강생 모집. 신청자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예상보다 빨리. 일단 안심. 며칠 만에 수강생 신청 완료. 예비 접수자까지 완료. 신청자의 성향, 실력 편차, 기대치가 어떨까. 궁금하고 걱정도 됨. 대략 40대~50대. 문청의 꿈을 버리지 못한 애잔한 영혼들이라고 판단함. 함께, 열씨미 가보자. 개강, 강좌 진행, 이론 강의, 작품 합평 이어짐. 모두 치열하게 참여함. 묻혀 있던 열정, 분노, 아쉬움을 녹녹하게 풀어내는 시간이었음. 조심스럽게, 가혹하게, 우울하게 지적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이었음. 종강, 작품집을 만들고, 신춘문예에 응모함. 한술 밥에 배부르지 않으리. 서로 격려하고 자극하는 관계를 지속하자는 약속을 함. 문학의 힘, 소설의 힘, 자기 존재의 힘을 믿자고 형형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결의함.

<퇴근 후 작가의 탄생>. 또 다른 강좌의 제목은 위와 같이 정했다. 강좌 시간은 저녁 7시~8시 30분. 직장인 수강생을 위한 배려와 전략이었다. 20여 명의 수강생 중 절반이 직장인이었다. 글쓰기란 따분한 작업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반갑고 고마웠다. 제시한 주제로 글을 쓰고 작가는 그것을 받아서 첨삭하고 첨삭한 원고를 순서대로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글쓰기 작업,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했다. 어색함과 부끄러움은 곧 극복되었다. 문자제국이 멸망하고 글쓰기는 골동품이 되어버렸다는 걱정은 기우였다. 모두 즐겁게 참여해서 쓰고 읽고 발표했다. 학기를 종료하고 원고를 모아서 책자로 만들었다. 책자의 제목은 <구수산 연가>. 대구 북구 구수산 주변에 사는 사람들, 구수산 도서관에 모여 보낸 열정의 산물이라 자연스럽게 '구수산 연가'로 이름 붙였다. 1인당 4권씩 증정했다. 본인 보관, 주변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물하라고 권했다. 2022년 여름, 가을은 뜨겁게 보냈다는 뿌듯함이 수강생과 상주작가의 가슴에 남아있다.

구수산도서관 상주작가
이우상



대구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

*1989*년 개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 *151*
053–231–2500
https://library.daegu.go.kr/suseong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은 시민들의 소중한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며 행복한 공동체를 가꾸는 교육시설이자 지역 문화커뮤니티의 장입니다. 수성도서관은 *2020*년 *5*월, 시설 현대화와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의 장서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수성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비전을 충실히 수행하며 책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독서 문화 확산을,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행복을 더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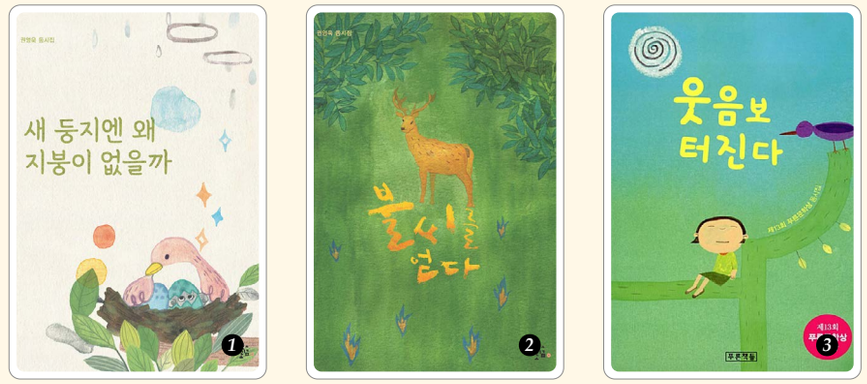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권영욱

아동문학(동시) *2008*년 등단

경상북도 문경 출생. *PEN*문학신인상, 푸른문학상 새로운 시인상을 수상했으며, 대구문화재단·아르코문학창작기금을 수혜받았다. 동시집 『웃음보 터진다』(공저)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불씨를 얻다』로 첫번째 동시집을 발간했다. 『불씨를 얻다』는 *2021* 한국동시문학회 올해의 좋은 동시집에 선정되었다.





❶ **새 둥지엔 왜 지붕이 없을까** 브로콜리숲, *2022*
❷ **불씨를 얻다** 브로콜리숲, *2021*
❸ **웃음보 터진다** 푸른책들, *2016*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아름다운 동시 여행 '동행'

모두의 마음에 잠들어있는 동심을 깨워 표현하는 동시 글쓰기

- 2022년 4월 26일(화) ~ 8월 30일(화)
- 각 8회, 성인 96명 참여

작가가 들려주는 생각 나누기 '상상톡톡'

문학 작품에서 읽을 수 있는 행간 속 상상의 세계를 나누고 글쓰기 방법을 습득해보는 프로그램

- 2022년 6월 22일(수) ~ 9월 7일(수)
- 총 10회, 성인 90명 참여

어르신 인생 이야기 '나는 꼰대다'

어르신들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해보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4월 27일(수) ~ 5월 25일(수)
- 총 5회, (65세 이상)성인 25명 참여

작가가 함께하는 생각 넓히기 '말랑말랑 글쓰기'

상주작가와 생각 키우기 훈련을 통해 직접 써보며 자기표현과 글쓰기 능력을 향상 시키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6월 24일(금) ~ 9월 16일(금)
- 총 10회, 초등생 185명 참여

동시나라로 떠나는 아름다운 '상상야행'

맛깔나는 상상력으로 즐거운 동시를 직접 작성해보는 글쓰기 프로그램

- 2022년 4월 28일(목) ~ 9월 1일(목)
- 총 8회, 성인 96명 참여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글쓰기 상담소'

글 쓸 때 어려운 점, 궁금한 점, 나누고 싶은 점, 모든 글쓰기에 대한 고민 상담 프로그램

- 2022년 5월 10일(화) ~ 9월 28일(수)
- 성인 총 24명 참여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우리 뿌리와 전통놀이

상주작가와 함께 전통놀이로 나의 뿌리를 알아가는 프로그램

- 2022년 4월 29일(금) ~ 5월 27일(금)
- 총 5회, 초등생 20명 참여

상주작가 초청 특별강연회

작가와 함께 동시를 다루며 이야기 나누는 특별 강연회

- 2022년 4월 23일(토) / 9월 17일(토)
- 총 2회, 학부모 및 일반성인 23명 참여

상주작가가 들려주는 책과 함께하는 경제상식

신문과 책에 나오는 경제용어를 이해하며 경제상식을 높이도록 돕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4월 30일(토) ~ 9월 24일(토)
- 총 16회, 중등생 60명 참여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수성도서관 상주작가 사업을 마치며 : 부제 – 특별한 기억

'대구광역시립 수성도서관'은 신체건강을 위한 운동시설과 마음건강을 위해 정서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화랑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 프로그램을 기획, 요일별로 프로그램을 배치했다. 월요일 휴관, 화요일 '나는 꼰대다(어르신 글쓰기)', 수요일 '상상 여행(성인 동시 쓰기)', 목요일 '상상 야행(성인 동시 쓰기–저녁)', 금요일 '말랑말랑 글쓰기(초등 동시 쓰기)', 토요일 '고전으로 읽는 경제이야기(중학생 대상)', 일요일 '창작 및 강의 준비 활동'

먼저 '나는 꼰대다'를 '문화대학'의 강의 시간을 빌려 홍보에 나섰으나 반응이 없다. 글쓰기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도서관 독서실장으로부터 글쓰기에 대한 개별 상담을 하는 '글쓰기 상담소' 로 기획안의 변경을 제안받았다. 첫 상담을 관장님께서 신청했다. 상주작가에 대한 궁금함을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으로 에둘러 얘기했을 테지만, 소통의 시간으로는 충분했다.

생각 외로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글쓰기 상담소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자기계발서 집필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림책을 출판하고 싶다. 일기를 잘 써봤으면. 장애아동을 위한 글을 쓰고 싶다. 어떤 글을 써야 할까? 자녀 키울 때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 이과 전공인데 손자들이 재미있게 읽게 글을 쓰고 싶다.' 등등

상담을 하면서 일반적인 글쓰기 강좌는 많지만 자신들의 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주는 기회는 많지 않았음을 느꼈다. 대부분 일어서면서 덕분에 글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정리가 된 것 같다는 말을 하였지만, 사실은 본인들 스스로가 말을 꺼내고 말을 통해 길을 찾아가는데 약간 거들어 주었을 뿐이었다.

'상상야행(성인 동시 쓰기–저녁반)'에 휠체어를 타고 와 동심에 빠져들던, 비 오는 날 우산을 쓸 수가 없어 참석을 못 했다며 쓴 글을 내밀던 수강생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상주 작가로 근무하는 동안 '글쓰기 상담소'를 통한 소통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 상주작가
권영욱



대구

용학도서관 우수도서관

2010년 설립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41*길 *36*
053–668–1700
https://library.daegu.go.kr/yonghak/index.do

용학도서관은 대구 공공도서관 중 최초로 '다문화가족 전용 자료실(다누리)'을 개원하여 *2,200*여권의 국제도서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서관의 비전은 독서 문화 확산으로, *21*세기의 선도적인 공공도서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학 및 동양학과 '생태·환경' 분야를 특성화하여 지역민의 시민 역량 및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용학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소통의 고민을 계속하며 지역민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도서관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용학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김준현

시 동시 평론 *2013*년 등단

시와 동시, 평론으로 활동하고 있다.





❶ **자막과 입을 맞추는 영혼** 민음사, *2022*
❷ **세상이 연해질 때까지 비가 왔으면 좋겠어** 창비교육, *2022*
❸ **토마토 기준** 문학동네, *2022*

용학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어린이책 속으로 퐁당

그림책, 동시집, 동화 등을 상주작가와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기, 관련 활동을 직접 진행해보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5*월 *10*일(화) ~ *6*월 *7*일(화)
- 총 *5*회, 지역주민 *39*명 참여

별빛 아래 동시 쓰기

밤 별빛 아래에서 동시를 읽고 직접 작가가 되어보는 프로그램

- *2022*년 *7*월 *29*일(금) ~ *8*월 *26*일(금)
- 지역주민 *100*명 참여

아이가 아니어도 동시 쓸 수 있나요? ①

상주작가와 동시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이모저모를 살펴보며 나누는 프로그램

- *2022*년 *5*월 *25*일(수) ~ *6*월 *22*일(수)
- 총 *4*회, 지역주민 *60*명 참여

동시캠프 '북(*Book*)두칠성'

상주작가와 함께 동시연구, 쓰기, 책·영상 만들기를 진행해보는 프로그램

- *2022*년 *8*월 *23*일(화) ~ *8*월 *27*일(토)
- 총 *5*회, 지역주민 *32*명 참여

아이가 아니어도 동시 쓸 수 있나요? ②

상주작가와 동시에 대해 나누고 동시읽기, 합평 등을 함께하는 프로그램

- *2022*년 *6*월 *29*일(수) ~ *7*월 *20*일(수)
- 총 *4*회, 지역주민 *60*명 참여

금요일의 문학상담소

매주 금요일, 상주작가와 *1:1*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는 문학상담소

- *2022*년 *5*월 *13*일(금) ~ *9*월 *23*일(금)
- 지역주민 *32*명 참여

동시한마당 – 동시愛 피어나다

상주작가와 필사, 엽서쓰기, 동시 카드찾기, *N*행시 짓기 등을 나누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6*월 *18*일(토)
- 총 *1*회, 지역주민 *93*명 참여

아아동시 작품집 발간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함께 『나는 늘 큰 그림을 그린다』 작품집 발간

- *2022*년 *7*월 ~*9*월
- 작품집 *150*부 발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동시쓰기 과정을 살핀 후 쓰고 낭독하며 연관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 *2022*년 *6*월 *21*일(화) ~ *9*월 *20*일(화)
- 총 *3*회, 지역주민 *18*명 참여

용학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마음을 빌리고 다시 마음을 돌려주는 시간

얼마 전 영화 <우리들>을 보았다. 햇빛과 발소리가 선명해지는 여름, 두 아이가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인다. 두 아이의 관계가 변주되면서 영화의 말미에 이르면 그 봉숭아물 들인 부분이 손톱의 끄트머리에서 거의 사라질 듯 그러나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 용학도서관 상주작가로 머물렀던 작년의 기억이 그 봉숭아물을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봄에 시작해 여름을 보내고 가을에 접어들 무렵 끝이 나는 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손톱 끝처럼 깎여나가고 깎여나가도 여전히 남아있는 봉숭아의 영혼과 같이 깊고 진하게 남아있는 기억.

아홉 시에 맞춰 도서관에 도착해 *4*층 창의체험실의 뒤편 뒷산이 보이는 통유리창과 칸막이로 구성된 집필실로 들어간다. 거기 앉아 글을 쓰고 수강생들에게 많은 편지를 쓴다. 이 편지 쓰기는 단순한 합평과 과제 주고받기를 넘어서, 진행했던 모든 수업에서, 조금 더 개별적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더 나누는 한 방식이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동시 수업을 열었고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문학상담소를 열었다. 상담소는 매주 두 시간씩 진행한다. 문학상담소 신청자들은 소중하고 내밀한 글을 품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글을 받아들 때의 나 역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낮아지곤 했다. 그 원고들은 한 사람의 삶을 담보하듯 눈(雪) 지층을 이루고 있었고, 한 분당 한 시간은 좀 길지 않을까 하셨던 담당자 님의 우려와는 달리 한 시간은 한 사람의 목소리를 다 챙겨듣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 그 자리는, 무엇보다 듣는 자리였으니까.

유독 내게는 새끼손가락 손톱 끝 빠지지 않는 봉숭아물처럼 남아있는 이가 있다. 고령의 할머니셨는데, 요 몇 년 간 자꾸 뭔가를 습관처럼 쓰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남편 가고 나서부터니까 한 삼 년 정도 그랬습니다. 혼자 심심할까봐 그랬던지 아들이, 엄마 책 읽으시라고 집에 매달 책을 열댓 권을 갖다주더라고예. 매일 읽다가 요새는 점점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좋아져서. 할머니가 내민 건 세 줄 정도의 짧은 글들이었다. 글씨도 엉망이고예 내용도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좀 봐주실 수 있겠는교. 다 옮길 수는 없겠지만, 비 오고 나서 나무에 한참 앉아 있던 새가 날아갈 때 나뭇잎에서 흩어지는 빗물과 슬픔을 잇는 지점, 논에 혼자 서 있는 백로의 가는 다리, 투병을 하던 남편이 자신과 몸피가 비슷해져 같은 옷을 입었던 기억. 그 메모들은 하이쿠도, 일기도, 시도 될 수 있었으나 그 이전에 애도이며 선생님 스스로도 자각하지 않고 있는 애도의 작업이라고, 너무도 귀한 눈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계속 써도 되겠는교? 네, 계속 쓰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존재들과 끊임없이 공명한다는 건, 내 감정을 저들과 나눈다는 의미도 되고 반대로 저들의 현실을 나와 나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생각하면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는 이 기억은 그분의 따뜻하고 깊은 눈빛과 마음 덕분이 아닐까.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분은 자꾸만 내 손에 전통시장 상품권 만 원을 쥐어주려고 하시며 거듭 말씀하셨다. 그 순간 전해지던 온기. 도서관에서 문학을 매개로 만난 이들과의 사이는 양쪽에서 종이컵 전화기를 들고 서 있는 것처럼, 말하기와 듣기가 공평하게 나뉘는 시간, 전화기 사이의 가는 실처럼 떨림과 절실함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도서관에 상주하지 않았다면 결코 들을 수 없었을 이야기, 할 수 없었을 이야기의 시간이었다. 여름임에도 따스했던 온기였다.

용학도서관 상주작가
김준현



부산

금정도서관

*1996*년 설립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33*
051–519–5601
http://library.geumjeong.go.kr/

금정도서관은 디지털자료실 설치, 어린이 디지털 문화도서관 개관 등을 통해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으며 나아가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하는 앞서가는 도서관, 지식 정보와 꿈을 이뤄나가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05*년에는 제*11*회 독서문화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금정도서관은 이용자 중심의 열린 행정서비스로, 주민의 문화적 삶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도시와 문화예술특구로써의 금정구 위상에 걸맞은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정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임순옥

아동문학 *2016*년 등단

울산에서 자랐고 부산에 산다. 월간지 *[*어린이와 문학*]*에 「수수꽃다리를 위해」를 포함한 세 작품을 싣고 추천받아 활동을 시작했다.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작가로 선정되었고 *2020*년 동화 『강철 변신』이 문학나눔에 선정되었다. 저서는 『꽃샘추위』, 『자꾸자꾸 책방』 등이 있다.









❶ **강철 변신** 산하어린이 *165, 2020*
❷ **꽃샘추위** 산하작은아이들, *2022*
❸ **자꾸자꾸 책방** 사계절, *2022*

금정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일상의 작가: 마음을 읽고 쓰다

스스로의 지난 시절과 마음을 돌아보고 에세이 형식의 글을 기록해보는 프로그램

- 2022년 4월 27일(수) ~ 6월 22일(수)
- 총 8회, 지역주민 15명 참여

상주작가 북토크 – 어린이의 현실과 환상, 동화짓기의 즐거움

선정한 동화책을 주제로 하는 상주작가 북토크 (낭독, 내용 퀴즈, 작가 질의응답 등)

- 2022년 9월 4일(일)
- 총 1회, 초등생 및 학부모 30명 참여

동화작가와 함께 나만의 책 만들기

초등생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글쓰기 수업 (직접 읽고 쓰기, 동화책 만들기 등)

- 2022년 5월 6일(금) ~ 6월 24일(금)
- 총 8회, 초등생 12명 참여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독서회

초등 독서동아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도서 선정, 독서지도, 토론, 독후활동 등)

- 2022년 6월 9일(목) ~ 7월 20일(수)
- 총 4회, 초등 독서동아리 회원 42명 참여

동화창작프로젝트 – 나도 작가

작문에 대한 기본 강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만의 동화'를 써보는 문학 프로그램 (문집 제작)

- 2022년 7월 6일(수) ~ 8월 31일(수)
- 총 8회, 지역주민(성인) 12명 참여

작가의 책장

작가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책과 추천도서(50권)을 제공하는 큐레이션 프로그램

- 2022년 5월 ~ 계속
- 지역주민 대상

동화작가와 함께 나만의 글쓰기

다양한 책 읽기, 쓰기 후 상상으로 채워 나만의 책(문집)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 2022년 7월 8일(금) ~ 9월 2일(금)
- 총 8회, 초등생 10명 참여

상주작가 지원사업 수강생 작품집『내 안의 언어들』제작

수강생의 에세이, 소설, 동화의 글을 작품집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프로그램

- 2022년 9월
- 에세이 5인, 소설 1인, 동화 7인 참여

우리가족 감정사전 만들기

우리가족을 표현하는 단어(주제)를 중심으로 메이커라이브러리와 연결하여 하나뿐인 책을 만들어 보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8월 7일(일) ~ 8월 27일(토)
- 총 4회, 총 18명 참여(6가족)

금정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일상, 너머의 어떤 곳

부산 금정도서관 상주작가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정도서관은 제게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 금정도서관 문학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가 동화 창작의 첫발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동아리 활동을 계속해 왔고, 그 열매로 저는 6년 뒤 동화작가로 등단을 했습니다.

지난해 상주작가 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책과 책상과 나를 닮은 다른 벗들을 만날 수 있는 도서관이야말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진행한 <마음을 읽고 쓰다> 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오십 대 중반 여성이 동서문학상에 투고하여 에세이 부문 금상을 받았습니다. 문학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이 문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에너지가 모아지자 때를 만난 듯 꽃을 피웠습니다. 수상소식을 전하는 감격스런 목소리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떤 직장인 남성분은 낮 시간 반차를 쓰고 도서관 문학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분이 지닌 '읽고 쓰기'에 대한 열정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사그러드는 게 아쉬웠습니다. 이후에 이 분은 도서관에 야간 독서동아리 개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2023년 도서관 야간 독서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상주작가 활동의 한 부분으로 야간 독서 동아리에 참여했다가 이 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직장인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빌린 책을 읽고, 근무가 끝난 저녁에 도서관에 와서 읽은 책에 대한 토론을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책을 빌려가서 읽습니다.

이 분들에게 책은 무엇일까, 도서관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습니다. 기계와 서류에 파묻힌 직장 생활, 반복되는 가사노동, 학교에서의 교과서 공부, 도서관과 책은 그러한 일상을 지나 그 너머의 어떤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허기와 질문들을 책과의 만남을 통해, 도서관의 어떤 시간을 통해 채워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의 문학 예술적 감성을 일깨우고, 이들의 구체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도서관 어느 한 곳에서 책을 매개로, 물질 너머의 빛과 향기를 만지며 공존의 삶을 꿈꿉니다.

금정도서관 상주작가
임순옥



부산

정관도서관

*2015*년 개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100*
051–709–3901
http://jglib.gijang.go.kr/main.do

정관도서관은 정관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문화 생활을 향유하도록 돕는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관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을 수 있는 정적인 공간이 아니며 생애주기별 독서 강좌, 다양한 문화행사,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약의 발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보문화배움의 기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도서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관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황선애

아동문학 | *2011*년 등단

부산 출생으로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다. 부산아동문학신인상으로 등단 후 한국안데르센상, 서울문화재단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제*11*회 비룡소문학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는『수상한 콩콩월드 대모험』,『오리 부리 이야기』,『빨개봇이 사라졌다!』,『내 친구의 집은 어디일까?(공저)』가 있다.





❶ **신비한 퐁당퐁섬 대모험** 고래책빵, *2022*
❷ **오리 부리 이야기** 비룡소, *2022*
❸ **빨개봇이 사라졌다!** 밝은미래, *2022*

정관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문학상담소: 작가의 방

작가가 선정한 문학작품과 관련한 코멘트로 고민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

- *2022*년 *4*월 ~ *9*월
- 지역주민 *12*명 참여

동화창작: 동화로 만나는 나

'나'를 스토리텔링하여 단편동화를 완성하고 공동 문집을 제작하는 프로그램

- *2022*년 *6*월 *22*일(수) ~ *9*월 *14*일(수)
- 총 *12*회, 성인 *111*명 참여

도서권에서 만나는 '작가의 서재'

매달 작가가 큐레이션 한 추천도서를 작가의 방에 전시하는 프로그램

- *2022*년 *4*월 ~ *9*월
- 총 *6*회 전시, 지역주민 *600*여 명 관람

안녕? 기장: 함께 만드는 마을 잡지

우리 마을에 대한 기사문, 칼럼, 에세이 등 다양한 글쓰기 및 마을 잡지 제작

- *2022*년 *8*월 *6*일(토) ~ *9*월 *3*일(토)
- 총 *5*회, 초등생 *47*명 참여

기장군보 '기장사람들' 칼럼 연재

'작가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문학과 삶, 희망의 이야기'로 작가가 작성하는 칼럼 연재

- *2022*년 *9*월 *1*일(목)
- 총 *1*회 게재, 지역주민 *1,000*여 명 구독

어린이 독서회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초등생 대상 독서회 프로그램

- *2022*년 *4*월 ~ *9*월
- 총 *12*회, 초등 *2*학년 *43*명, *5 6*학년 *41*명 참여

작가 원화 전시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상주작가의 원화 『우리부리 이야기』를 전시하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9*월 *1*일(목) ~ *9*월 *30*일(금)
- 지역주민 *1,000*여 명 관람

자유 기획 프로그램: 이야기가 있는 공예

『신비한 퐁당퐁섬 대모험』을 작가와 읽고 책 속에 나오는 소품을 제작하는 프로그램

- *2022*년 *9*월 *25*일(일)
- 총 *2*회, 초등생 *2*학년 *27*명 참여

작가와의 만남

『오리 부리 이야기: 동글동글 뾰족뾰족 말의 힘』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5*월 *14*일(토) / *5*월 *21*일(토)
- 총 *2*회, 초등생 및 학부모 *90*명 참여

정관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자리

정관도서관은 '상주작가 지원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그리고 *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로 근무할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 창작활동을 하면서 작가와의 만남이나 북토크, 예술 사업 등으로 독자들을 만나온 터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고 기뻤다.

사업 기간 내 진행된 프로그램은 다양했다. 매달 주제별 북 큐레이션으로 '작가의 서재'를 운영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좋은 책을 주민과 공유했고, 학년별 독서회를 통해 토론 및 논술 시간을 가졌다. 가정의 달 *5*월에는 관내 교리도서관과 정관도서관에서 『오리 부리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가와의 만남을 두 차례 가졌다. 또 초등학생들과 지역 내 명소와 사건을 취재하여 기록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직접 찍어온 사진에 다양한 분야의 글쓰기를 반영하여 한 권의 잡지로 만들었고, 이는 어린 수강생들에게 큰 성취감을 주었다.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강좌는 성인 대상의 동화창작반이다. 동화 창작에 관심이 있는 참여자와 기초부터 작품 완성까지 *3*개월을 함께 했다. 수강생 중에는 품고 있던 꿈을 이루기 위해 매주 회사에 휴가를 내고 오신 분도 계셨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다며 몸이 아픈 날에도 무리해서 강의실을 찾는 분도 계셨는데, 이런 모습들은 작가에게 더 큰 책임감과 의지를 갖게 했다. 매주 최선을 다해 엮어나간 동화는 『꿈꾸는 동화 열 조각』이라는 멋진 문집으로 완성되었고, 출간 후 낭독기념회를 가지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주민들과 가장 생생한 소통을 한 프로그램은 '문학 상담소'이다. 동화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초등학생부터 반 아이들의 독서 지도를 위해 찾아오신 학교 선생님, 생활 속 글쓰기를 실천하고 싶어 하신 고령의 어르신까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시간은 도서관 내에 작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기에 충분했다.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하루 숨 가쁘게 달렸고, *6*개월이라는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모든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는 도서관 측의 적극적인 협조도 큰 몫을 했다. 주민들에게 더욱 많은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물심양면 힘 써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계속돼 많은 문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소통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책과 사람을 잇고,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서관에서 작가와 주민이 어울려 함께 삶을 공유하고,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정관도서관 상주작가
황선애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도서관 우수도서관

1997년 개관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267*번길 *61*
051–621–8160
http://library.bsnamgu.go.kr/

남구도서관은 주민 정보문화센터로서 역할을 위해 신속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합문화공간'으로 주민과 호흡하는 생활 속 도서관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늘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관련 의견을 적극수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독서문화프로그램, 독서진흥행사 운영 및 상호대차서비스,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을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채수옥

시 2002년 등단

동아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졸업,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2*년 『실천문학』을 통해 등단,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한국출판문화진흥원), 아르코 문학창작지원금 수혜(학국문화예술위원회), 제 *20*회 부산작가상(부산작가회의)을 수상하였다.





❶ **덮어놓고 웃었다** 여우난골, *2022*
❷ **오렌지는 슬픔이 아니고** 파란, *2019*
❸ **비대칭의 오후** 시인동네, *2014*

부산광역시 남구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시詩콜*coll* 시쓰기

지역주민과 상주작가가 함께하는 시 창작 프로그램

- *2022*년 *5*월 *3*일(화) ~ *7*월 *19*일(화)
- 성인 *10*명 참여

톡톡*(Talk Talk)* 시인과의 책만남

작가소개 및 작품세계와 시가 담는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

- *2022*년 *4*월 *29*일(금)
- 지역주민 대상

속풀이 글쓰기

지역주민과 상주작가가 함께하는 수필, 글쓰기 프로그램

- *2022*년 *5*월 *3*일(화) ~ *7*월 *19*일(화)
- 성인 *10*명 참여

토요북클럽

상주작가와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하는 독서토론 프로그램

- *2022*년 *5*월 ~ *9*월
- 지역주민(성인) *10*명 참여

교과서 속 한국단편소설 읽기

청소년과 상주작가가 한국단편소설을 읽고 나누는 독후활동 프로그램

- *2022*년 *7*월 *9*일(토) ~ *8*월 *27*일(토)
- 청소년 *15*명 참여

독서토론회 멘토링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특별 독서토론회

- *2022*년 *6*월 *10*일(금) ~ *9*월 *17*일(토)
- 총 *5*회, 도서관 내 *5*개 독서회 참여

걱정마*!* 글쓰기

초등 *1,2*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후활동, 독서토론 프로그램

- *2022*년 *5*월 *12*일(목) ~ *8*월 *25*일(목)
- 청소년 *15*명 참여

문학상담실

상주작가와 상담을 원하는 참여자의 *1:1* 문학상담 프로그램

- *2022*년 *6*월 *29*일(수)
- 지역주민 대상

북*(Book)* 치는 아이들

상주작가와 초등 *3,4*학년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독후활동 및 독서토론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5*월 *13*일(금) ~ *8*월 *26*일(금)
- 초등생 *15*명 참여

월간 <작가의 책방> 배포

월 *1*회씩 상주작가의 에세이와 서평, 추천도서 목록을 수록한 서평지를 배포하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5*월 ~ *9*월
- 지역주민 대상

부산광역시 남구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도서관 상주작가를 경험하게 된 것은 내 삶의 또 다른 보람이고 기쁨이었다. 상주작가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습득한 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해 가는 동안 참여자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됐다.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한 탓에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상주작가를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떻게든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날 수 있을까 고심하던 끝에 '월간 작가의 방'이라는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이였다. '詩로 만나는 세상', '책 한권 서평한잔', '작가의 추천도서'등의 코너를 마련한 후 매달 독립적으로 발간해서 도서관 입구 및 관내 요소요소에 비치해 둠으로써 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도서관 이용객들과도 지면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계기로 삼았다. 매달 만만치 않은 분량의 원고를 혼자서 채워가는 일은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서보니 기쁜 일이었다. 또한 책 읽기 프로그램이었던 '토요 북클럽'을 운영했던 것은 큰 보람으로 남는다. 직장 생활로 도서관에 올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직장인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과연 신청자가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했지만 예상외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 달에 한 권 정해진 책을 읽고 이루어진 독서토론은 구성원들 간의 좋은 유대관계로까지 이어졌고, 상주작가 사업이 마무리 되어 작가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생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독립된 모임으로 우뚝 섰다는 것이다. 현재 '책 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발히 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물론 독서모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도서관 측의 큰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처음 참여하게 된 상주작가 사업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다. 진심은 통한다고 했던가. 시창작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참가자는 당시 부산 *MBC* 시민 기자로 활동 중이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상주작가 사업의 장점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 그 결과 부산 *MBC* "생방송 부라보"라는 프로그램 중 '우리 동네 톡톡' 코너에 우리 도서관의 상주작가 사업이 소개되기도 했다. 올해도 여전히 부산 남구도서관에서 상주작가로 참여하고 있다. 가끔은 열정이 식은 건 아닐까, 벌써 타성에 젖어드는 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경계하고 마음을 다져보기도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도서관 상주작가
채수옥



부산

만덕도서관

*2002*년 개관
부산광역시 북구 은행나무로 *26*
051–309–2097
https://www.bsbukgu.go.kr/mdlib/index.bsbukgu

만덕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정보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 쉬는 도서관' 조성을 목표로 백양 독서테마공원과 연계 설계를 진행, 더욱 아름답고 편안한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외에 개방적인 자료실, 공원 연계 북카페, 작은도서관, 공유 연습실 등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일상 속 문화수요를 충족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생성,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만덕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소개

만덕도서관은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작가의 역량 강화, 상주작가와의 협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인지 감수성과 창의성 증진을 목표 삼아 <*2022*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문학과 관련된 글쓰기 프로그램 '*Book In Cinema*', '나도 한 번 써보자*! 1318* 성장스토리', 지식 재산권 관련 강연 '어디까지 퍼가봤니?', '종이책 *Never Die*', 북 큐레이션 팟캐스트<북덕빵>등을 기획·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작가를 잇는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낸 만덕도서관은 앞으로도 문학을 매개로 지역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❶ *Book In Cinema*
❷ '어디까지 퍼가봤니?'
❸ 나도 한 번 써보자 *1318* 성장스토리

만덕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만덕도서관 상주작가 팟캐스트 <북덕빵>

상주작가의 추천도서 및 '*Book In Cinema*' 프로그램과 연계한 책 소개 팟캐스트 프로그램

- *2022*년 *7*월 ~ *9*월
- 지역주민 대상

디지털 문학시대의 저작권 "어디까지 퍼가봤니?"

'지식 재산권'을 주제로 상주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문학 강연 프로그램

- *2022*년 *9*월
- 총 *1*회, 지역주민 대상

Book In Cinema

문학 작품이 원작인 영화를 감상하고 후기를 나누며 책과 영화를 비교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7*월 ~ *9*월
- 지역주민 대상 *(*일반인, 청소년*)*

종이책 *Never Die*

종이책과 전자책, 종이책의 미래, 종이책을 계속해서 읽는 이유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

- *2022*년 *9*월
- 지역주민 대상

"나도 한 번 써보자*! 1318* 성장스토리"

상주작가와 함께 청소년의 경험과 생각을 녹여낸 이야기를 쓰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7*월 ~ *9*월
- 청소년 대상



부산

맨발동무도서관

*2005*년 개관
부산시 북구 양달로 *64* 대천천환경문화센터 *3*층
051–333–2263
http://www.maenbal.org/default/

맨발동무도서관은 도서관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만들어진 사립공공도서관입니다. 작가 강연, 인문학 강좌 등으로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평생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개관 이래 꾸준하게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마을기록관 '마을을 담는 집'에서 지역의 기록으로 강좌와 전시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책을 만나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가지기를, 지식과 정보의 독점 없이 함께 배우고 누리는 도서관 문화가 꽃피기를 바라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지역의 소중한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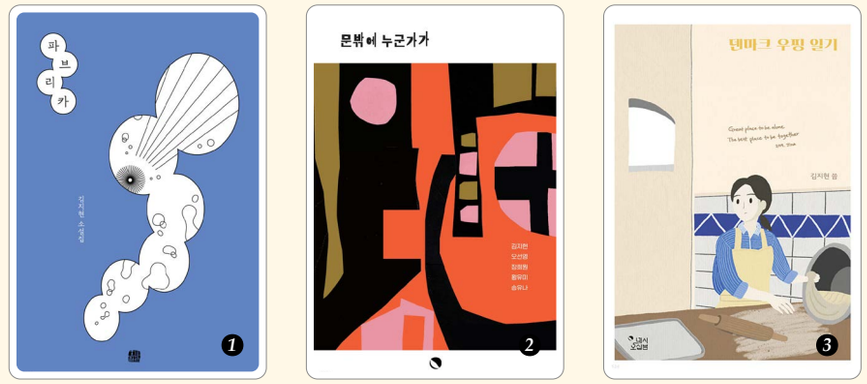
맨발동무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김지현

소설 | *2019*년 등단

*1991*년 부산출생. *2019*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여행 에세이 『덴마크 우핑 일기』 등을 독립 출판하였다. 저서로는 소설집 『파브리카』, 『문밖에 누군가가』, 『우리는 바쁠 것이 없었고』 등이 있으며 부산에서 '네시오십분'이라는 이름으로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





❶ **파브리카** 호밀밭, *2022*
❷ **문밖에 누군가가** 네시오십분, *2022*
❸ **덴마크 우핑 일기** 네시오십분, *2021*

맨발동무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작가의 시선으로 만나는 낯선 책 읽기 “김지현 작가와 함께 부산의 작가들을 만나다!”

월 1회, 부산 작가를 정해 대표작을 읽고 토론하며 작가를 직접 만나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5월 12일(목) ~ 9월 29일(목)
- 총 10회, 사업 신청자 12명 참여
- 참여명사: 오선영, 조갑상, 이정임, 임성용, 정영선 작가

내 삶을 바라보는 작가와의 낯선 글쓰기 “‘이름’을 테마로 내 안의 역사쓰기”

참여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기록하는 글쓰기 프로그램

- 2022년 5월 3일(화) ~ 7월 25일(월)
- 총 12회, 사업 신청자 8명 참여

동아리에서 김지현 작가를 만나다! “작가와 함께하는 책모임”

도서관 독서동아리와 상주작가가 함께 작가의 저서를 읽고 만나는 모임

- 2022년 5월 ~ 7월
- 총 2회, 도서관 소속 독서동아리 대상

김지현 작가 여는 강연 “새로운 삶의 모양 상상하기!”

상주작가 지원사업 및 작가의 저서,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

- 2022년 5월 4일(수)
- 총 1회, 도서관 이용자 대상

김지현 작가 닫는 강연 “파브리카”

상주작가의 신간 발간 축하 및 지원사업 참여, 마무리 나눔 간담회

- 2022년 10월 13일(목)
- 총 1회,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상주작가가 추천하는 이달의 책

매월 1회 상주작가가 추천하는 책을 카카오톡 채널 및 도서관 컬렉션 코너에 전시하는 문학 큐레이션 프로그램

- 2022년 5월 ~ 9월
- 도서관 이용자 대상

맨발동무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동네에서 문학하기

여름 초입의 화사한 아침, 말간 얼굴을 한 동네 이웃들이 동그랗게 둘러 앉아 뜨겁게 이야기 나누던 시간을 기억한다. 동네를 오가며 숱하게 마주한 얼굴들이었겠지만 일상 속에서 서로가 지닌 삶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는 자리란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이제 막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 웃음과 눈물 지으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루를, 일주일을, 살아갈 날을 견뎌내게 해주는 응원 같은 시간이었다. 서로의 삶과 마음을 들으며 공감하고 친밀감을 쌓고 더 나아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느낀 시간은 특별했다. 그 친밀감, 서로에 대한 응원을 가능하게 해 준 것은 다름 아닌 글쓰기, 문학으로 만났기 때문이었다.

상주작가로 활동을 시작하며 목표로 삼은 것은 두 가지였다. 누구나 문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접점을 만들고 지역 작가와 지역민들의 연결 고리 만들기. 실은 두 가지는 같은 목표를 향한 과정이기도 했다. 문학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누구나 글쓰기를 통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으며 지역 문학을 활발하게 향유하여 지역 문학을 활성화하고, 점점 단단해지는 지역 문학의 힘이 곧 내 삶과 생활 영역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꿈꾸며 사람들과 문학으로 만났다. 매주 아침 지역 주민들과 하루를 여는 글쓰기를 하고, 도서관 소식지를 통해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책들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며, 도서관 동아리와의 만남으로 동네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부산 작가의 작품을 깊이 읽고 토론하며 나아가 작가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기획하여 지역 안에서 작가와 독자 간의 내밀하고도 단단한 연결을 만들었다. 나와 삶터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 안에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포착하는 작가들이 있다는 사실, 내 곁의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울림을 주는 문학이 되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네 이웃들과 나누고 싶었다. 평생 한 동네에서 살며 이곳에서의 삶을 영감의 원천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이웃들과 다양하게 만나고 함께 경험하며 문학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맨발동무도서관 상주작가
김지현



부산

연제도서관

*2014*년 개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 *612*
051–665–5511
http://www.yeonje.go.kr/library

연제도서관은 지역사회 정보 문화의 중심체로서 공공도서관 정보 자원, 연간 장서 증가 수, 지역사회 유대 활동 실적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도서관입니다. 관내 *5*개소 공공도서관과 상호대차 서비스를 연계, 부산 최초의 스마트 도서관 '빌리돌리북' 운영 등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제도서관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 습득 및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도서관입니다.

연제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서정아

소설 *2004*년 등단

*1979*년 인천에서 출생했다. 여러 도시를 거치며 성장하다 *1996*년 부산에 정착했다. *2004*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풍뎅이가 지나간 자리」가 당선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요산창작작지원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이상한 과일』, 『오후 네 시의 동물원』이 있다.





❶ **오늘의 좋은 소설** 전망, *2021*
❷ **오후 네 시의 동물원** 산지니, *2021*
❸ **이상한 과일** 산지니, *2021*

연제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소설가가 추천하는 책과 문장

지역신문에 작가의 애정 담긴 책과 직접 고른 문장 등을 선정하여 전시하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4월 ~ 6월*
- 지역주민 대상

글쓰기, 어렵지 않아요!

글쓰기가 어려운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편안하고 친근한 방식으로 글을 써보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8월*
- 초등 고학년 대상

치유의 글쓰기

상주작가가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프로그램

- *2022년 5월*
- 지역주민 대상

연제의 책 함께 읽기

연제구에서 선정한 *2022*년 『연제의 책』을 함께 낭독하고 각자의 이야기로 책을 이해하는 함께 읽기 프로그램

- *2022년 9월*
- 지역주민 대상

동화와 함께 꼼지락꼼지락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동화를 함께 읽고 다양한 독서 경험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 *2022년 6월*
- 지역주민 대상

상주작가가 추천하는 책과 문장

다양한 주제로 선정한 추천도서 및 문장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문학 큐레이션

- *2022년 4월 ~ 9월*
- 지역주민 대상

소설 같은 내 인생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글로 풀어보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7월*
- 지역주민 대상

연제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함께 문학하는 기쁨

도서관 상주작가로 지낸 여섯 달 동안 나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 매일 미세하게 바뀌는 계절과 날씨의 변화를 오감으로 느끼면서. 도서관 2층으로 들어오면 맨 안쪽에 '작가의 방'이라고 새겨진 커다란 파티션이 있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서면 일종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이었고, 책상 오른편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투명한 창문 밖으로 하늘과 구름과 나무가 보였다. 바로 옆 서고로 가면 언제든지 꺼내올 수 있는 수많은 책들이 있었고, 내 자리에는 그 책들을 여러 권 펼쳐놓을 수 있을만한 커다란 책상이 있었다. '작가의 방'은 내가 활자와 원고 속으로 언제든 빠져들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여행지였다.

상주작가로 지내면서 개인적인 작업도 했지만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문학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치유의 글쓰기'라는 성인 글쓰기 강좌였다. 사실 프로그램명을 그렇게 정하고 수강생을 본격적으로 모집할 때, 너무 거창한 제목을 내건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수강생들은 이미 스스로 치유할 힘을 내부에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글로 꺼내놓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고 개인의 내밀한 이야기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일과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은 일과 직장에서 당한 괴롭힘 등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글로 썼다. 그들의 마음에는 용기가 있었고 나는 글쓰기의 방법적 측면보다 진솔한 글의 알맹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 외에도, 함께 동화를 읽고 작은 손으로 공들여 글씨를 쓰면서 그림을 그리던 아이들, 소설과도 같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풀어보던 글쓰기 수강생들, 매달 함께 책을 읽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독서클럽 회원들, 북큐레이션과 소식지에 연재했던 글 등을 통해 소통했던 익명의 지역주민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는 활자 속으로만 침잠하지 않고 광장으로 나올 수도 있었다. 그것은 타인과 함께 문학 하는 기쁨이었다.

연제도서관 상주작가
서정아



서울

도곡정보문화도서관

*2013*년 설립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18*길 *57*
1644–3227
https://library.gangnam.go.kr/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다양한 도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주민의 문화 허브 공간, 독서 문화 진흥을 통해 책과 문화를 꽃피우는 도서관입니다. *10*만 *9*천여 권의 장서와 오디오북, 웹*DB*, 영어원서 전자서비스를 비롯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며 인문학 특강, 어린이 대상의 책 연계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를 주최하여 지식을 통해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주민을 위한 공간과 서비스를 늘 고민하며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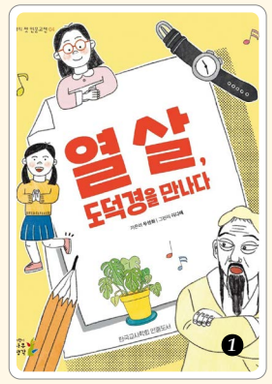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우성희

아동문학 *2015*년 등단

*2015*년 동화 『달려라, 허벅지』로 푸른문학상 수상. *2017*년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우수작품상, 푸른작가상 수상. 『하마가 사라졌다』가 '청소년 북토큰 도서로, 『기다려, 오백원!』이 '진천의 책'으로, 『공룡 목욕탕』은 '고성 올해의 책', 『열 살, 도덕경을 만나다』는 '음성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저서로는 『씽씽 달려라, 허벅지』, 『하마가 사라졌다』, 『하트쿠키』, 『달려가기는 처음』, 『천사동물병원의 수상한 사람들』, 『예나는 천사』, 『공룡 놀이터』 등이 있다.









❶ **열 살, 도덕경을 만나다** 어린이나무생각, *2022*
❷ **공룡 목욕탕** 리틀씨앤톡, *2022*
❸ **기다려, 오백원!** 단비어린이, *2021*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작가의 북큐레이션 “작가의 책장”

매달 상주작가가 추천하는 도서를 추천평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전시하는 북 큐레이션 프로그램

- 2022년 4월 ~ 9월
- 지역주민 대상

이정록 작가와의 만남

『아홉 살은 힘들다』 도서를 주제로 만나는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9월 1일(목)
- 총 1회, 초등 3~4학년 15명 참여
- 참여명사: 이정록 작가

가정의 달 기념 상주작가와의 만남 – 『공룡목욕탕』 속으로 떠나는 탐험

『공룡목욕탕』 도서를 중심으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나누는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5월 12일(목)
- 총 1회, 초등 저학년 15명 참여

사적인 도서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책 처방, 진로상담, 글쓰기 상담 등 작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문학 만남 프로그램

- 2022년 6월 28일(화) ~ 8월 31일(화)
- 총 3회, 지역주민 5명 참여

초등 그림책 창작 프로그램 “나도 작가가 될거야”

상주작가와 함께 직접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창작 프로그램

- 2022년 5월 27일(금) ~ 9월 27일(화)
- 총 6회, 초등생 42명 참여

작가를 빌려드립니다

상주작가가 인근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강연을 하는 강연 프로그램

- 2022년 9월 22일(목) / 9월 30일(금)
- 총 5회, 초등생 225명 참여

성인 대상 아동문학 프로그램 “어른이 되어 다시 읽는 동화 동시”

성인을 대상으로 동화와 동시를 다시 깊이 접하게 돕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6월 29일(수) ~ 7월 20일(수)
- 총 4회, 성인 20명 참여

동아리 멘토링

도서관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는 상주작가의 멘토링 프로그램

- 2022년 7월 22일(금) / 9월 14일(수)
- 총 3회, 독서동아리 구성원 20명 참여

임정진 작가와의 만남

『비행기에서 쓴 편지』 도서를 주제로 만나는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9월 1일(목)
- 총 1회, 초등 3~4학년 15명 참여
- 참여명사: 임정진 작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언주초 아이들과의 만남^^

나는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상주작가로서 7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했다. 송은화 대리님도 나도 상주작가는 처음이어서 마지막 날까지 진심을 다해서 한 편이다. 그림책 만들기, 북큐레이션, 어린이·성인 독서동아리와 개인 멘토링, 어른이 되어 다시 읽는 동화 읽기, 북토크, 작가를 빌려 드립니다 등 프로그램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고, 기억에 남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공을 들였다. 프로그램마다 다 얽힌 이야기가 있고, 어른 수강생들은 끝나고 나서도 연락하고, 팬이라며 내 책들을 사 들고 찾아와 사인도 받고, 맛난 먹거리도 만들어다 주신다. ‘작가를 빌려 드립니다.’ 프로그램을 먼저 들려드리자면, 내 동화 <열 살, 도덕경을 만나다>를 가지고, 가까운 학교인 언주초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리님이 언주초 선생님께 전화 드리자 매우 반기시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해 달라고 하셨다. 아이들을 만나 보니 9개 반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랐다. 대체로 집중을 잘하고, 퀴즈도 잘 맞혔다, 책을 구매해 읽고 가져 온 아이들도 많았다. 반마다 리액션도 좋았는데 어떤 반은 내가 연예인이 되어 토크쇼를 하는 느낌이었다. 아이들이 강연 시작부터 사인받을 종이를 흔들며 사인해 달라고 외쳤지만 아이들이 너무 많은 데다 바로 다음 차시 강연이 이어지는 바람에 사인해 줄 수가 없었다. 대신 내 동화 표지가 그려진 그림엽서를 주었다. 강연이 끝나면 아이들이 날 빙 둘러싸고 “언제 또 오세요? 언제 또 만날 수 있어요?” 물었다.(우리 또 만나게 되길^^) 아이들이 많이 아쉬워 하길래 도서관이 가까우니 사인받고 싶은 사람은 오라고 했더니 내가 외부 일정으로 나갔을 때 왔다. 사서 선생님이 수첩을 맡기고 가면 사인받아 놓겠다고 하니까 작가님 얼굴 보고 사인받겠다고 하고는 돌아갔다고 했다. 몇 차례 엇갈린 끝에 내 빈 시간을 전달받은 아이들이 나를 만났고, 본인 사인은 물론 함께 못 온 친구들 사인까지 받아 갔다. 언주초 코너만으로도 이미 도서관과 친밀한 상태에서 상주작가 강연 시간을 함께하고 나니 친밀감 지수가 무척 높아진 듯했다. 그때 그 언주초 아이들의 사랑스러움이 아직도 내 마음 안에서 톡토독 튀고 있다. 3학년 중에는 그림책 만들기 과정에 참여한 아이도 있었는데 강연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흡사 가족의 눈빛이었다.^^ 상주작가를 하는 동안 아이들의 사랑을 온몸에 받고 나니 다이돌핀 대방출로 기운이 솟고, 마음속에 싱싱한 웃음 꽃봉오리들이 톡톡 터지며 활짝 피어나는 느낌이다. 상주작가라서 누릴 수 있었던 고퀄 행복감이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상주작가
우성희



서울

우장산숲속도서관

*2009*년 개관
서울시 강서구 우현로 *34*
02–2696–6689
https://ujs.gangseo.seoul.kr/

우장산숲속도서관은 책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 공간입니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책을 즐길 수 있는 '앵두나무실', 도서 자료와 열람실로 구성된 '소나무실', 아동들을 위한 '포도나무실', 학습자 열람실 '느티나무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독서 동아리 운영과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문학 프로그램 및 전시 등으로 주민들과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장산숲속도서관은 지역민의 문화적 소양과 지식정보서비스에 기여하는 복합지식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장산숲속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정혜원

아동문학 | *2009*년 등단

우리 소리와 고전문학을 사랑하는 어린이·청소년책작가. *KBS* '흥겨운 한마당' 제*1*회 귀명창 대회에서 장원을 한 뒤, 국악음반박물관 판소리 명창의 편집장을 지냈다. 다수의 판소리 공연을 기획, 진행했으며 저서로 『삼국의 아이들』, 『우리 신화 여행』, 『딱 한마디 우리 노래』 등 여러 작품을 집필했다.





❶ **누가 소리의 주인인가** 현북스, *2023*
❷ **판소리 소리판 – 백성의 마음을 담은 우리의 소리** 우리교육, *2019*
❸ **매 맞으러 간 아빠** 개암나무, *2014*

우장산숲속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내 인생의 그림책 찾기

그림책을 중심으로 특강, 관련 독서모임, 한 줄 서평 등을 진행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

- *2022*년 *4*월 *29*일(금) ~ *9*월 *16*일(금)
- 총 *10*회, 성인 *10*명 참여

숲이 들려준 이야기

동네 숲을 탐험한 내용을 기록하고 상주작가와 함께 숲의 기록을 다양한 글쓰기로 표현해 보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5*월 *3*일(화) ~ *6*월 *14*일(화)
- 총 *6*회, 지역아동센터 초등생 *10*명 참여

마음이 쉬어가는 이야기 놀이터

상주작가와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동네 이야기를 한 편의 글로 만들어 보는 시간

- *2022*년 *7*월 *20*일(수) ~ *8*월 *17*일(수)
- 총 *5*회, 초등 *4~6*학년 *12*명 참여

찾아가는 *BOOK*놀이터

상주작가가 어린이집으로 직접 찾아가 그림책 낭독 후 책놀이를 진행하는 북스타트 프로그램

- *2022*년 *7*월 *5*일(화)
- 총 *1*회, 어린이집 *7*세 어린이 *19*명 참여

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잘 모르는 『춘향전』을 읽는 시간

『춘향전』을 함께 낭독하고 상주작가의 풍부한 해설과 판소리 주요 대목을 곁들여 감상해 보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8*월 *16*일(화) ~ *9*월 *27*일(토)
- 총 *6*회, 성인 *7*명 참여

배달의 책방

상주작가가 그림책 선정 후 지역복지관에 편지를 써서 기관으로 배달하는 지역기관 연계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7*월 ~ *9*월
- 총 *2*회, 어르신/발달장애인 *20*명 참여

숲속의 서재

도서관 내 도서전시공간에 상주작가가 직접 도서를 선정하고 서평을 적어 이를 선보이는 문학 큐레이션 프로그램

- *2022*년 *6*월, *9*월
- 지역주민 대상

강무홍, 정혜원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 북토크

도서관 그림책 모임, 그림책 동아리 회원과 함께하는 작가 강연 및 북토크

- *2022*년 *9*월 *23*일(금)
- 총 *1*회, 성인 *15*명 참여
- 참여명사: 강무홍, 정혜원 작가

우장산숲속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나무가 된 사람들

우장산숲속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나무 둥지 속 새알처럼 울창한 숲에 폭 안겨 있는 예쁘고 아담한 도서관을 떠올렸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가면서 마음속 무엇인가 한 뼘 더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촘촘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 주민 센터 간판이 달린 콘크리트 건물과 *4*층 우장산숲속도서관이라는 안내 팻말을 마주한 순간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장산숲속도서관은 번듯한 독립건물도 아니고, 구립도서관 가운데 작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도서관에 들어서서 나무 울타리로 장식된 로비와 열람실 정면에 있는 작은 정원과 연못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어떻게든 나름대로 숲을 구현하고자 애쓴 정성이 여실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작 우장산숲속도서관을 푸르고 울창한 숲으로 만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공간을 만드는 것은 사람인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상주작가 기간은 매우 짧아서, 눈 깜짝하는 사이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쉬움이 무척 컸습니다. 역시나 사람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포도나무실, 소나무실, 앵두나무실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서가에 빽빽이 꽂힌 책에도 눈이 갔습니다. 순간 번쩍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책은 나무로 만듭니다. 눈앞의 이 책들도 과거에는 깊은 산 맑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던 나무들이었습니다. 비록 흔적도 없이 짓이겨지고 눌려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지만, 책으로 또 다른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로 새들이 총총 발을 옮기고 다람쥐가 조르르 달려가듯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영혼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책이 나무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더욱이 우장산숲속도서관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작가를 존중합니다. 저는 특별한 존재로 관심과 인정을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작가라는 사실을 우장산숲속도서관에 와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장산숲속도서관의 그림책 모임은 해가 바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초대를 받아 즐겁게 참석하곤 합니다. 한 권의 그림책을 보며 상기된 얼굴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노라면, 제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고 있다는 기분에 뿌듯합니다. 우장산숲속도서관에서는 책이 된 나무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무가 된 사람들이 도서관이라는 숲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장산숲속도서관 상주작가
정혜원



서울

관악중앙도서관

*2002*년 개관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3*길 *35*
02-828-5700
http://lib.gwanak.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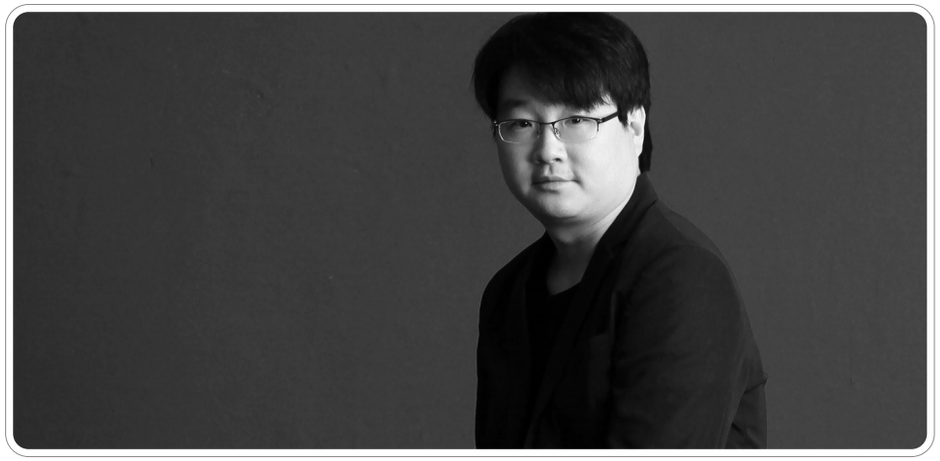
서울 관악구는 선진적 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하여 통칭 '도서관악구'로 불리는 곳입니다. 지하철 무인반납기, 도서관책 자동 반납기, 책 배달 서비스, 각종 강좌 및 북콘서트 등의 서비스와 행사가 다수 운영 되고 있습니다. 또 '관악아트홀'과 남파 김삼준 문화복지기념관이 함께 위치하여 구민들에게 여러 문화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2002*년 '관악 문화관 및 도서관'으로 개관, *2019*년 관악문화재단 출범으로 *2020*년 '관악아트홀'과 '관악중앙도서관'으로 각각 분리와 개칭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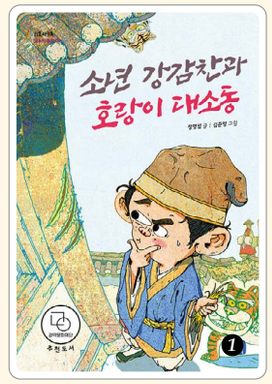
관악중앙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정명섭

소설 *2013*년 등단

*1973*년 서울 출생. 대기업 샐러리맨을 거쳐 커피 전문 바리스타로 일했으며, 현재는 전업 작가로 활동 중이다. 주로 역사와 추리, 청소년과 동화 등 다양한 장르와 연령대의 작품을 창작한다. 대표작으로는 『미스 손탁』, 『유품정리사』, 『기억 서점』, 『체탐인』, 『그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 등이 있다.









❶ **소년 강감찬과 호랑이 대소동** 리틀씨앤톡, *2021*
❷ **기억서점 – 살인자를 기다리는 공간** 시공사, *2021*
❸ **미스 손탁** 서해문집, *2018*

관악중앙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정명섭 작가에게 배우는 역사소설 쓰기 준비운동

다양한 역사×장르소설을 작업한 상주작가의 집필 과정을 소개하고 나누는 문학프로그램

- 2022년 4월 23일(토)
- 총 1회, 지역주민 대상

정명섭 작가와 함께하는 '도서관 1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토론, 문학 공동체를 운영하는 독서문화 확산 프로그램

- 2022년 8월 7일(일) ~ 8월 28일(일)
- 총 4회, 지역주민 22명 참여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어느 멋진 날』 북토크

상주작가의 저서 『어느 멋진 날』을 중심으로, 타 참여작가들과 함께 다양한 창작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 프로그램

- 2022년 7월 1일(금)
- 총 1회, 지역주민 20명 참여
- 참여명사: 김이환, 범유진, 홍선주 작가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종말의 아이들』 북토크

상주작가의 저서 『종말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집필 과정 및 인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 프로그램

- 2022년 9월 7일(수)
- 총 1회, 지역주민 50명 참여

특별 프로그램① – 기웃기웃2

관악 지역 내 문화공간 탐방·답사를 진행하고 아카이빙,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그램

- 2022년 8월 3일(수) ~ 10월 25일 (화)
- 지역주민 대상

특별 프로그램② – 강감찬 앤솔로지: 우주전함 강감찬

상주작가 외 3인의 작가들과 함께 '강감찬'의 과거와 미래를 다룬 앤솔로지 작품 제작

- 2022년 10월 14일(금) 출간
- 참여명사: 조동신, 박지선, 천지윤 작가

특별 프로그램③ 고일권×정명섭 작가와의 만남 – 별을 닮은 소년 강감찬

『별을 품은 소년』의 고일권 작가, 『소년 강감찬과 호랑이 대소동』의 정명섭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10월 15일(토) / 지역주민 대상
- 참여명사: 고일권 작가

관악중앙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상주작가로 생활하기

2021년에 이어서 2022년에도 관악문화재단의 상주작가로 일하게 되었다.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연속성'이었다. 2021년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라서 애초 기획했던 대면 강의나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줄어들거나 폐기되었다. 2022년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아쉬웠던 프로그램을 이어가려고 생각한 것이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기웃기웃 2'였다. 상주작가로 일하게 된 관악구는 여러 명소들과 가볼 곳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낙성대를 비롯해서 여러 장소들을 돌아보면서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했다. 특히 기웃기웃 2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싱글벙글 센터와 글빛정보도서관을 소개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강감찬 앤솔로지'였다. 관악구를 대표하는 인물이 다름 아닌 강감찬이다. 그런데 의외로 강감찬에 관한 책이 없다는 걸 알고 2021년에는 강감찬을 주인공으로 하는 동화를 썼다. 그리고 2022년에는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강감찬을 주제로 한 단편집인 앤솔로지를 기획하고 집필했다. 역사와 SF를 섞어서 독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는데 소정의 성과를 거두어서 무척 기뻤다. 그리고 2021년에 쓴 강감찬 동화를 가지고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났다. 강연을 통해 강감찬을 알리고, 왜 기억해야 하는지를 들려주었다. 주말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예전에는 줌으로 하거나 관내의 서점에서 진행했었는데 상황이 나아지면서 드디어 관악문화재단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고일권 작가와의 북토크였다. 창작만개 사업으로 강감찬에 관한 웹툰을 그린 고일권 작가와 함께 별빛내린천 일대에서 열린 2022 관악구 북페스티벌에서 북토크를 진행했다. 고일권 작가에게 웹툰을 그린 과정과 그리고 난 이후 강감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관악구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었으며, 상주작가로서의 업무를 잘 마칠 수 있었다.

관악중앙도서관 상주작가
정명섭



서울

상계도서관

*2012*년 개관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43*길 *57*
02–3391–7882
https://www.nowonlib.kr/

상계도서관은 다양한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교육, 문화, 여가 활동 공간으로써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14*년에는 서울시 공공도서관 육성발전 유공기관 부문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 한 책 읽기', '노원구립도서관 리딩인', 독서 공동체 지원사업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유혜율

그림책 희곡 *2017*년 등단

연세대 심리학과 졸업.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볼 줄 알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그대로의 마음을, 어른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다시 찾는 그림책을 사랑한다. 『사막의 왕』, 『엄마와 복숭아』, 『내일의 정원』과 희곡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 등을 집필했다.









❶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 빨간콩, *2022*
❷ **너는 나의 모든 계절이야** 후즈갓마이테일, *2022*
❸ **엄마와 복숭아** 후즈갓마이테일, *2020*

상계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우와!한 상상 정보 큐레이션

상주작가와 사서가 매월 다양한 주제별 정보 큐레이션을 진행하여 도서, 영상, 기사 등을 코멘트와 함께 전시

- *2022년 3월 ~ 12월*
- 지역주민 대상

리딩인과 작가가 만나면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가와 상주 작가가 협력하여 그림책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 *2022년 6월 7일(화) ~ 7월 31일(일)*
- 지역주민 대상

유혜율 상주작가 미니 북토크 '도서관과 작가가 만나면'

상주작가, 도서관,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북토크 프로그램

- *2022년 5월 25일(수)*
- *총 1회*, 지역주민(성인) 대상

애들아, 도서관에서 놀자

상주작가, 튜터,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함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양한 독서 활동을 진행하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7월 25일(월) ~ 7월 28일(목)*
- 초등생 *4~6*학년 대상

작은공간을 위한 낭독극 '멸치국수 한 그릇'

상주작가가 도서관에서 머무르는 동안 집필한 희곡을 전문 연출가 및 배우들과 함께 낭독하는 문학 공연 프로그램

- *2022년 9월 17일(토)*
- *총 1회*, 청소년 이상

상계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만나고 연결되는 일

*2022*년 중랑천의 봄과 여름을 알고 있습니다. 상주작가로 함께 지낸 상계도서관 직원들과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심을 먹고 중랑천을 산책했습니다. 유난히 가물어서 분주히 자라고 피는 나무와 꽃이 바짝 말라가고 낮은 수위에 뒤척이는 물고기들이 안타까웠던 봄과 폭우가 쏟아져 천변에 심어진 나무 꼭대기까지 불어난 강물에 놀라기도 했던 여름. 멀리서 보면 언제나 똑같아 보이지만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중랑천처럼 도서관의 하루도 조용한 듯 분주하게 흘러갔습니다. 코로나로 제약이 많은 상황이긴 했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서관 직원들과 함께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림책 북토크를 열어 지역 주민들과 만났고 노원구 아이들을 위해 그림책 읽기 봉사 활동을 하는 '리딩인' 회원들과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로 창작 그림책을 완성해나가는 수강생들의 열정과 전문지식에 감탄하고, 만들어진 그림책이 너무 좋아 직원분들과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소개하고 보여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달인 *9*월에는 도서관 *1*층의 아담한 공간에서 '멸치국수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낭독극을 열었습니다. 상계도서관 주변 골목을 걸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성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6*개월 동안 대본을 완성하고 직원들과 연출가와 배우를 섭외했습니다. 작은 공간의 소박한 공연이었지만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공감하는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상주 작가로 지낸 시간은 끝이 났지만 직원들과 작별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원문화재단과 함께 *11*월에는 경춘선숲길 갤러리에서 그림책 수업에서 완성한 그림책과 출간된 저의 그림책 *5*권을 같이 전시하고, *12*월에는 상계예술마당에서 '멸치국수 한 그릇' 낭독극을 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주작가로 지낸 시간 동안 사람들이 만나고 연결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의 기쁨과 보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잠시' 머물다 가는 상주작가에게 마음을 열고 의견을 나누며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상계도서관 관장님과 직원들 덕분입니다.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상계도서관 상주작가
유혜율



서울

김근태기념도서관

*2021*년 설립
서울시 도봉구 도봉산길 *14*
02–956–3100
https://geuntae.co.kr

김근태기념도서관은 라키비움으로, 도서관인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관련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입니다. 민주주의·인권 특화 도서관답게 사회·인문분야 장서 및 컬렉션이 두드러지게 비치 되어 있으며, 이 서적들에 부여된 민주적 가치를 담은 도서분류명 역시 눈 여겨 볼 만한 특성입니다. 또한 라키비움의 영역을 넘어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 민주주의의 깃발을 세우며 참여와 소통을 꾀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 인권 특화도서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이소연

시 *2014*년 등단

경북 포항 출신,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졸업 및 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2014*년 *[*한국경제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다양한 여성들의 상황과 목소리를 다루는 시를 쓴다. 시집 『나는 천천히 죽어갈 소녀가 필요하다』, 에세이집 『고라니라니』가 있다. 창작동인 <켬>으로 활동 중이다.





❶ **거의 모든 기쁨** 아시아, *2022*
❷ **고라니라니 – 손의 일기** 마저, *2021*
❸ **나는 천천히 죽어갈 소녀가 필요하다** 걷는사람, *2020*

김근태기념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시’가 있는 ‘도’서관 [시도]

상주작가가 매주 온라인으로 시와 관련된 짧은 글을 작성하여 독자와 만나는 소통 프로그램 (도서관 공식 *SNS* 업로드)

- *2022*년 *4*월 ~ *9*월　매주 화
- 총 *20*회 작성 및 업로드, 지역주민 대상

작가 초청 강연

다양한 문학 장르의 작가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는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6*월 ~ *9*월
- 총 *4*회, 지역주민 *81*명 참여
- 참여명사: 김은지 시인, 김의경 소설가, 황인찬 시인, 김소연 시인

이소연 시인과 함께 ‘스피박’ 읽기

상주작가와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의 저서를 읽고 토론하는 심화독서 프로그램

- *2022*년 *5*월 *10*일(화) ~ *6*월 *7*일(화)
- 총 *5*회, 성인 *36*명 참여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9*월 독서의 달 주간 ‘숨은 글씨 찾기’

<낙서와 글씨> 상주작가가 제시하는 ‘숨은 글씨’를 찾는 프로그램

- *2022*년 *9*월 *1*일(목) ~ *9*월 *30*일(금)
- 어린이 *263*명 참여

이소연 시인과 ‘주고받는 인권 에세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큰 주제 삼아, 상주작가와 참여자가 생각을 주고받으며 글감을 찾는 창작활동 프로그램

- *2022*년 *6*월 *21*일(화) ~ *7*월 *19*일(화)
- 총 *5*회, 지역주민 *35*명 참여

상주작가 전시회 ‘도서관, 우리 모두의 기쁨’

상주작가 지원 사업 종료 기한 내 작가의 활동 내용을 망라하여 게시하는 결과 발표 전시회

- *2022*년 *9*월 *27*일(화) ~ *9*월 *30*일(금)
- 총 *120*명 관람

이소연 작가와 함께 청소년×예술로 풀어보는 내 삶의 인문학

민주주의·인권·평화를 주제로 전문가와 이야기하고 글을 써보는 예술협업 프로그램

- *2022*년 *8*월 *19*일(금) ~ *8*월 *20*일(토)
- 총 *4*회, 청소년 *39*명 참여
- 참여명사: 유현아 시인, 백필균 큐레이터, *MC*메타

김근태기념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환대

차를 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을 만난 차 전문가 ‘구나’님이 선물해 주신 꽃차 향이 <작가의 방>을 가득 매웁니다. *2022*년 사월의 봄을 떠올리게 하는 향이예요. 도서관 사람들은 상주작가로 오게 된 저를 따스하게 맞아주었어요. 제가 머물러 있는 창작실 문에 붙은 표지판에는 뽀얀 천에 <작가의 방>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늑한 공간을 준비해 주시고 따뜻한 인사를 건내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 곳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마음에도 전염력이 있어서 좋은 마음 곁에만 머물고 싶어집니다. 저도 도서관을 방문하는 분들을 매주 한 편의 시로 환대하면 어떨까? <시가 있는 도서관>이라는 시 소개글 연재 프로그램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도서관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도서관 홈페이지에 매주 월요일 마다 업로드 되었습니다. 시 소개글을 읽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주민들과 소통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사월의 꽃들이 가이없이 피듯이 도서관 사람들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던 사월의 첫 기억입니다. 환대받은 사람이 배운 것은 사람이 올 때 함께 오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바람이 더듬어 볼 수 있었던 마음을 닮았을 거예요. 제가 떠나고도 사서님께서는 그동안 제가 연재했던 글을 프린트해 시 항아리에 담아두었다고 해요. 시소리 숲을 지나는 사람마다 하나씩 꺼내 볼 수 있도록요. 저는 페미니스트로 활동하며 혼자 읽기 시작한 페미니즘 이론서를 도서관을 찾은 주민들과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스피박 읽기> 프로그램 처음엔 어렵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독서를 하며 진솔한 감상을 주고받아야 할 시간에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건 곤욕이었지요. 사실 저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해한 만큼 또는 이해하지 못한 만큼 이야기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새롭고 유용했습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세대의 여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대한민국 젊의 여성의 대표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시해도 소용없었죠. 하지만 그런 충돌 때문에 한 세대가 한 세대를 알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가장 뿌듯한 경험을 만들어 준 시간이었어요. 별명으로 서로를 마주하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돼지감자는 올해도 이렇게 작년과 같은 작가의 방에서 꽃차를 우리고 있네요.

김근태기념도서관 상주작가
이소연



서울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2014*년 개관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4*길 *75*
02–982–1959
https://www.l4d.or.kr/dsn/index.do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예술 진흥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독서 행사, 독서 동아리, 과학 특화 서비스 및 미디어 창작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 최우수도서관으로 선정,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개막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도서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미래 도서관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백은하

아동문학 *2004*년 등단

대학에서 국문학을, 대학원에서 문예 창작을 공부했다. *2004*년 충청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 *2007*년 제*7*회 어린이문학상 수상. 지금까지 지은 책으로 『빡빡머리 천백지용』『엄마의빈자리』, 『우주에서 온 환경탐험대』, 『녀석을 위한 백점 파티』, 『*100*점 탈출』, 『푸른빛으로 사라진 아이』, 『당당해질 거야』 등이 있으며 함께 지은 책으로 『나는 열세 살이다』,『어린이를 위한 흑설공주*2*』 등이 있다.





❶ **걱정을 가져가는 집** 휴먼어린이, *2020*
❷ **현우에게 사과하세요** 아이앤북, *2020*
❸ **엄마의 빈자리** 별숲, *2019*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인생 한 걸음씩 필사공감

필사를 통해 관찰한 내면을 주제로 수필을 작성하고 결과물을 문집으로 제작 및 배포하는 프로그램

- *2022*년 *5*월 *4*일(수) ~ *5*월 *25*일(수)
- 총 *4*회, 성인 *60*명 참여(회차별 등록인원 *15*명)

가정의 달 <우리 가족 나무 꾸미기>

상주작가와 함께『우리 가족 납치 사건』동화를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해 보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5*월 *7*일(토)
- 총 *1*회, 초등 저학년 대상 *15*명 참여

행복을 꿈꾸는 동화 창작 교실

상주작가와 동화 창작 도서를 활용하여 단계별 글쓰기와 합평, 토론 등을 진행하는 창작 프로그램 (결과물 문집 제작)

- *2022*년 *6*월 *8*일(수) ~ *8*월 *31*일(수)
- 총 *9*회, 성인 *120*명 참여(등록인원 *18*명)

찾아가는 창작 글쓰기 <어린이 행복 글쓰기 교실>

상주작가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연동화, 생각 나누기, 글쓰기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 *2022*년 *4*월 ~ *5*월
- 총 *3*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그림책 한걸음 읽기>

상주작가와 지역 중학교 학생들이 함께 사회 이슈 그림책 읽기, 주제별 글쓰기 활동, 토론 및 역할극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 *2022*년 *7*월 *18*일(월) / *9*월 *14*일(수)
- 총 *2*회, 지역 청소년 *40*명 참여

꿈이 자라는 어린이스토리텔링

마인드맵 훈련, 스토리 텔링 등을 통한 자유로운 글쓰기 훈련 프로그램

- *2022*년 *9*월 *6*일(화) ~ *9*월 *27*일(화)
- 총 *4*회, 초등생 *60*명 참여(등록인원 *15*명)

<행복한 작가 생활> 원유순 작가와의 만남

『특명 엄마를 화해시켜라』사전 독후활동을 바탕으로 원유순 작가와 강연, 질의응답을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5*월 *21*일(토)
- 총 *1*회, 초등생 *20*명 참여
- 참여명사: 원유순 작가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소통으로 이루어진 관계

작가로서 책으로 둘러싸인 도서관에서 공간을 확보하며 창작할 수 있는 상주작가 사업은 꽤 매력적이다. 그런 매력적인 일을 *2018*년도에 이어 *2022*년에도 동대문 답십리도서관에서 두 번이나 할 수 있었다. 사실 *6*개월 동안 창작활동을 비롯해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며 성과를 내는 일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성과에만 부담을 갖기보단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도서관 직원들,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애를 썼다.

도서관에서 원만하게 지냈던 방법으로 작가와 사서들과의 관계를 꼽을 수 있다. 답십리도서관은 수서실이라는 공간에서 두 명의 사서와 작가가 종일 지내야 하기에 사실 *1*인 작업공간은 아니었다. 간혹 사소한 대화들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독려하며 지냈다. 상주작가 담당사서와도 대화를 통해 도서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작가는 필요한 책과 자료가 있을 때, 사서는 작가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달했다. 작가가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절충하며 행복을 꿈꾸는 동화창작교실, 인생 한 걸음씩 필사 공감, 꿈이 자라는 어린이스토리텔링, 청소년 한 책 토론하기 등 책을 읽고 글쓰는 일을 위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지역 주민들도 도서관에서 작가를 접하면서 문학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다시 관계도 중요했다. 문학을 통해 주민들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편안하게 다가갔다. 프로그램마다 카톡방을 만들어 과제 및 전달사항이 있으면 자주 소통하며 지냈다. 혹여 문학 관련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간의 예의를 지키며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소통방식은 주민들에게도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문학에 대한 열망과 관심은 언제 어디서든 지속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두 번째 동화창작 문집 역시 코로나 및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간 내에 제작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참여자들이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독려하며 한편의 동화를 쓰기까지 최선을 다해주었다.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문집파티를 핑계로 다시 한번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때 참여자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사실 두 번이나 상주작가를 했음에도, 답십리도서관에 출퇴근할 때가 여전히 그립다. 아침마다 미소로 인사를 나눈 직원들, 프로그램 할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준 주민들을 잊지 못한다. 상주작가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식구들과 적극적으로 활동해준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상주작가
백은하



서울

구립증산정보도서관

*2008*년 설립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5*길 *6*
02–307–6030
http://www.jsplib.or.kr/

구립증산정보도서관은 지역민들의 정보·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꿈과 희망, 상상의 나래를 맘껏 펼치는, 행복을 꿈꾸는 도서관으로 발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 특성화 사업 <달려라, 증산!>, 독서달리기대회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지원합니다. 구립증산정보도서관은 모든 구민에게 앞서가는 평생 교육의 장, 지역 정보화를 선도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립증산정보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손현주

청소년 소설 | *2008*년 등단

[국제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엄마의 알바」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당신의 남자」로 문학사상 신인상, 「두 시간」으로 토지문학제 평사리문학대상, 『불량 가족 레시피』로 제*1*회 문학동네 청소년문학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가짜 모범생』, 『헤라클레스를 훔치다』 외 다수의 집필 작품이 있다.





❶ **가짜 모범생** 특별한서재, *2021*
❷ **도로나 이별 사무실** 은행나무, *2020*
❸ **불량 가족 레시피** 문학동네, *2011*

구립증산정보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나로 채우는 에세이, 우리 에세이 써볼래요

상주작가의 에세이 창작 강의를 수강하고 직접 글을 써서 문집을 발간하는 프로그램

- *2022*년 *5*월 *10*일(화) ~ *8*월 *16*일(화)
- 총 *9*회, 성인 *76*명 참여

초등 글쓰기 비밀수업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갈래 글(생활문, 독후감, 기행문 등)을 함께 작성해 보는 글쓰기 프로그램

- *2022*년 *8*월 *16*일(화) ~ *8*월 *23*일(화)
- 총 *3*회, 초등생 *38*명 참여

가정의 달 기념 학부모 작가 특강

상주작가의 저서『가짜 모범생』을 주제도서 삼아 학부모들의 진로 고민을 함께 해소해 보는 작가 특강 프로그램

- *2022*년 *5*월 *18*일(수)
- 총 *1*회, 지역 학부모 *18*명 참여

독서의 달 온 가족 북 콘서트

상주작가의 저서『불량가족 레시피』,『싸가지 생존기』 등을 주제도서로 하는 가족 대상 북 콘서트 프로그램

- *2022*년 *9*월 *18*일(일)
- 총 *1*회, 지역주민 *54*명 참여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 특강

상주작가의 저서『가짜 모범생』을 주제도서로,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작가 특강 프로그램

- *2022*년 *6*월 *16*일(목) ~ *7*월 *18*일(월)
- 총 *2*회, 지역 중등생 *36*명 참여

상주작가 초청 특강 – 나도 *6*분만에 소설가 되기

상주작가 초청으로 만나는『*6*분 소설가 하준수』의 이수용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9*월 *24*일(토)
- 총 *1*회, 초등생 *12*명 참여
- 참여명사: 이수용 작가

상주작가 초청 특강 – 김동식 작가의 초단편 소설쓰기

상주작가 초청으로『초단편 소설 쓰기』의 저자 김동식 작가와 만나는 작법 강연 프로그램

- *2022*년 *8*월 *2*일(화)
- 총 *1*회, 성인 *20*명 참여
- 참여명사: 김동식 작가

온라인 북큐레이션

매월 상주작가의 추천도서 글을 홈페이지 게시하거나 메일링 서비스로 전달하는 북 큐레이션

- *2022*년 *4*월 ~ *9*월
- 총 *6*회, 지역주민 *1,286*명 참여

구립증산정보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영혼의 무게를 알아가는 시간

도서관 상주작가 프로그램에서의 매력은 언제나 내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는 점이다. 늘 혼자 글을 쓰는 작가로서 현장에서 독자들과 만남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셈이다. 청소년 소설을 쓰기 때문에 청소년 인문학을 기획해 보고 싶었다. 더구나 상주 작가 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은 더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은 성장 소설을 주로 쓰는 나로서는 청소년 독자들을 학교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 작가의 책을 가지고 소통하는 자리라서 더 신이 났던 시간이었다. 나 역시 청소년 독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어 소설 창작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또 다른 기획으로는 '나로 채우는 에세이 쓰기'였다. 에세이는 일상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민들과 관계를 맺기가 수월한 장르였다. 도서관이 작은 스피커 역할을 해줌으로써 회원들을 모으고 작가와 소통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다양한 사람들과 에세이 수업을 통해 만나는 설레임을 경험했다. 글쓰기가 처음인 분들이 여러 편의 글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열정으로 배우고 써 내려갔다. 회원들이 이야기를 풀어내며 마음에 상처로 긁힌 자국들을 드러냈고 또한 글을 쓰며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며 살아 숨 쉬는 따뜻한 삶에 대한 애착을 보았다. 그들 스스로 성장했다는 마지막 말들을 통해 서로에게 용기를 주었다.

글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파동이었다. 글쓰기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만든다.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 사람들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했다. 물결이 센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를 다시금 보게 하는 그런 자리였다. 글쓰기를 통해 모두가 영혼의 무게를 알게 된 계기였다. 더구나 몇 년 전 다른 도서관 수업에서 만났던 회원분을 이곳에서 다시 만나며 문학이 끈이 되어 다시 돌고 돌아 그리운 얼굴들을 보는 기쁨도 있었다. 아마도 도서관 큐레이터로 상주하며 남는 추억일 것 같다. 또한 초등 글쓰기 특강으로 '글쓰기 비밀 수업'을 고학년 대상으로 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갈래 글을 가르쳤는데 반응이 좋았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로 오랜 세월 살아온 나로서는 직장인처럼 *6*개월을 살아보는 경험은 무엇보다도 큰 수확이었다. 직장인이라고는 하지만 작가의 창작실로 출근이었다. 도서관 직원들과의 관계성,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도 그 안에서 직접 눈으로 보며 작가로서 삶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작가들에게 이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는 사업들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

구립증산정보도서관 상주작가
손현주



서울

은평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2015*년 *11*월 설립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3*길 *29–23 (*구산동 *17–33)*
02–357–0100
https://www.gsvlib.or.kr/

은평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책으로 누리고 정보로 어우러지는 열린 공동체'의 비전을 중심으로 *2015*년 *11*월 개관했습니다. 은평구 주민이 거주하던 *8*채의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지은 이 독특한 도서관은 마을을 위해 활동해 온 다섯 단체가 한데 모여 '은평도서관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였으며 도서관을 설립하는데 큰 역할을 해내기도 하였습니다. 구산동도서관마을은 특히 #청소년, #마을, #만화에 중점을 둔 특색있는 컨셉 운영으로 이용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은평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상주작가 소개

차현지

소설 | *2011*년 등단

*201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미치가 미치(이)고 싶은』이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트랙을 도는 여자들』이 있다. 문예지, 앤솔러지, 웹진, 오디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주로 여성들의 삶을 다루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❶ **트랙을 도는 여자들** 다산책방, *2021*
❷ **엄마에 대하여 (앤솔로지 공저)** 다산책방, *2021*
❸ **이 사랑은 처음이라서** 다산책방, *2020*

은평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나를 드러내는 글쓰기

‘자전적 경험’을 픽션기법으로 다루어 기억을 재창조하고 기록하는 글쓰기 수업

- *2022년 5월 20일(금) ~ 6월 24일(금)*
- 총 *6*회, 성인 대상

박산호 작가와의 만남

‘번역가’에서 ‘소설가’로 변신한 박산호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9월 28일(수)*
- 총 *1*회, 지역주민 대상

더 나은 내가 되는 글쓰기

자신의 장점을 돋보이게 부각하고 단점은 개성으로 재발견하게 돕는 글쓰기

- *[1기] 2022년 7월 22일(금) ~ 29일(금)*
  [2기] 2022년 8월 3일(수) ~ 10일(수)
- 총 *4*회, 청소년 대상

‘나를 드러내는 글쓰기’ 문집 발간

‘나를 드러내는 글쓰기’ 수강생들의 다채로운 창작 글을 문집으로 엮는 강좌

- *2022년 8월 1일(월) ~ 9월 6일(화)*
-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작가와의 만남 – 그럼에도 우리는 쓰기를 멈추지 않고

‘기록’과 ‘창작과정’을 주제 삼아 함께 만나는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7월 30일(토)*
- 총 *1*회, 지역주민 대상
- 참여명사: 박민정 소설가

‘한국 소설 함께 읽기’

『바비의 분위기』, 『눈으로 만든 사람』, 『우리는 같은 곳에서』, 『날마다 만우절』, 『마음에 없는 소리』 *4*권의 선정도서를 읽고 질의·토론으로 작품 세계를 나누는 프로그램

- *2022년 5월 ~ 9월*
- 지역주민 대상

작가와의 만남 – 그럼에도 우리는 쓰기를 멈추지 않고

‘쓰는 순간’을 주제로 진행하는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8월 27일(토)*
- 총 *1*회, 지역주민 대상
- 참여명사: 조우리, 천희란 소설가

은평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상주작가 에세이

도서관상주작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내게 주어진 집필 공간과 더불어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읽고 쓰는 것에 대해 나눌 수 있었다. 책도 많이 읽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문장에 밑줄을 그을 수도, 페이지의 여백에 짧은 메모를 적을 수도 없었지만, 그래서 더 집중하려 하고, 마음에 드는 글귀가 있다면 여러 번 입말로 곱씹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노트를 꺼내어 받아 적기도 했다. 혹시나 흠집이 나거나 종이 귀퉁이가 접히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책을 돌려 읽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했다.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선물을 주는 것처럼 설레고 떨리고, 그리하여 뜻깊어지는 마음에 대해서.

도서관은 한 권의 책을 돌려 읽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이다. 개관 시간에 딱 맞춰 등장해 자신만의 지정석을 만들어가듯 매일 앉던 자리에 짐을 풀던 사람들, 볕이 쨍쨍한 한낮에 서가를 훑다가 멈추고, 책을 꺼내어 서문이나 작가 소개를 읽고, 추천사나 작가의 말을 보면서 읽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들고 있던 색색의 에코백들. 발꿈치를 들고 걷는 듯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책과 책 사이를 휘젓고 다니던 사람들. 원형 테이블에 앉아 도서관 문이 닫기 전까지 끝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 읽어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종내에는 내일을 기약하며 다음 페이지를 남겨두고 퇴장하는 것까지.

사업을 하면서 도서관을 오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가장 좋았다. 책을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고요하게 소요하는 장면 같은 것. 작년을 되돌아볼 때 자주 그리게 될 풍경이었다. 누군가가 보고 있던 그 장면 속에 나 또한 책과 책 사이를 움직이며 혹은 아주 두껍고 너른 한 권의 책 속에 파묻혀 있다는 감각으로 얼마간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도. 읽고 싶던 책과 읽다 만 책, 다 읽은 책에게 품은 애정을 다음 사람에게도 슬쩍 내비치고, 책의 페이지마다 조금씩 깃들어 있는 애정을 들여다보는 일. 도서관에서만 느낄 수 있던 느슨하고도 유순한 이어짐. 소설을 쓸 때마다, 그 유순한 이어짐의 상태를 나는 자주 떠올릴 것이다.

은평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상주작가
차현지



서울

가온도서관

*2008*년 설립
서울 중구 동호로*14*길 *18*
02–2230–2921
https://www.junggulib.or.kr/

중구통합도서관의 대표도서관인 가온도서관은 중구구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식정보, 문화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2*년에는 열람실의 공간을 북 카페로 리모델링하여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마을 공론장 운영, 서비스 제공 등으로 독서 공간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생활 밀착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하고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및 협력하여 새로운 지역 문화 거점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온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장수양

시 *2017*년 등단

*1991*년 안양 출생. *2017*년 *[*문예중앙*]* 신인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손을 잡으면 눈이 녹아』, 문보영 시인과 함께 시와 삶을 나눈 대화집 『토끼는 언제나 마음속에 있어』, 『도넛 시티』 등을 펴냈다.





❶ **손을 잡으면 눈이 녹아** 문학동네, *2021*
❷ **토끼는 언제나 마음속에 있어** 마음산책, *2022*
❸ **도넛 시티** 은행나무, *2020*

가온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친절한 거짓말 시 쓰기

거짓말하기, 필명 만들어 보기, 반말하기 등 다양한 수업론을 활용한 시 창작 수업

- *2022*년 *5*월 *12*일(목) ~ *6*월 *30*일(목)
- 총 *8*회, 성인 *69*명 참여

시인이 추천하는 상황별 컬렉션「소규모 서재」

상주작가가 추천하는 주제 도서를 도서관 및 온라인 컬렉션으로 전시, 홍보

- *2022*년 *5*월 ~ *9*월
- 총 *10*회, 지역주민 및 도서관 이용자 대상

가로지르는 글쓰기 *3*부작

상주작가 및 외부작가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설, 시 창작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7*월 *7*일(목) ~ *9*월 *29*일(목)
- 총 *16*회, 성인 *95*명 참여
- 참여명사 : 한주연, 서이제 작가

시인이 추천하는 이주의 시「시스탠드」

상주작가가 추천하는 시인의 시 구절을 손 글씨로 적어 선보이는 전시

- *2022*년 *5*월 ~ *9*월
- 총 *20*회, 지역주민 대상

문학산책 – 문보영, 장수양 작가와의 대화

공동집필 신간『토끼는 언제나 마음속에 있어』출간 기념 북토크&공연

- *2022*년 *8*월 *27*일(토)
- 총 *1*회, 지역주민 *46*명 참여

시인의 신문 스크랩「북스크랩」

도서관 이월 신문에서 책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여 선보이는 상설 전시

- *2022*년 *4*월 ~ *9*월
- 지역주민 대상

시인의 책 처방 프로그램「*N*월의 책략」

상주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개인맞춤형 책 처방 프로그램

- *2022*년 *6*월 *24*일(금) ~ *7*월 *22*일(금)
- 총 *5*회, 지역주민 *6*명 참여

가온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나를 시인으로 만드는 건

상주작가가 되기 전까지 나는 시인으로서 누군가 앞에 나서는 일이 적었다. 시는 어디까지나 '좋아하는 것'이었지 직업은 아니었기에 발표를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인이라는 말이 어색하기만 했다. 처음 도서관에 왔을 때 "장수양 시인님", 혹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도 부끄러웠다. 가온도서관의 관장님과 사서분들의 상냥함과 배려 덕분에 차츰 나는 그 누군가의 입에서 "시인님" 혹은 "선생님"이 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그것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되고 싶은 시인, 상주 작가. 그것은 잘 맞는 책을 추천해 줄 수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시와 관련하여 기분 좋은 에피소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항상 바라는 시를 쓰려고 했지 바라는 시인이 되려고 한 적 없었던 내게 이 일은 타인에 관한 깨끗한 관심을 길러 주었다.

나는 도서관에서만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몇 개 맡아서 하면서 이 장소에 적응하고 싶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서 분들이 맡겨 주신 일이 신문 정리였다. 지난 신문을 모아서 지하층에 쌓고, 새 신문을 접어서 매거진랙 옆에 꽂아두는 일이다. 하루는 그날의 신문을 들고 *3*층 가온누리에 올라오는데, 매일 도서관을 찾는 익숙한 이용자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무뚝뚝하게 신문을 바로 가져가도 되냐고 물으셨다. 중절모를 쓴 백발의 남자였다. 표정은 험상궂었지만 매일 아침마다 부지런히 신문을 본다는 것, 사회의 소식을 지치지 않고 들으려 한다는 것이 내겐 아름다워 보였다. 신문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만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을 짜파게티처럼 볶은, 목에 스카프를 하고 다니는 여자분도 자주 신문을 기다리셨다. 다음날 신문을 정리하러 와보면 어제의 신문은 항상 반듯하게 접혀 있었다. 도서관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여는 첫 장이구나, 하고 흐뭇해졌다.

상주작가로 머물면서 나는 더 나이가 들면 도서관에 자주 오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다짐하게 되었다. 글을 쓰는 것, 그리고 누가 읽기를 바라는 것은 꽤 근사한 일이라고. 참 보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마도 가온도서관을 풍성하게 꾸려가는 사서 분들과 힘이 넘치는 이용자분들 덕분일 것이다. 지금도 우연히 탄 버스가 약수역을 스쳐 가면 저도 모르게 "도서관!"하고 외치게 된다. 기쁘고 그리운 탄성처럼 말이다.

가온도서관 상주작가
장수양



서울

중랑구립정보도서관

*1999*년 설립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15*길 *197*
02–3407–1111
www.jungnanglib.seoul.kr/jnlib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 제공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9*년 개관했습니다. 일일 *2,000*여명이 이용하는 중랑구 대표 공공도서관으로서 *20*여만 점에 이르는 도서관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책, 문화, 휴식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메타버스 도서관, 전자책,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학술*DB* 등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개발하여 '책 읽는 도시, 중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전성현

아동문학 | *2009*년 등단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어 활동을 시작하였고 *[*잃어버린 일기장*]*으로 창비 '좋은어린이책' 대상을 수상했다. 지은 저서로는 『사이렌』, 『두 개의 달』, 『어느 날, 사라진』, 『일 년 전 로드뷰』와 함께 쓴 책 『지구 불시착 외계인 보고서』 등이 있고 청소년 소설 『데스타이머』가 있다.





❶ **데스타이머** 사계절, *2022*
❷ **일 년 전 로드뷰** 별숲, *2021*
❸ **잃어버린 일기장** 창비, *2011*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내가 쓰고 싶은 동화

동화에 대한 이론과 창작을 배우는 글쓰기 창작 입문 프로그램

- *2022*년 *5*월 *24*일(화) ~ *6*월 *14*일(화)
- 성인 *35*명 참여

작가와 만나는 토요일

매월 마지막 토요일, 상주작가의 추천도서를 읽고 작가와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 *2022*년 *5*월 *28*일(토) ~ *9*월 *24*일(토)
- 지역주민 *74*명 참여

어린이 문학의 힘

상주작가와 다양한 어린이 문학을 살피고 단편동화를 써보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9*월 *6*일(화) ~ *9*월 *27*일(화)
- 성인 *34*명 참여

예술 톡 놀이터

문학·미술·무용·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과 함께하는 예술 치유 워크숍

- *2022*년 *6*월 *23*일(목) ~ *8*월 *6*일(토)
- 청소년, 자녀를 둔 성인 여성 등 *65*명 참여

작가의 우체통

상주작가와 이용자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6*월 *2*일(목) ~ *9*월 *24*일(토)
- 지역주민 *8*명 참여

작가와 만나는 시간

상주작가와 직접 만나 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9*월 *22*일(목) ~ *9*월 *23*일(금)
- 어린이 및 청소년 독서동아리 *13*명 참여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예술이 함께하는 도서관

설레는 마음으로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상주작가가 된 뒤 한 달간은 원고를 쓰며 틈틈이 도서관 공간과 업무, 이용자들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참여율이 낮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좀더 많은 이들이 도서관을 즐거운 공간으로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상주작가로서의 목표가 되었다.

온라인으로는 <작가의 북큐레이션>과 <작가의 우체통>을 통해 이용자들과 소통을 이어갔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면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동화창작 강좌>를 개설했다. 동화 입문반과 기초반으로 나누어 *4*주 차씩 수업을 진행했고 신청자들이 동화를 쓰면서 책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작가와 만나는 토요일>이 진행되었다.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토요일 오후로 강연 시간을 잡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내가 먼저 동화책으로 이용자들과 만났고, 이후 시인과 소설가를 초대해 작가와의 만남을 이어갔다. 다양한 장르의 문학에 관심이 있었던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한다.

세 번째 마련한 프로그램은 미술, 무용, 공연 장르의 예술인들과 함께 준비한 <예술 톡, 놀이터>다. 코로나*19*가 지나는 시기였던 만큼 힐링할 수 있는 예술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타 기관에서 예술치유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던 예술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참여도가 낮은 청소년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4*회차씩 '예술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문화교실은 앉아서 듣고 보기만 하던 공간에서 예술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용자들은 소금 만다라와 액션페인팅 등의 예술 활동을 하며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해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체험했다.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며 도서관이 문화예술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예술이 더해지고 더 많은 문화를 흡수한다면 소수만 이용하는 도서관이 아닌 우리 모두의 도서관으로 역할을 확장해 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상주작가
전성현



인천

소래도서관

*2011*년 설립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793*
032–453–5940
https://www.namdonglib.go.kr

소래도서관은 지역민들에게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정보문화 커뮤니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을 분석하고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은 관계자들이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 책 읽기 독서운동, 북스타트, 문화가 있는 날, 정보취약계층 프로그램, 다문화 서비스,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등 지역민들이 계속해서 참여하고 사고의 확장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서 기획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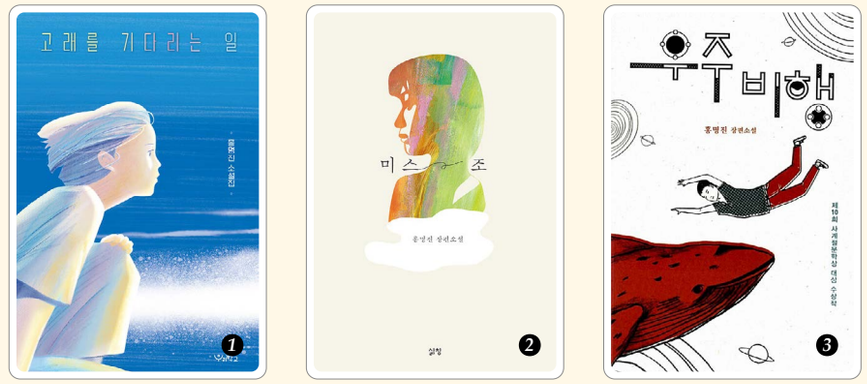
소래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홍명진

소설 | *2008*년 등단

*2001*년 전태일문학상을 받고, *2008*년 *[*경인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2011*년『우주 비행』으로 사계절문학상을 받으며 청소년 소설도 쓰기 시작했다. 장편소설『숨비소리』, 청소년 장편『우주 비행』, 단편집『터틀넥 스웨터』 공저『콤플렉스의 밀도』를 비롯해 다수의 글을 썼다.





❶ **고래를 기다리는 일** 우리학교, *2022*
❷ **미스 조** 삶이보이는창, *2021*
❸ **우주비행** 사계절, *2012*

소래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상주작가가 들려주는 책 한 줄

상주작가의 '추천도서'와 책 속 '한 구절'을 소개하는 문학 큐레이션 프로그램

- 2022년 5월 10일(화) ~ 9월 11일(일)
- 총 16회, 도서관 이용자 대상

어린이 작문교실

아이들과 상주작가가 함께 다양한 장르의 글을 직접 창작해 보는 작문 수업

- 2022년 7월 12일(화) ~ 8월 30일(화)
- 총 7회, 초등생 72명 참여

창작산실 : 소설창작반

소설의 '창작'과 관련된 다양한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는 강좌 (창작, 합평 등)

- 2022년 5월 12일(목) ~ 7월 7일(목)
- 총 12회, 성인 120명 참여

도서관 문학 축제

지역작가들과 함께하는 인천 도서관 문학 축제 (음악 낭독극, 공연, 북 큐레이션, 도서추첨 등)

- 2022년 9월 24일(토)
- 총 1회, 지역주민 22명 참여
- 참여명사 : 이설야 시인, 이재은 소설가, 김인자 그림책 작가

인천을 돌아보다

상주작가와 함께 지역을 탐방하고 관련 에세이를 창작해 보는 문학 활동

- 2022년 7월 2일(토) ~ 8월 20일(토)
- 총 8회, 지역주민(성인) 총 70명 참여

상주작가의 서재

상주작가의 저서와 '추천도서'를 전시하는 문학 큐레이션 프로그램 (총 35권 전시)

- 2022년 4월 ~ 9월
- 지역주민, 도서관 이용자 대상, 176회 대출

소래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오래된 추억이 있는 소래

6개월간 근무한 소래도서관은 나와 인연이 깊은 지역에 있었다. 30여 년 전 신혼 시절을 보낸 곳이 소래포구였다. 그곳에서 산 5년의 시간은 내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이후에 소래 지역은 도시개발 정책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소래도서관은 그 시절엔 없던 '산물'이다. 도서관을 찾아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던 기억이 새롭다. 오래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인선, 그 옛이야기를 찾아 옛이야기를 찾아 소래 주민들과 다시 나눠보고 싶었다. 주력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도 바로 '내 고장 이야기 찾기'였다. 소래 지역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원주민들의 이야기와 새로 들어온 이주민들이 바라보는 현재의 소래를 담는 작업이었다. 참여자들과 수인선 협궤열차의 흔적을 찾아보고, 소래습지생태공원, 역사적인 유적지를 탐방한 후 체험 글을 써서 소책자를 만들어 낸 게 가장 큰 성과물이다. 그 외에도 소설창작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신청자가 폭주해, 8회차를 준비했다가 4회차를 연장해 총 12회차까지 이어졌다. 기존에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독서모임이라든가 일회성 작가 초청 프로그램과는 달리 상주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창작 실기 강의는 신선하고 의미 있는 수업이었다고 참여자들은 말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기억에 남은 또 하나는 지역의 경로당과 연계한 '어르신들을 위한 문학 이야기'였다. 소래도서관은 구립이라 관내 유관기관과 행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상주작가와 도서관 담당 주무관이 경로당을 방문해 진행했다. 어르신들이 친목과 휴식을 위해 이용하는 노인정에서 뜻깊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이솝우화』,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등의 문학작품으로 상주 작가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상주작가가 작품을 소개하고, 발췌한 문장을 어르신들이 소리 내어 읽기도 하고, 경험담을 토대로 독서 후기를 나누는 시간은 생각 외로 호응이 좋았다.

도서관은 '죽어 있는 책들의 저장고'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살아 있는 거대한 '책들의 도가니'이지 않을까? 방문자가 흥미를 갖고 찾을 수 있는, 지역 문화의 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서관이 되기 위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소래도서관 상주작가
홍명진



전남

하늘을나는도서관

*2012*년 설립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1–9*
063–290–2243
https://cafe.daum.net/mokpo–fly.sky.lib

하늘을나는도서관은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목포지회 부설 도서관으로 *1999*년 모임을 시작하였고 *2012*년 현재 위치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마을 공동체의 연결고리가 되어 따뜻한 애정과 서로에 대한 묵묵한 믿음으로 도서관을 가꿔가는 중입니다. 주요 사업인 초·중등생 대상 장기 대출 프로그램, '책문화잔치' '찾아가는 도서관', 성인 독서동아리 운영 등으로 지역 아동 청소년들의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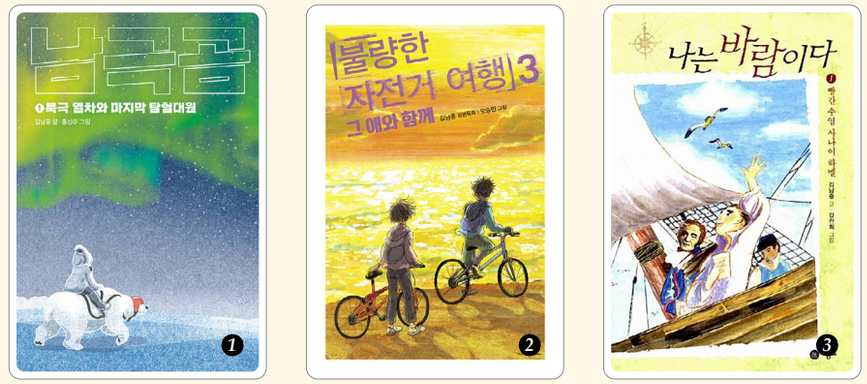
하늘을나는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김남중

아동문학 동화 *1998*년 등단

여행과 모험이 가장 좋은 공부라고 믿는 동화작가이다.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하고 『불량한 자전거 여행』(전 *3*권)을, 범선으로 바다에 나가 『나는 바람이다』(전 *11*권)를, 반달곰이 사는 지리산 아래 마을에서 『산속 작은집 벽장에』를 쓰고, 쇄빙선으로 북극 여행을 다녀와 『남극곰』(전 *2*권)을 집필했다.





❶ **남극곰** 문학동네, *2023*
❷ **불량한 자전거 여행 *3*** 창비, *2023*
❸ **나는 바람이다** 비룡소, *2013*

하늘을나는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나도작가다 – 동화창작반

동화문학의 전반적인 이론강의를 진행하고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는 글쓰기 창작 프로그램 (동화집 발간)

- *2022*년 *5*월 *9*일(월) ~ *9*월 *26*일(월)
- 지역주민 *4*명 참여

『나는 바람이다』 작가와의 북토크

학부모와 자녀가 『나는 바람이다』 완독 후 작가의 강연을 듣고 다양한 문학적 소견을 나누어 보는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6*월 *13*일(월)
- 총 *1*회, 초등생 및 학부모 *21*명 참여

나도작가다 – 포토에세이반

지역 내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찍고 관련된 추억을 에세이로 작성해 보는창작 프로그램 (포토 에세이집 출간)

- *2022*년 *6*월 *14*일(화) ~ *9*월 *27*일(화)
- 지역주민 대상

『멋져 부러 세발자전거』 – 작가 선생님 궁금해요

지역 초등학교 '*1*인 *1*책 읽기' 프로그램과 연계한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7*월 *25*일(월)
- 총 *1*회, 지역 초등생 *25*명 참여

『기찻길 옆동네』 – 김남중 작가와의 만남

동화 『기찻길 옆동네』를 중심으로 지역 중학생과 상주작가가 만나는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 *2022*년 *5*월 *18*일(수)
- 총 *1*회, 중학생 *28*명 참여

『불량한 자전거 여행』 – 강따라 바다까지 자전거 여행

작가와 목포, 담양 지역을 *1*박 2일간 종주하고 강연/이야기를 나누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8*월 *13*일(토) ~ *8*월 *14*일(일)
- 총 *1*회, 초등생 및 학부모 *20*명 참여

『기찻길 옆동네』 – 김남중 작가와 함께하는 역사기행

지역 중학생과 상주작가가 함께 『기찻길 옆동네』 작품 배경 장소를 직접 방문해 보는 유적지 기행

- *2022*년 *5*월 *21*일(토)
- 총 *1*회, 중학생 *20*명 참여

*[*이달의 동화작가*]* – 김남중 작가와의 인터뷰

작가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도서관 온라인 카페 및 인스타그램 게시)

- *2022*년 *9*월 ~ *10*월
- 지역주민 및 *SNS* 방문자

박효미 작가 초청강연

소재 찾는 법, 작가의 경험이 글쓰기로 이어지는 방식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5*월 *30*일(월)
- 총 *1*회, 지역주민 *18*명 참여
- 참여명사 : 박효미 작가

하늘을나는도서관 인터뷰

여러 그림책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도서관 *SNS*로 배포

- *2022*년 *4*월 ~ *10*월
- 총 *1*회, 지역주민 및 *SNS* 방문자
- 참여명사 : 강경수, 김동수, 안녕달 작가

하늘을나는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그 여름, 목포와 나

목포『하늘을 나는 도서관』에서 상주작가로 머물렀다. 문학기행, 학교 강연, 자전거 여행, 동화 창작반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포토 에세이 창작반이 특히 기억난다.

동화 창작 지도는 어려울 게 없지만 사진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여전히 구형 폴더폰을 쓰고 있는 터여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DSLR*뿐 아니라 스마트폰 또한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배워야 할 입장이었다. '사진 특강을 따로 받아?', '전문가와 나눠서 강의를 진행해 볼까?' 고민했지만 외부에 의존하는 것도 상주작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았다.

예술은 형식만 다르게 표현될 뿐 본질은 한 편의 이야기다. 사진 역시 한 컷에 이야기 하나를 압축한 예술로 보고 그걸 더 선명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에세이를 활용하도록 프로그램의 방향을 잡았다. 개발되지 않은 목포의 구도심으로 정기적인 출사를 나갔고 스마트 폰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 합평회를 열었다. '내 안의 무엇 때문에 그 사진을 찍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촬영자의 삶과 사진에 담긴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 접점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사진을 다듬고 제목을 붙이고 에세이를 썼다.

솔직하고 담담한 글과 사진이 매주 더해져 종강 뒤에는 저마다의 삶과 추억이 어린 목포를 담은 포토 에세이 작품집『그 여름, 목포와 나』를 내게 되었고 그 말미에 이렇게 썼다.

우리가 뜨겁게 보낸 *2022*년의 여름방학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방학숙제로 모은 사진과 글들을 보며 이 여름을 오래 추억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저마다 마음속 큰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있노라면 어디선가 옛 친구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내 삶에 '참 잘했어요.' 도장을 스스로 찍어주세요. 스스로에게 해주는 칭찬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상입니다.

바쁘고 즐겁고 뜨거웠던 *2022*년의 여름이었다.

하늘을나는도서관 상주작가
김남중



전남

전라남도립도서관

*2012*년 설립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10*
061–288–5200
https://lib.jeonnam.go.kr/

전남도립도서관은 도민 강좌, 작가와의 만남, 이동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소외 계층없이 다수의 지역민이 독서를 통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시설로 어린이책나라, 남도자료실, 장애인자료실, 일반·외국어자료실, 간행물실, 문학자료실, 디지털자료실을 갖추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맞춘 독서 프로그램, 올해의 책 선정, 지혜의 숲 도민 강좌 등으로 지역민을 만나 소통합니다. 다양한 책을 매개로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립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박성민

시 시조 평론 *2009*년 등단

전남 목포 출생. 중앙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 *[*전남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2009*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조가 당선되어 등단. 저서 『쌍봉낙타의 꿈』, 『숲을 숖으로 읽다』가 있다. 가람시조문학상 신인상, 오늘의시조시인상 등을 수상했으며 서울문화재단 창작기금을 수혜했다.





❶ **어쩌자고 그대는 먼 곳에 떠 있는가** 시인동네, *2020*
❷ **숲을 숖으로 읽다** 고요아침, *2016*
❸ **쌍봉낙타의 꿈** 고요아침, *2011*

전라남도립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시를 읽고 쓰는 그대에게

상주작가와 함께 좋은 시를 이해하고 시 쓰기 기초이론을 배워 써보는 시 창작 프로그램 (입문)

- 2022년 5월 13일(금) ~ 7월 8일(금)
- 총 5회, 성인 50명 참여
- 참여명사 : 염창권 교수

쓰는 사람 되기 30일 프로젝트

상주작가의 글쓰기 팁을 듣고, 매일 1줄 쓰기 실천으로 '글쓰기 루틴'을 만들어 보는 문학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

- 2022년 9월 1일(목) ~ 9월 19일(월)
- 총 12회, 성인 180명 참여

당신도 시를 잘 쓸 수 있다

실제 시 창작 과정을 배우며 자작시를 써보고 결과물을 문집으로 발간하는 문학 프로그램 (심화)

- 2022년 7월 22일(금) ~ 9월 16일(금)
- 총 5회, 성인 87명 참여
- 참여명사 : 황지우 시인

상주작가가 전하는 시와 책 속 문장

상주작가가 추천하는 시, 또는 밑줄 긋고 싶은 문장과 편지글을 독자에게 전하는 문학 큐레이션 프로그램

- 2022년 4월 ~ 9월
- 총 12회, 지역주민 대상

상주작가와 함께 여행 에세이 쓰기

여행을 주제로 에세이 쓰기를 익혀 직접 글을 써보는 창작 프로그램

- 2022년 7월 12일(화) ~ 9월 30일(금)
- 총 10회, 성인 136명 참여
- 참여명사 : 이수명 시인, 김수형 시인

전라남도립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문학으로 전남도민들의 '마음을 그리다'

전남도립도서관 상주작가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남도민들의 문학적 감수성을 고양하고자 했다. 특히 시 쓰기 강좌는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시를 쓰고 읽는 그대에게 <시 창작 입문 과정>에서 시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과거의 문학소녀, 문학소년들–지금은 중년이나 노년이 되었지만 15명을 대상으로 시 창작의 기초 이론과 실제 시 쓰는 법을 지도해 주고 개별적으로 첨삭지도를 하나하나 해주었다. 매주 정성껏 피피티와 동영상을 제작하고 15~20쪽의 프린트물을 나눠드리면서 재밌고 알차게 강의하려고 애썼다. 프린트물과 피피티에 수강생들의 수정된 시를 보여주고 어떤 부분이 좋다고 칭찬해 주면서 전체 수강생들의 박수를 유도하고, 이 부분은 왜 퇴고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퇴고하는지를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자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어떤 할머니는 너무 가난하고 앞만 보며 살아오느라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시를 그리워했는데, 이렇게 쓸 수 있어서 너무나 자신이 대견스럽고, 자신의 시를 누군가 애정으로 읽어주고 수정까지 해주어서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수강생들은 시에 재미를 붙여서 매주 2~3편씩 습작 시를 제출했다. 그분들의 시를 정성껏 첨삭하다 보면 강의하는 시간보다 피드백해 주는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시가 더 좋아진 모습에 마냥 행복해하고 집에 가서도 아들딸이나 손주들에게 자랑한다는 수강생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이 인원들은 그대로 시 창작 심화 과정인 <당신도 시를 잘 쓸 수 있다>로 이어졌으며 이 강좌에서의 결과물로 <마음을 그리다>라는 문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문집 발간식에서 발표하며 흐느끼는 분을 보면서 자신이 숨겨왔던 눈물과 상처를 진솔하게 풀어놓고 그 상처를 위무하는 것이 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시의 감동은 무엇보다 진정성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기도 했다.

전라남도립도서관 상주작가
박성민



전북

행복세상작은도서관

*2011*년 설립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15–7 1*층
063–856–2385
http://wkw.or.kr/bbs/content.php?co_id=special2

행복세상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과 아동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책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올바른 정서함양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올바른 독서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행복세상작은도서관에는 다양한 도서가 소장 되어 있으며 안내실, 도서열람실, 다목적 프로그램실, 상담회의실 등의 아늑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나 문턱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대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휴식 공간이자 배움, 놀이, 문화공간으로써의 작은 사랑방 역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행복세상작은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장마리

소설 | *2009*년 등단

*2009*년 단편소설 「불어라 봄바람」으로 문학사상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활동을 시작했고, 소설집 <선셋 블루스>, <존은 제인을 만났지만>, 장편소설 <블라인드>, <시베리아의 이방인들> 등을 펴냈으며 <시베리아의 이방인들>과 <존은 제인을 만났지만>은 각각 아르코 나눔도서로 선정되었다.





❶ **존은 제인을 만났지만** 실천문학사, *2022*
❷ **시베리아의 이방인들** 문학사상사, *2021*
❸ **선셋 블루스** 문학사상사, *2013*

행복세상작은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정토 소설쓰기

자신의 경험을 주제 삼아 글을 쓰고 그 결과물로 문집을 제작하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5월 10일(화) ~ 8월 10일(수)*
- *총 11회, 성인 6명 참여*

타로로 삶 읽기

타로카드와 상담에 대해 배우고 해석과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타로읽기'

- *2022년 7월 5일(화) ~ 9월 26일(월)*
- *총 10회, 성인 10명 참여*

에세이 쓰기

제시된 주제로 직접 글을 작성해 보는 '에세이 쓰기' 프로그램

- *2022년 5월 10일(화) ~ 6월 28일(화)*
- *총 8회, 성인 13명 참여*

작가와의 만남

작가가 되는 방법을 아동들과 대화로 나누는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6월 24일(금)*
- *총 1회, 초등생 60명 참여*

돌파하는 소설공부(동)

문학작품을 읽고 함께 토론하며 서로의 습작을 합평하는 프로그램

- *2022년 5월 8일(일) ~ 7월 16일(토)*
- *총 9회, 성인 5명 참여*

공감&북콘서트

관객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주작가 신작 중심 북콘서트

- *2022년 9월 30일(금)*
- *총 1회, 지역주민 55명 참여*

문학으로 시대읽기

근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도서 읽기, 근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읽고 토론하기

- *2022년 5월 21일(토) ~ 9월 30일(금)*
- *총 7회, 성인 8명 참여*

문화역사동아리 – 신리마을 사람들의 히스토리

어르신들의 삶을 청취하여 소설로 기술하는 문집발간&낭독회 프로그램

- *2022년 8월 23일(화) ~ 11월 15일(화)*
- *총 7회, 경로당 어르신 10명 참여*

고전통독 『금강경』

『금강경』을 다 같이 해석하여 읽고 나누며 이를 영상으로 송출하는 비대면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6월 13일(월) ~ 9월 26일(월)*
- *총 14회, 성인 10명 참여*

예술인지원사업 – 장마리 소설가

상주작가의 등단작품을 읽고 필사하여 작가를 이해하고 주제에 맞는 글쓰기를 진행해 보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9월 7일(수) ~ 10월 26일(수)*
- *총 7회, 성인 7명 참여*

행복세상작은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소통과 공감의 시간

전년도 이어 행복세상작은도서관 상주작가로 활동했다. 전년도 상주작가 사업이 종료되자마자 계획하고 있던 장편소설의 시놉을 쓰고자 담양에 있는 '글을 낳는 집'에 입주했다. 그런데 본 도서관으로부터 상주작가를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서둘러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서를 작성했고 면접을 거치고 합격 통보를 받았다.

전년도 상주작가 사업 때는 문집 제작이나 발표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사서와 함께 토로했었다. 만약 이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다면 문집을 제작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실행해보라고 했었다. 다시 선정됨으로써 사서와 함께 문학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에 방점을 두고 상주작가 사업에 임했다.

전년도 참여자들이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참 아쉽다, 등의 말을 했으므로 그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자 지인들을 데리고 문학 수업에 참여했으므로 회원 모집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전년도에 진행하려다 못했던 '정토'들과의 한뼘자전소설쓰기를 진행함으로써 종교인의 아내로서의 삶을 관찰하고 속마음을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복지관 소속의 작은도서관이므로 새로 들어온 신입 복지사들과 글쓰기를 해봄으로써 관계망 및 현실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남을 위한 삶을 산다는 삶'은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베풂과 나눔을 토대로 사는 교무의 아내인 '정토'와 '복지사'와의 글쓰기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다. 전년도에 맛만 봐서 아쉽다고 했던 에세이 참여자들은 심화 과정이라 표현 및 형식이 매우 세련됨으로써 완성도가 높은 습작품을 문집에 실을 수 있었다.

2년 연속 상주작가로 활동하면서 지역민에게 '소설가 장마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정산과 회계로 어려움이 많았을 사서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본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문학으로 지역민과 소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복세상작은도서관 상주작가
장마리



전북

정읍 기적의도서관

*2008*년 설립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5*로 *45–5*
063–539–6452
https://lib.jeongeup.go.kr/main/contents.do?PID=010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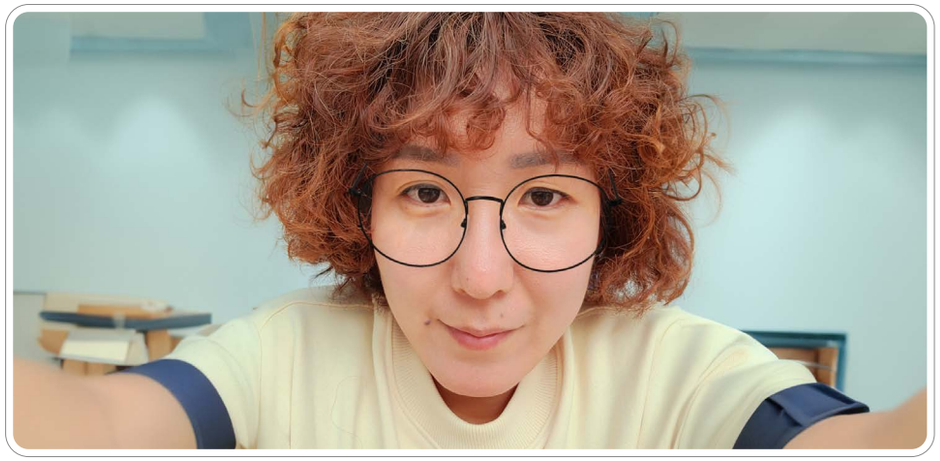
정읍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스한 인간으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공생윤리를 아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데 도움을 주고자 책을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과 가구는 모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설계되었으며, 대표 프로그램으로 '어깨동무 책 동무', '재미있는 책 놀이', '책 읽어주는 선배', 독서토론 교실, 작가와의 대화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다양한 고민과 방식으로 이용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읍 기적의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오혜원

아동문학 *2015*년 등단

동화『블랙리스트』로 '한우리 문학상 어린이 장편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고 첫 책을 출간하면서 동화를 쓰기 시작했다. 쓸모는 없지만 재미있는 공상을 마음껏 하기 위해 발걸음 닿는 대로 걷는 일을 좋아하며, 사랑하는 사라요엘과 쏘다니는 일도 무척 좋아한다. 지은 책으로는『생일을 훔치는 녀석』,『나나와 키키의 숨겨진 문』이 있다.





❶ **보랏빛소어린이** *2023*, 보랏빛소어린이
❷ **생일을 훔치는 녀석** 보랏빛소어린이, *2020*
❸ **블랙리스트** 스푼북, *2018*

정읍 기적의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상주작가와 함께 문해력 탄탄!

상주작가가 선택한 단편 글을 읽고 놀이, 신체 활동 표현, 글 표현 등을 진행하여 문집으로 발표하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5*월 ~ *9*월
- 총 *18*회, 초등생 *13*명 참여

상주작가와 만난 시민독서동아리

시민독서동아리와 일반동아리 구성원이 함께 상주작가와 책을 읽고 나누는 독서 모임

- *2022*년 *6*월
- 시민독서동아리 *10*명 참여

상주작가가 찾아가는 책읽기

작은도서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상주작가가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책 읽기 프로그램

- *2022*년 *7*월 ~ *9*월
- 총 *19*회, 초등생 대상

문학 큐레이터 활동

작가 추천도서, 도서관 특색에 맞는 도서, 작가의 키워드 *Pick up* 도서 등을 전시하는 북 큐레이션 프로그램

- *2022*년 *4*월 ~ *10*월
- 총 *7*회, 지역주민 대상

(상주작가와 함께) 가족이 함께 만드는 그림책

다양한 주제로 미술강사와 상주작가, 참여가족이 함께 만드는 그림책 제작 프로그램

- *2022*년 *6*월 ~ *8*월
- 총 *13*회, 지역주민(가족) *25*명 참여

정읍 기적의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읽기와 질문, 쓰기와 생각을 버무리는 범벅 도서관

도서관 상주 작가를 하는 동안 내내 '수업'에 대한 궁리를 했던 것 같다.

"글쓰기 수업을 어떻게 재미있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 창작품으로 연결해 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대상으로 했던 『문해력 탄탄!!』 수업 시간. *5*월부터 시작했던 수업은 상주작가 기간이 끝나는 *9*월까지, 길다면 긴 *5*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단편 읽기와 글감 쓰기로 구성된 수업이어서 *1*학년 아이들에게는 쓰기 자체가 벅찬 수업이기도 했지만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와서 읽고 쓴 덕에 글이 많이 모아졌다. 글은 아이들의 생생한 생활과 생각과 느낌이 담겨 혼자 읽고 말기는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아이들의 글을 문집으로 엮었고 단편을 읽으며 던졌던 질문과 아이들 나름대로 생각한 답을 모아 아이들과 부모님께 전해드렸다. *5*개월 동안 우리가 주말마다 만나서 무슨 수업을 했는지 알 수 있었던 부모님들도, 시간의 결과물들을 볼 수 있었던 아이들도 무척 흡족해 하며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수업이었다.

다른 수업을 소개하면 가족과 함께 쓰고 그리는 『가족 그림책 수업』은 원래는 가족당 *1*권의 책을 만들기로 했었던 수업이었다. 그런데 첫 시간부터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발표하면서 이야기가 많아지고 풍성해졌다. 그럼, 계획 변경! 각자의 이야기책을 창작해 보기로 했다. *3*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마음을 모아 작업한 덕에 *23*권의 예쁜 그림책이 완성되었다.

에피소드 하나를 떠올려 보면 수업 시작 전에는 꼭 전 주에 아이들이 쓴 글 몇 편을 *PPT*로 작업해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같은 글감으로 다르게 쓰는 서로의 글에 흥미를 느끼고 다름을 느꼈다. 또 '무서운 이야기' 짓기는 *2*부로 이어서 짓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바람으로 *2*차시를 진행하며 완성했고 무더운 여름날 다 함께 서로의 작품을 읽고 공포에 떠는 시간도 가졌다.^^

한 어머님이 "우리 딸이 작가가 꿈인데 글쓰기가 너무 재밌다고 해요. 작가님이 수업을 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런 응원의 동력으로 *6*개월 동안 내 작품을 집필하며 읽기와 질문, 쓰기와 생각을 버무려 어떤 범벅을 만들어 낼지 도서관에서 궁리하며 뒹굴거렸던 의미 있는 나날들이었다.

정읍 기적의도서관 상주작가
오혜원



제주

퐁낭작은도서관

*2016*년 설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56*
064–733–4682
https://www.smalllibrary.org/library/detail/1828483

서귀포 동홍동의 퐁낭작은도서관은 마을 사람들이 책을 곁들이며 쉬어가는 휴식처이자 담소를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언제나 마을 입구를 든든히 지키던 퐁낭처럼 사람을 품겠다는 마음을 도서관에 담았습니다. 다양한 공연, 어린이기자단, 할머니가 읽어주는 동화읽기, 영화상영, 인문학 특강 등 다양한 독서와 문화 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도서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에게 정보 및 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자발적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퐁낭작은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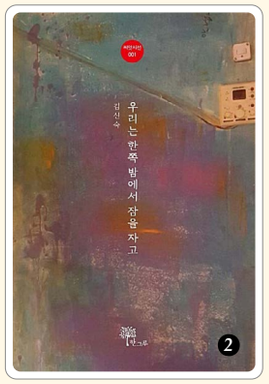
김신숙

시 2012년 등단

제주도 서귀포에서 태어나 자랐고 동시와 동화를 쓴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시옷서점'이라는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하룻강아지 어린이철학연구회, 인문놀이 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은 저서로는 시집『우리는 한쪽 밤에서 잠을 자고』, 동시집『열두 살 해녀』 등이 있다.







❶ **열두 살 해녀** 한그루, *2020*
❷ **우리는 한 쪽 밤에서 잠을 자고** 한그루, *2017*

퐁낭작은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고스트 북 클럽

글쓰기 수강생과 온라인 후원자의 편지–고서적 교환 과정을 통해 진행하는 세대공감 독서 프로젝트

- 2022년 5월 ~ 9월
- 어린이, 어른 대상

문학 큐레이터 활동

치유가 되는 문학 북 큐레이션, 상주작가 추천도서 서재운영하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4월 ~ 9월
- 지역주민 누구나

청소년 독서회 '나를' 진행

상주작가와 함께 읽을 책을 정하고 토론과 의견 나눔, 발표회 등을 진행하는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 2022년 4월 ~ 9월
- 청소년 대상

퐁낭작은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퐁낭 귓것과 함께 한 시간

퐁낭작은도서관은 서귀포 동홍동에 있다. 한라산을 뒤로 하고 태평양을 운동장 삼아 자리 잡고 있다. 서귀포 여행 중에 휴식하기 위해 잠시 들려도 좋을 곳이다.

퐁낭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단체 회원 중에는 작가들이 많다. 그래서 현재 관장과 사서 모두 시인이다. 그래서 상주작가인 나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줘서 근무하기 좋았다. 퐁낭작은도서관은 주로 지역작가를 초청해 북콘서트를 열고, 그 책을 10권씩 구입해 도서관에 둔다. 독서회에서 제주 작가나 제주 관련 책 읽기로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나는 이곳 서귀포에서 나고 자랐다. 학창시절을 보낸 마을에서 도서관 상주작가가 되니 그 마을 사정에 눈이 더 밝아졌다. 그래서 세대를 잇는 프로그램으로 고스트북클럽(퐁낭 귓것)을 만들었다. 귓것은 귀신을 뜻하는 제주어인데, 바보 같지만 딴짓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는 예술가의 모습도 귓것을 닮았다. 유령 회원 제도이다. 연대하는 마음으로 모집을 했더니 무려 300여 명이 호응을 해줬다. 도서관을 찾은 어린이들은 별명으로만 소개된 회원 명부를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거나 자신을 알리는 편지를 써 보낸다. 그 편지를 받은 유령 회원은 그 어린이에게 답장을 보낼 수 있는 기회와 책 한 권을 도서관에 기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프로젝트였다. 손편지를 써 보는 경험, 누군가에게 답장을 받는 경험을 어린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글쓰기가 그러한 소통의 글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기도 했다.

주차장 건설 문제로 지나온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은 누구나 마을의 밝은 미래를 원한다는 점이다. 퐁낭작은도서관의 '퐁낭'(원래는 '폭낭'이 맞지만 발음하기 편한 표기 방식으로 '퐁낭'을 많이 쓴다.)은 팽나무를 뜻하는 제주어이다. 팽나무는 마을마다 있어서 마을 사람들의 쉼터이자 사랑방 역할을 했다. 그러니 이곳 퐁낭작은도서관이 마을도서관으로써 아이나 어른 모두 쉬면서 책을 읽으며 마을의 내일을 꿈꾸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이제 상주작가가 끝나 되돌아보니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든다. 퐁낭작은도서관도 고맙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기관도 고맙고, 참여해 준 귓것 회원들과 학생들도 모두 고맙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나도 글 쓰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내가 사는 마을의 이야기를 써나갈 계획이다. 마음으로 연대해 준 퐁낭 귓것 여러분, 우리 유령처럼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퐁낭작은도서관 상주작가
김신숙



충북

진천군립도서관

*2012*년 설립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6*
043–539–7733
https://lib.jincheon.go.kr/

진천군립도서관은 책과의 만남으로 삶의 휴식과 행복을 전달하는 따뜻한 쉼터와 같은 도서관입니다. 지역사회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열람실 및 세대별 자료실, 강의실, 동아리방, 지상 *12*층 높이 전망대와 북카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선진 도서관을 벤치마킹하여 자료열람과 학습이 한 공간에서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지역교육, 문화, 여가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천군립도서관 상주작가 소개

박경희

수필 *2009*년 등단

*1957*년 진천 출생. 진천군청에서 *41*년간 근무하다 사무관으로 퇴직했다. *2009*년 '스토리문학'으로 등단하여 작품활동을 시작했고 진천문인협회 회장을 맡았다. 저서는 『내 영혼의 뜨락』, 『길에서 진천을 만나다』, 『평범한 일상을 빛나는 순간으로』 등이 있으며 현재 충북문인협회 부회장, 포석문학회 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❶ **평범한 일상을 빛나는 순간으로** 놀북, *2022*
❷ **내 영혼의 뜨락** 놀북, *2021*
❸ **길에서 진천을 만나다** 주)대한인쇄, *2015*

진천군립도서관 상주작가 운영프로그램

북 콘서트 – 고정욱 작가와의 만남

『가방 들어주는 아이』 주제도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와의 만남

- *2022*년 *6*월 *4*일(토)
- 총 *1*회, 성인 *40*명 참여
- 참여명사 : 고정욱 작가

(가족) 길 따라 이야기 따라

지역의 역사 인물 및 유적지를 탐구하고 관련한 글을 직접 써보는 문학 프로그램

- *2022*년 *7*월 *4*일(월) ~ *9*월 *19*일(월)
- 총 *10*회, 가족 이용자 *197*명 참여

(어린이) 시·수필 창작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 수필 장르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

- *2022*년 *6*월 *7*일(화) ~ *7*월 *14*일(목)
- 총 *12*회, 어린이 *148*명 참여

북 콘서트 – 나순옥 작가와의 만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기쓰기, 창작글쓰기를 운영하는 콘셉트의 북콘서트

- *2022*년 *7*월 *14*일(목)
- 총 *1*회, 초등생 *62*명 참여
- 참여명사 : 나순옥 작가

진천군립도서관 상주작가 에세이

평범한 일상을 빛나는 순간으로

상주작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거쳐 선정이 됐다. *2022*년 *4*월부터 진천군립도서관 상주작가실에 입주했다. 먼저 *6*개월의 업무계획을 세웠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서관의 기능인 단순히 책을 읽고 빌려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도서관을 매개로 지역과 소통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또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북 콘서트*(2*회*)*와 아동 글쓰기 창작교실 운영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진천은 역사적인 인물도 많고 유적지도 많기에, 상주작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고장의 역사인물과 문화유적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싶었다.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며 *19*가정의 초보작가들이 자신들만의 언어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온 삶을 써내려 가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른과 아이들이 내 고장 진천의 향토문화와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막연히 글 쓰는 법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해오다 가족문집 발행을 시작했다. 가족과 글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자기 생각을 주입하는 것을 발견했다, 온 가족이 지역의 문화유적지를 톺아보고 가족끼리 미처 알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어머니들에게 글을 잘 쓰게 하려고 아이들의 사유에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문학을 알리는 상주작가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글쓰기 수업을 진행 했다.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친구들의 글을 공유하다 보니, 스스로 마음을 열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도 많았다. *8*주차를 마무리한 *7*월에는 '소소한 행복'을 주제로 글감 찾아 나서기를 시작으로 가족, 생일, 선생님, 편지 등의 글제를 주었다. 또한 자기소개, 사물관찰 하기, 생각그물 만들기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글쓰기를 권장했다.

도서관에서 상주작가로 근무하며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글쓰기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편견이나 거부감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22*년 *9*월 생거진천 지역문화유적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평범한 일상을 빛나는 순간으로> 가족 문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상주작가 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

상주 작가실을 마련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진천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감사의 마음을 고한다.

진천군립도서관 상주작가
박경희



 인터뷰: 권효진, 편집: 신형은, 사진: ©생동스튜디오

고양시 주엽어린이도서관

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경기도 고양시 주엽어린이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주엽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 이름 그대로 어린이 이용자가 많다.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책의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 함께 방문하는 어른들은 보호자의 역할로만 존재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다. 주엽어린이도서관은 '세계그림책' 특성화 도서관으로서 세계문화권 어린이와 지역주민을 위한 각 20여개 나라의 언어로 된 68,000여권의 다양한 그림책을 갖추고 있으며, 어린이 뿐만 아니라 여러 연령대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림책을 활용한 특색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추진으로 그림책 도서관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도서관담당자 김홍기

2008년부터 고양시의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3년간 주엽어린이도서관에 몸 담았고, 이후 다른 공공도서관 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러다 다시 돌아온 이 곳에서 상주작가 지원사업 연계 프로그램을 포함한 시민 대상의 워크숍 및 행사를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이다.



상주작가 흥흥 김흥식

김흥식이라는 본명과 본명의 가운데 글자를 딴 '흥흥'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책 작가가 된 지 5년, 너무 재미있어서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이야기를 쓰려 하고, 꼭 이야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그림책으로 목소리 내려 노력한다.『들썩들썩 오삼불고기』,『감옥에 갇히면』,『무인도에서 보내요』,『구이꼬칫집』,『팔팔어묵탕』을 쓰고 그렸고,『초조함 공장』,『지루함 공장』,『아빠의 술친구』,『그렇게 나무가 자란다』, <꿀꺽 공룡 시리즈(전4권)>, <변신 공룡 시리즈(전4권)>을 썼다.



1.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김홍기(담당자)

주엽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와 함께 온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에요. 모든 나라의 언어로 된 그림책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은 이 곳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고요. 연령대와 상관없이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림책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높은 자료 이용율과 많은 이용자 수가 집계되고 있어요.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2022*년에 처음 지원했고, 흥흥 작가님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최우수 도서관으로 뽑혀 더 보람이 있었고, *2023*년에도 연이어 흥흥 작가님이 주엽어린이도서관의 상주작가로 선정이 되어 기뻤어요*!*

흥흥(작가)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서 작가를 선발한다는 것을 친동생을 통해 들었어요. 마침 동생이 고양시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그림책 작가이니 그림책을 전문으로 다루는 주엽어린이도서관을 지원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적극 추천했어요.

어린이, 그림책, 도서관 모든 키워드들이 다 좋았지만 솔직하게 제 거주지와 거리가 좀 있어 아주 약간의 망설임은 있었어요. 고민은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지원서와 면접에서 합격하여 주엽어린이도서관의 상주작가가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거리'가 제 작품 활동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저는 작가로 활동하면서 일상의 삶과 작업의 분리가 어려웠어요. 항상 집이 곧 작업실이었고, 계속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책 생각만 했었죠. 이런 삶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나 제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던 찰나에 상주작가가 되면서 작업실이 생겼어요. 물리적 거리를 이동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과 창작활동 사이 경계가 지어졌고, 도서관 내 상주작가 작업실에 있을 때 최대치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2. *2022*년, 대표적인 상주작가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김홍기(담당자)

*2022*년에 '그림책'을 키워드로 다양한 장기, 단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참여자들이 글쓰기, 그림그리기 활동 뿐만 아니라 나만의 책을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라디오극, 클레이 애니메이션까지 경험해볼 수 있도록 기획을 했던 것이 큰 특징이었어요.

그림책을 여러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확장하고, 폭넓은 세대를 아울러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어요. 모두 함께 그림책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주엽어린이도서관과 흥흥 작가님의 마음이 잘 통했죠*!*

흥흥(작가)

앞서 담당자님이 프로그램을 말씀해주시니 하나 하나가 다 떠오르네요. 그 중에서 저는 '환상 우체통'이 무엇보다 기억에 남아요. 누구든 편지 써서 환상 우체통에 넣어주면, 제가 답장을 써주는 방식인데,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미래의 나>, <평행우주> 등의 테마도 제시를 해주었죠. 편지를 게시할 예정임을 미리 밝히고 쓰는 이는 필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총 *5*개월 동안 저는 몇 통의 답장을 했을까요*?* 약 *400*통에 가까운 편지를 받았고, 저는 손글씨로 하나하나 답장을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참여도가 이렇게

좋으리라 예상치 못했고, 일주일에 10통 이하만 받아도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쓸 답장이 많아져서 손이 아파졌다고 해도 컴퓨터로 타이핑하고 출력해 답장을 쓸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제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을 할테니까요.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죠! (웃음)

3. 2022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참여자는 누구인가요?

흥흥(작가)

환상 우체통의 최대 이용자로 각각 15통, 10통의 편지를 주고 받은 햄찌와 레몬이에요. 고맙게도 두 아이들이 상주작가 프로그램의 마지막 강의를 신청했고, 스스로 햄찌와 레몬이라고 말하며 제게 인사를 건네주었어요. 비록 얼굴은 모르지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주고 받았던 두 아이들을 실제로 만나니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 반가움과 감동이 교차했어요.

장문의 편지가 오면 저도 길게 회신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이들의 편지글이 특히나 길었어요. 기억나는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미래의 나> 테마에서 의사가 된 자신에게 편지를 쓴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미래의 아이가 되어 답장을 했지만, 직업명을 명시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어!'라고만 썼죠. (웃음)

또 <평행우주> 테마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운다는 아이의 답장에 '나는 강아지 열 마리 키우고 있어!'라며 유쾌하게 답장하기도 했어요. 미소짓게 하는 편지도 있지만 마음이 먹먹한 내용도 있었어요. 한 편지 중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글을 적었지만 받는 사람 주소를 몰라서 환상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문장에 '아빠도 엄마 안보고 싶지 않대' 라는 이중 부정을 사용했는데 거기서 아이의 복잡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4. 최우수 도서관 선정을 축하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일궈낸 비결이 궁금합니다.

김홍기(담당자)

도서관과 상주작가 사이의 '케미(*Chemistry*의 줄임말)'가 참 좋았어요. 이 사업에서는 도서관에서 필요한 프로그램과 상주작가가 하고자 하는 활동 사이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조화'가 가장 중요해요. 한쪽에서 원치 않는 것을 하나 수행했다고 다음에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고 받는 형태의 배려는 장기적으로 협업하기 어렵고 미묘하게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먼저 도서관에서 우체통이라는 포맷을 흥흥 작가님에게 의논을 드렸더니 '환상 우체통'이라는 훨씬 재미있는 콘셉트가 탄생하였듯, 서로 대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열린 사이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해요.

흥흥(작가)

도서관에서 제 자율성을 인정해주셔서 저는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출퇴근이 얽매인다는 느낌이 들기보다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높은 자유도를 발휘할 수 있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항상 제가 제시하는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충분하게 고려해주시니까 작가로서 뭔가를 더 시도해보고 싶은 의지가 솟아났어요. 홍보문을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제가 좋아서 한 거였거든요. 홍보문까지 제 마음대로 만드니 저절로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도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5. 상주작가에게 도서관은, 도서관에게 상주작가는 서로 어떤 의미인가요?

김홍기(담당자)

흥흥 작가님은 우리 도서관의 '천군만마'같은 분이에요. 작가님 덕분에 다른 도서관은 없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작가님이 있었기에 풍성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기획할 수 있고, 참여신청 호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들이 좋은 프로그램에 있어 고맙다는 피드백을 먼저 해주실만큼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흥흥(작가)

주엽어린이도서관은 제게 '은인'입니다. 여기서 상주작가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그림책 작가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 싶어요. 그 즈음 코로나 19시기와 맞물려 여러모로 힘들었던터라 이제 작업을 그만 두어야 할까 고민하던 시기였거든요.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만나 힘을 얻었고, 경험의 누적을 통해 장기 프로그램 기획/진행 역량도 개발이 되었어요.

6.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함께하고자 하는 전국의 도서관과 문학작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김홍기(담당자)

도서관은 프로그램 또는 행사라는 결과를 목표하고 사업에 접근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아요. 상주작가 지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먼저 문학작가와 신뢰있는 '관계' 맺기를 하고, 나아가서 도서관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문학의 풍요로움을 전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흥흥(작가)

먼저 주엽어린이도서관이 최우수 도서관에 선정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잘해야겠다고 작심을 했으면 저는 결국 프로그램도 작품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병이 낫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성과를 많이 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제 프로그램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아이들과 즐거이 웃고 책 만들면서 그때 그때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계획을 가진 문학작가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도서관이라는 환경과 책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역별 워크숍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매년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자 담당자 및 상주작가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북) : *2022.10.14.(금)*,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







– 경상권(경남, 경북, 대구, 부산) : *2022.10.19.(수)*, 그랜드 조선 해운대





– 전라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 *2022.10.18.(화)*,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우수도서관 시상식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매년 사업 평가 이후, *1*개의 최우수 도서관, *2*개의 우수 도서관을 선발합니다. *40*개 도서관이 참여한 *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사업에서는 고양시 주엽어린이도서관이 최우수 도서관으로 뽑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부산 남구도서관, 수성 구립 용학도서관은 우수 도서관에 선정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우수도서관 담당자 및 상주작가 (위), 최우수도서관 주엽어린이도서관 상주작가 김흥식 (아래)

프로그램 및 활동



구산동도서관마을



부산남구도서관



전라남도립도서관



신일작은도서관



우장산숲속도서관



용학도서관



주엽어린이도서관



정읍기적의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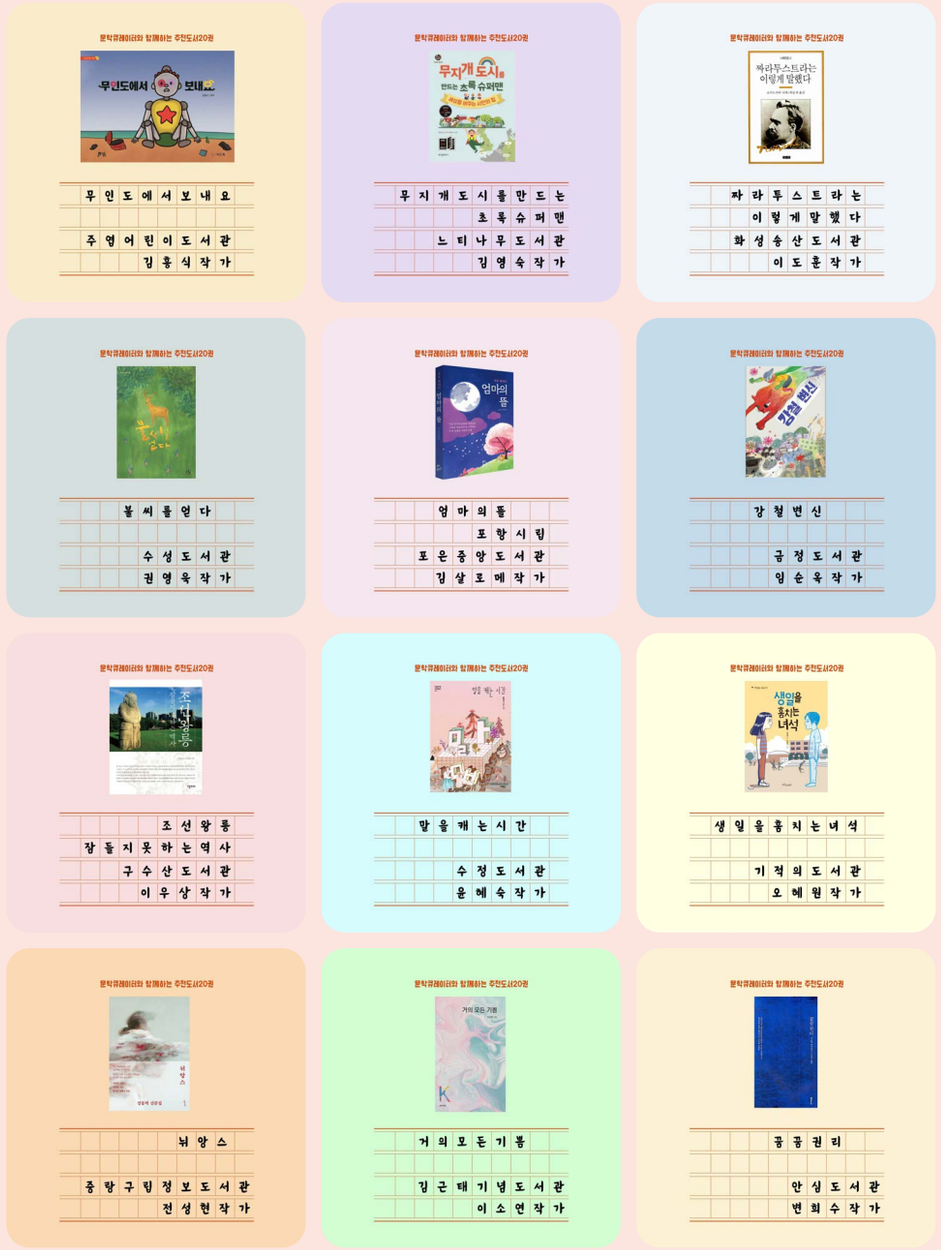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하늘을나는도서관

2022년 상주작가 추천 도서 카드뉴스



문학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주민도서20권



박 박 머 리 천 백 지 옹

동 대 문 당 신 리 도 서 관

백 운 하 작 가

문학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주민도서20권



존 은 제 인 을 만 낫 지 만

행 복 세 상 작 은 도 서 관

장 마 리 작 가

문학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주민도서20권



너 에 게 하 고 픈 말

오 산 시 중 앙 도 서 관

권 지 영 작 가

문학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주민도서20권



마 시 멜 로 의 달 콤 한 비 밀

이 석 영 뉴 미 디 어 도 서 관

류 미 정 작 가

문학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주민도서20권



무 무 씨 의 달 그 네

연 체 도 서 관

서 정 아 작 가

문학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주민도서20권



열 살 , 도 덕 경 을 만 나 다

도 곡 정 보 문 화 도 서 관

우 성 희 작 가

문학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주민도서20권



이 름 없 는 주 드

상 계 도 서 관

유 혜 율 작 가

문학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주민도서20권



덜 어 놓 고 웃 었 다

부 산 남 구 도 서 관

채 수 옥 작 가

III.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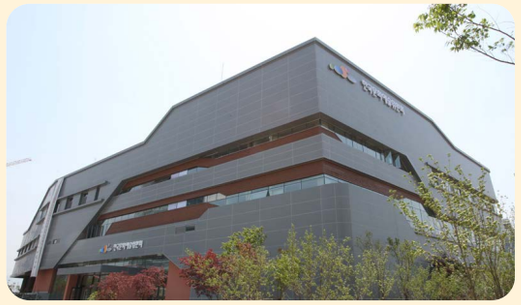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추진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 으로써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중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제 18769호 일부개정 : 2022.07.19]*

*1972*년 *8*월 *14*일 법률 제*2337*호로 제정,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하며,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등 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 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등을 말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약칭으로는 예술위, *ARKO*를 사용한다.

본래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번지에 있었으나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2014*년 *5*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은 ①문학·시각·연극·음악·무용·전통·다원예술 등 순수예술 전 분야의 고른 발전을 위한 창작 지원, ②문화소외계층의 향유권 신장을 위한 문화바우처, 복권기금문화나눔 등 문화복지사업, ③크라우드펀딩, 재능기부, 기부금 운영 등 예술기부 사업, ④세계 속에 한국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 교류 사업, ⑤중앙과 지역의 균형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역 협력 사업, ⑥국민의 일상 속 예술체험 및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미술 사업 등으로,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본관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에 있으며, 그 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에 아르코미술관 및 예술가의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창의예술 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학진흥법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제18151호 일부개정 2021.11.19.]*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하며,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문학 진흥의 기본방향
② 문학 창작 활성화 및 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③ 문학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④ 문학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⑤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⑥ 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⑦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⑧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⑨ 문학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서관법

제2조(정의)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18763호, 일부개정 : 2022.1.18]*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022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현황 분석

1) 도서관

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한 총 40개 공공도서관을 참여횟수별로 구분하면 신규 참여 13개, 2회차 11개, 3회차 9개, 4회차 4개, 5회차 3개로 신규참여 도서관이 가장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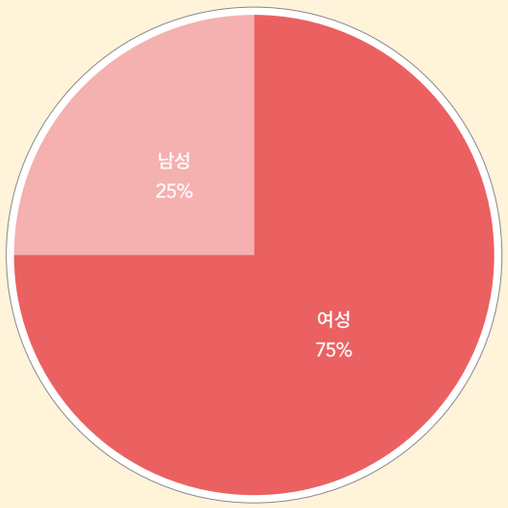
연번	권역	도서관명	설립유형	과거 참여연도
1	서울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구립	2017
2		우장산숲속도서관	구립	–
3		관악중앙도서관	재단	2020, 2021
4		상계도서관	구립	–
5		김근태기념도서관	구립	–
6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구립	2017, 2018, 2019
7		구립증산정보도서관	구립	2021
8		은평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구립	2017, 2019
9		가온도서관	구립	–
10		중랑구립정보도서관	구립	2021
11	인천	소래도서관	구립	–
12	경기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2021
13		고양시립 주엽어린이도서관	시립	–
14		성남시수정도서관	시립	–
15		오산시중앙도서관	시립	2021
16		느티나무도서관	재단	2017, 2019
17		평택시배다리도서관	시립	2019, 2020
18		화성시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시립	2021
19		화성시립송산도서관	시립	2021
20	경남	동동숲작은도서관	민간	2020, 2021
21		장유도서관	시립	2017, 2018, 2020
22	경북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시립	2017, 2018, 2019, 2021
23	대구	달성군립도서관	군립	2017, 2018, 2019, 2021
24		대구동구안심도서관	재단	–
25		대구북구구수산도서관	재단	2019, 2020, 2021
26		대구시립수성도서관	시립	–
27		수성구립용학도서관	재단	2017, 2018, 2019
28	부산	금정도서관	구립	2017
29		정관도서관	군립	2021
30		부산시남구도서관	구립	–
31		만덕도서관	구립	–
32		맨발동무도서관	민간	–
33		연제도서관	구립	2020, 2021
34	광주	광주신일작은도서관	민간	2020, 2021
35	전남	하늘을나는도서관	민간	2021
36		전라남도립도서관	도립	2017, 2018, 2019, 2021
37	전북	행복세상작은도서관	민간	2021
38		정읍기적의도서관	시립	–
39	충북	진천군립도서관	군립	2020, 2021
40	제주	풍낭작은도서관	민간위탁	2020, 2021

2) 상주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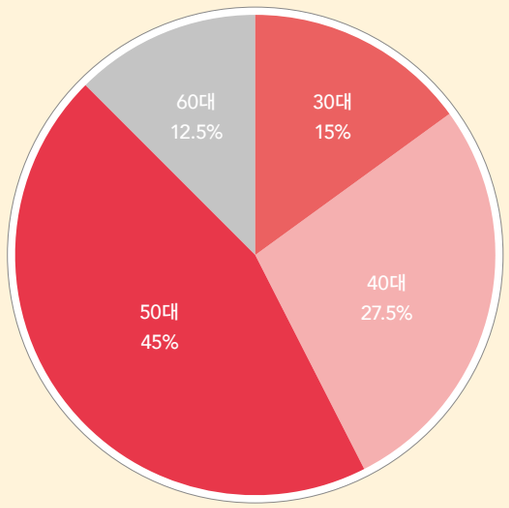
2022년 사업에 참여한 도서관별로 활동한 상주작가 및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권역	도서관명	설립유형	과거 참여연도
1	서울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우성희	동화, 그림책
2		우장산숲속도서관	정혜원	아동문학
3		관악중앙도서관	정명섭	소설
4		상계도서관	유혜윤	아동, 청소년 문학
5		김근태기념도서관	이소연	시
6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백은하	동화
7		구립증산정보도서관	손현주	소설
8		은평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차현지	소설
9		가온도서관	장수양	시
10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전성현	아동, 청소년 문학
11	인천	소래도서관	홍명진	소설
12	경기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류미정	아동문학
13		고양시립 주엽어린이도서관	김홍식	그림책
14		성남시수정도서관	윤혜숙	아동, 청소년 문학
15		오산시중앙도서관	권지영	시
16		느티나무도서관	김영숙	아동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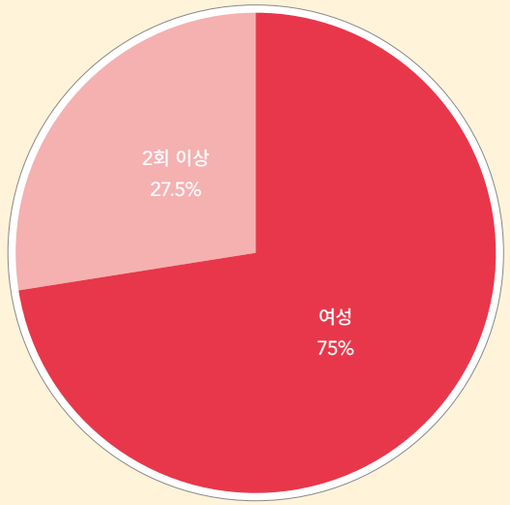
17	경기	평택시배다리도서관	유영진	동화
18		화성시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권문희	그림책
19		화성시립송산도서관	이도훈	시
20	경남	동동숲작은도서관	배익천	동화
21		장유도서관	송미선	시
22	경북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김살로메	소설
23	대구	달성군립도서관	손인선	아동문학
24		대구동구안심도서관	변희수	시
25		대구북구구수산도서관	이우상	소설, 수필
26		대구시립수성도서관	권영옥	아동, 청소년 문학
27		수성구립용학도서관	김준현	아동, 청소년 문학
28	부산	금정도서관	임순옥	동화
29		정관도서관	황선애	아동, 청소년 문학
30		부산시남구도서관	채수옥	시
31		만덕도서관	이희정	소설
32		맨발동무도서관	김지현	소설
33		연제도서관	서정아	소설
34	광주	광주신일작은도서관	안수자	동화
35	전남	하늘을나는도서관	김남중	동화
36		전라남도립도서관	박성민	시
37	전북	행복세상작은도서관	장마리	소설
38		정읍기적의도서관	오혜원	아동, 청소년 문학
39	충북	진천군립도서관	박경희	수필
40	제주	풍낭작은도서관	김신숙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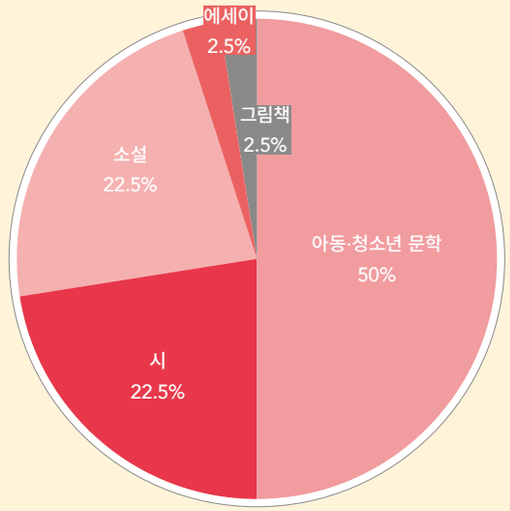
성별



연령



참여횟수



활동장르

상주작가를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30명(75%), 남성 10명(25%)이며, 연령대는 50대 18명(45%), 40대 11명(27.5%), 30대 6명(15%), 60대 이상 5명(12.5%) 순입니다. 2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했던 상주작가는 29명(72.5%), 신규 참여작가는 11명(27.5%) 를 차지합니다. 신규 참여작가의 주 연령대는 40대 이상으로, 50대(11명), 40대(8명), 60대 이상(3명)임. 이외 40대 미만은 30대(6명)입니다. 주요 활동장르는 아동·청소년 문학이 20명(50%), 시와 소설이 각각 9명(22.5%)를 차지함. 이외 에 세이 1명(2.5%), 그림책 1명(2.5%) 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3) 프로그램

2022년에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문학 프로그램의 수를 줄이고, 참여자의 집중력을 높이며 상주작가와 대면할 수 있는 오프라인 프로 그램의 비율을 높이고 추세를 보였습니다.

- 온라인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혼합형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서관이 전체 40개 관 중 6개로 나타났으며, 혼합형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실행하는 도서관은 총 3곳이었습니다.

- 상주작가 문학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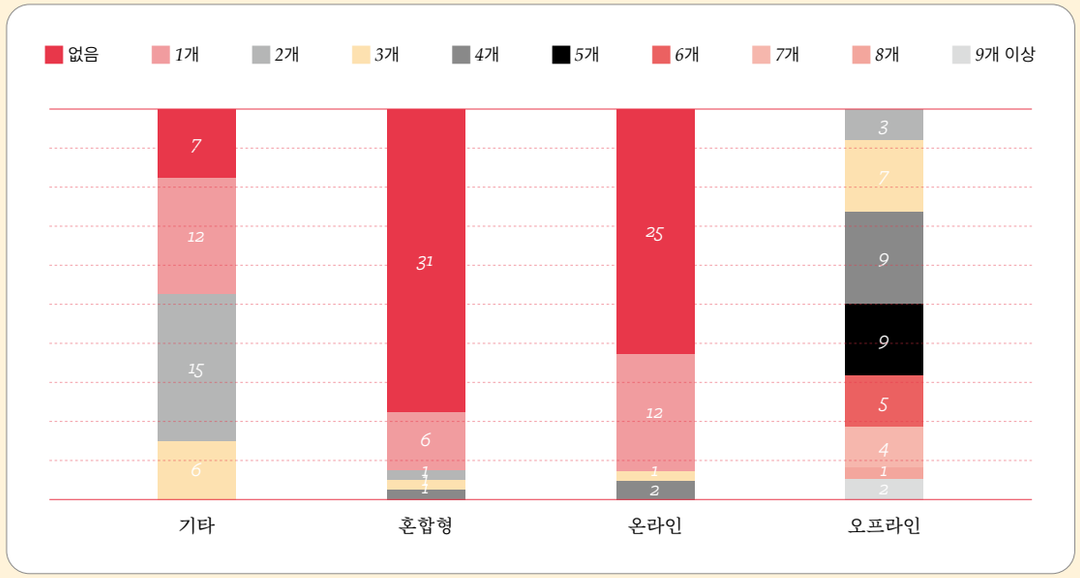
  강의(95%), 글쓰기 실습(90%), 책 만들기(65%), 문학 감상(57.5%), 낭독(40%), 융합형(연극, 미술 등 장르와의 융합으로 25%), 현장 체험(글쓰기 영감을 얻기 위한 현장 답사 및 체험으로, 20%), 영상 콘텐츠 제작(17.5%) 등

  이외 문학상담(7.5%), 북 큐레이팅(7.5%), 북 콘서트(5.0%), 고전통독(2.5%), 전시, 오디오 클립(2.5%), 예술치유워크숍(2.5%), 오디오 북제작(2.5%), 시전/시화집 발표(2.5%), 북 큐레이 션 팟빵 방송 제작(2.5%), 전시(2.5%) 등

– 40개의 도서관 중 12개 관이 1개, 15개 관이 2개, 6개 관이 3개의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기타 프로그램은 대체로 상주작가와 도서관 이용자 및 상주작가 운영 프로그램 참 여자 간의 대면 기회를 높이고 협력 작업을 촉진할 수 있는 형식이 많았습니다.

– 도서관별 운영하는 오프라인 문학 프로그램은 최소 2개부터 최대 9개 이상(15개)까지 다양했으며, 평균적으로 4~5개의 오프라인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도서관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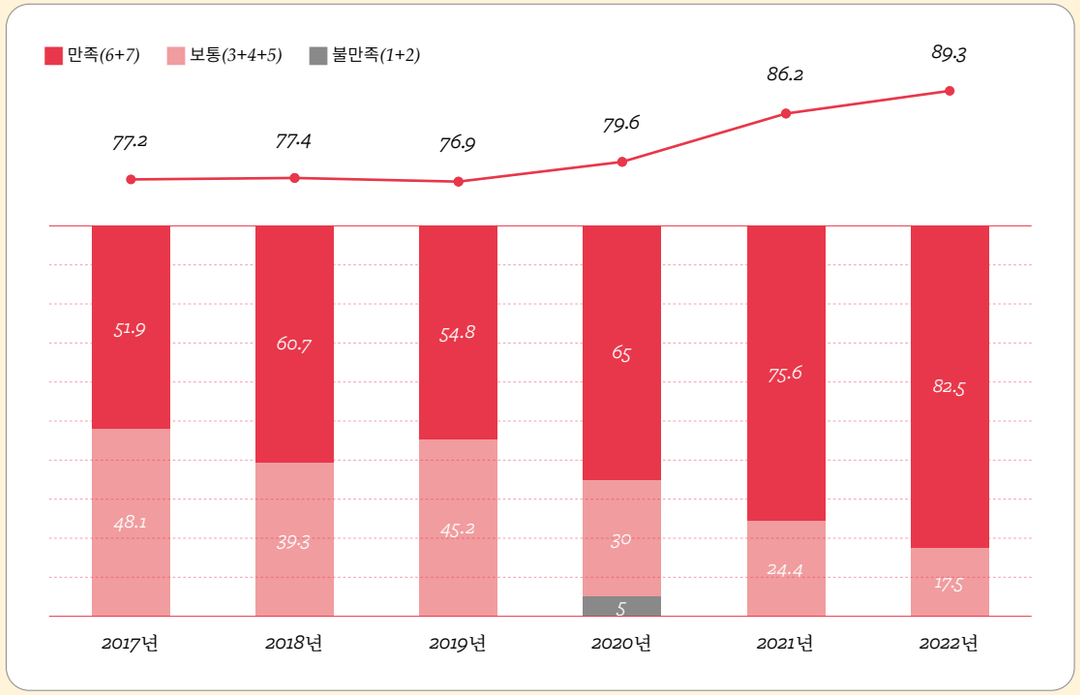


4)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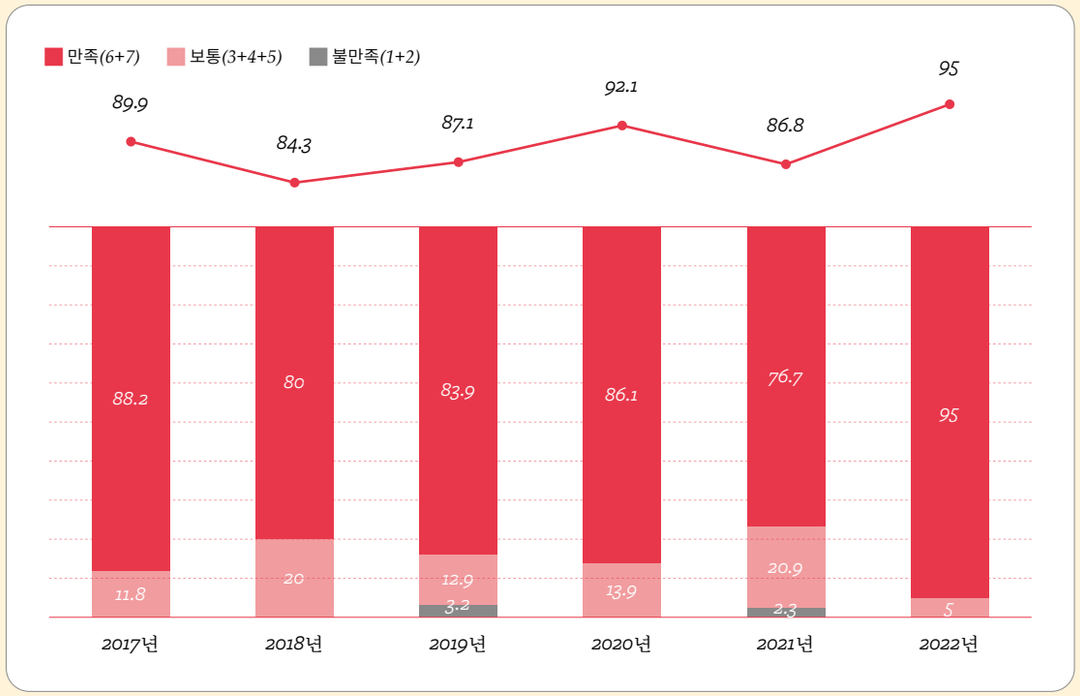
2017년부터 도서관과 상주작가, 참여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만족도 조사에서 다수의 도서관 담당자들은 본 사업이 도서관의 이미지 개선과 차별성을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으며, 상주작가 역시 본 사업이 창작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의 문학 향유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큰 기여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문학 작가의 창작지원을 통한 문학의 퀄리티 강화는 결과적으로 지역민의 문학향유의 수준을 높이는 밑거름이 된다는 맥락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민의 문학향유 확대'와 '작가의 창작지원'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있게 병행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도서관 사업 담당자 중 20명(50%)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13명(32.5%)이 '만족', 4명(10%)이 '다소 만족'한다고 응답함. 3명(7.5%)이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보통 미만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상주 작가의 전반적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참여에 매우 만족하였으며(95%), 타 작가에게 본 사업을 추천할 의향도 매우 높았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참여 주민의 82.5%(386명)가 참여하였던 상주작가 문학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하였으며, 12.8%의 응답자(60명)은 '만족', 2.8%의 응답자(13명)는 '다소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서관 사업 담당자의 전반적 사업 만족도 연도별 추이 (단위: 점, %)



상주작가의 전반적 사업 만족도 연도별 추이 (단위: 점, %)



「2022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안내

「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안내

2021.1월/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체육기금)「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2022년 사업 주요 내용]
- 사업기간 : 2022.1월~12월 * 상주작가 채용기간 : 22.4월~9월(6개월)
- 상주작가 재고용 제한 기준 폐지(단, 동일 도서관 근무는 최대 2회로 제한)
- 사업 신청 유형 : (기존) 사전매칭형, 사후채용형 (변경) 사후채용형으로 통합
  - 사후채용형 : 사업 신청 후 선정결과에 따라 상주작가 공개채용

2. 사업목적

-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문인이 상주하여 지역 주민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인의 일자리 및 안정적 창작 여건 제공을 통해 해당지역의 문학 수요 창출 모색

3. 신청자격

- 도서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

도서관법 제2조(정의) :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 · 독서활동 ·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 · 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 자격요건
  - 상주작가의 고용과 협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독립된 창작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 상주작가와 협력을 통해 특화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건(인력, 예산 등)을 갖춘 도서관

<상주작가 채용 자격 기준 : 현재 활동 중인 문인(등단 3년 이상)>

현재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등단 3년 이상)으로 아래의 조건이 성립하는 자 (사업 참여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동일 도서관 고용의 경우 최대 2회로 제한)
- 개인 작품집 1권 이상 발간 실적이 있는 자
- 각종 문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유경험자 또는 운영이 가능한 자
- 예술위원회와 공공도서관이 정한 근로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집필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활동실적 제출
- 월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유사사업 참여자 제외
  * 유사사업 : 한국문학관협회「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한국작가회의「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단, 사업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
- 부정수급 대상(가족간 채용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제외
- 다음 규정에 근거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 6의 3을 준용한 규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규정 등

4. 사업내용

- 사업유형 : 사후 채용형
  - 사후 채용형 : 공모를 통해 도서관 선정 후 도서관별 상주작가 공개채용
- 사업기간 : 2022.1월~12월(12개월) *상주작가 채용기간 : 2022.4월~9월(6개월)
- 지원내용 및 규모 : 상주작가 인건비, 고용부담금, 프로그램 운영비
  * 예시) 사업비 : 인건비(200만원×6개월) + 4대보험료(24.5만원×6개월) + 운영비(300만원) = 1,647만원
- 상주작가 인건비: 200만원/월, 고용부담금(4대 보험료) : 24.5만원/월
-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 300만원/년

아래 내용을 포함한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필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공공도서관 자체 취업규정을 따라 근로계약서에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 채용 전체 경과에 대한 관련 서류(지원서, 서류전형, 면접전형 결과 등)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해야함

〖근로기준〗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서관과 상주작가는 1주간의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일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도서관은 상주작가에게 1주에 2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위 ③호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한 경우 1주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은 1일 최소 4시간의 창작활동 시간과 월 2일의 외부활동 시간을 상주작가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상주작가는 도서관 관내에서 창작활동 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 상주작가 협력, 도서관 문학 프로그램 예시

① 작가와의 만남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② 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 특성을 활용한 행사(북콘서트, 글쓰기 또는 글 읽기)
③ 지역문학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④ 그 외 지역 문학 발전 및 도서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 등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비목	세목	항목	비고
인건비	상용임금	– 상주작가 보수	· 4대보험 가입 의무 · 근로계약서 체결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제작비 – 현수막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비 – 프로그램 진행관련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사례비(초청특강) 등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사업성과물 제출 등
	임차료	– 장소, 장비 등 임차료	· 위원회 사전 협의
여비	국내여비	– 국내 출장 시	· 위원회 사전 협의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등	· 50만원 한도 내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
민간 이전	고용 부담금	– 도서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 4대 보험료

– 2022년 사업예산
· (체육기금)8.5억원

5.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 평가 내용
도서관의 시설 및 특성화 수준 (40%)	–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자료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주작가의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가?
제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사업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시설, 조직, 인력 등)을 갖추었는가? – 제안 프로그램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수요자 개발 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양자 간에 합의된 문학 프로그램은 문학 수요자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문학 활성화 발전 기여도 및 기대성과 (30%)	– 도서관은 작가의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가? – 제안 프로그램이 문학 수요자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6.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접수기간 : 2022.1.14.(금)~2.4(금) 12:00까지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 시 유의사항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

＊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2년_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_지원신청서_도서관명
② 사업자등록증	필수	PDF 포맷 파일 1개 용량 최소화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사업자등록증_도서관명 * 단체의 설립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이며, 비영리법인의 경우고유번호증 제출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7.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사업추진 절차

1. 지원신청 접수 도서관 ➡ 예술위	2. 지원 심의 예술위	3. 선정결과 발표 예술위	4. 권역별 오리엔테이션 도서관, 작가
5. 사업 수행 도서관, 작가	6. 현장 모니터링 및 정산 방문 교육 예술위, 도서관	7. 성과공유 워크숍 예술위, 도서관, 작가	8. 지원금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제출 도서관 → 예술위

–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2022.1.14(금)~2.4(금) 12:00까지
· 심의 및 결과발표 : 2022.2.28(월) 예정
· 사업 수행 : 2022.3월~11월
· 권역별 OT / 성과공유 워크숍 : 2022.3월 / 2022.10월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022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참여 도서관

경기 고양시 고양시 주엽어린이도서관
경기 가평군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경기 성남시 성남시 수정도서관
경기 오산시 오산시 중앙도서관
경기 용인시 느티나무도서관
경기 평택시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경기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경기 화성시 화성시 송산도서관
경남 고성군 동동숲작은도서관
경남 김해시 장유도서관
경북 포항시 포항시립 포은중앙도서관
광주 서구 신일작은도서관
대구 달성군 달성군립도서관
대구 동구 대구 동구 안심도서관
대구 북구 구수산도서관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
대구 수성구 용학도서관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
부산 기장군 정관도서관
부산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도서관
부산 북구 만덕도서관
부산 북구 맨발동무도서관
부산 연제구 연제도서관
서울 강남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서울 강서구 강서구립 우장산숲속도서관
서울 관악구 관악중앙도서관
서울 노원구 상계도서관
서울 도봉구 도봉구립 김근태기념도서관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서울 은평구 구립증산정보도서관
서울 은평구 은평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서울 중구 가온도서관
서울 중랑구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인천 남동구 소래도서관
전남 목포시 하늘을나는도서관
전남 무안군 전라남도립도서관
전북 익산시 행복세상작은도서관
전북 정읍시 정읍 기적의도서관
제주 서귀포시 퐁낭작은도서관
충북 진천군 진천군립도서관

인쇄 *2023*년 *8*월 *31*일
발행 *2023*년 *8*월 *31*일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소 *58236*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연락처 *061–900–2322, 2330, 2331*
홈페이지 *www.arko.or.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munhakcurator*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제작/편집 피제이컬쳐, 권효진, 신형은
디자인 공영그래픽스튜디오

2022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참여 도서관

경기 고양시 고양시 주엽어린이도서관
경기 가평군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경기 성남시 성남시 수정도서관
경기 오산시 오산시 중앙도서관
경기 용인시 느티나무도서관
경기 평택시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경기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경기 화성시 화성시 송산도서관
경남 고성군 동동숲작은도서관
경남 김해시 장유도서관
경북 포항시 포항시립 포은중앙도서관
광주 서구 신일작은도서관
대구 달성군 달성군립도서관
대구 동구 대구 동구 안심도서관
대구 북구 구수산도서관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
대구 수성구 용학도서관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
부산 기장군 정관도서관
부산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도서관
부산 북구 만덕도서관
부산 북구 맨발동무도서관
부산 연제구 연제도서관
서울 강남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서울 강서구 강서구립 우장산숲속도서관
서울 관악구 관악중앙도서관
서울 노원구 상계도서관
서울 도봉구 도봉구립 김근태기념도서관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서울 은평구 구립증산정보도서관
서울 은평구 은평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서울 중구 가온도서관
서울 중랑구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인천 남동구 소래도서관
전남 목포시 하늘을나는도서관
전남 무안군 전라남도립도서관
전북 익산시 행복세상작은도서관
전북 정읍시 정읍 기적의도서관
제주 서귀포시 퐁낭작은도서관
충북 진천군 진천군립도서관

인쇄 *2023년 8월 31일*
발행 *2023년 8월 31일*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소 *58236*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연락처 *061–900–2322, 2330, 2331*
홈페이지 *www.arko.or.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munhakcurator*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제작/편집 피제이컬쳐, 권효진, 신형은
디자인 공영그래픽스튜디오